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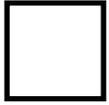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

2012년 10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성당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심포지엄 순서

사회 : 변진홍(사회사도직연구소 부소장)

시작기도와 인사 · 손희송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평협 담당사제)

개회사 · 최홍준(한국천주교 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 · 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제1주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서적 의미

발제: 주원준 박사(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정토론: 전봉순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제2주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발제: 조광 교수(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지정토론: 정연정 신부(절두산 순교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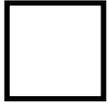
♥ 휴식

<제3주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세상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발제: 정진호 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지정토론: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종합토론



목차

개회사 /

<제1주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성서적 의미 /

발제: 주원준 박사(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정토론: 전봉순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제2주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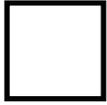
발제: 조광 교수(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지정토론: 정연정 신부(절두산 순교성지)

<제3주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세상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

발제: 정진호 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지정토론: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회사

새로운 복음화와 평신도사도직

최홍준 회장(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오늘 '신앙의 해'(10월 11일~2013년 11월 24일)를 시작하면서 저희 평협이 사회사도직 연구소를 통해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을 주제로, 이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를 격려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구장 대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과 교구 사목국장이며 평협 담당사제이신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주원준 박사님과 조광 교수님,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전봉순 수녀님과 정연정 신부님, 이정희 교수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사회를 담당하신 변진흥 박사님과 연구소 제위 연구위원, 평협 임원, 직원, 언론매체에서 오신 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해가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장대한 비전을 갖고 추진 중인 '새로운 복음화(New Evangelization)'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미 2010년 바티칸에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신설한 데 이어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지난 7일에 소집했습니다. 신앙의 해 제정 취지를 담은 교황 자의교서 「믿음의 문」과 지역교회 준비를 돕기 위한 신앙교리성 사목권고는 1년 전에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가 오늘날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맞서 새 길을 내는 것인 만큼, 과거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열정에서 새롭고, 방식에서 새로우며, 표현까지도 새로운' 복음화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신앙의 해 선포 취지를 "사람들을 광야에서 생명의 풀밭으로 이끌어야하는 교회 사명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고 교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복음화. 여기에는 복자 교황 요한 23세(재위 1958-1963)의 공의회 개막연설이 한몫을 합니다. 저는 최근 로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공의회 영상물을 감상할 기회를 가졌는데, 흑백 화면에 비친 교황님은 삼중관 대신 흰색 주교관을 쓰고 바티칸의 청동문을 거쳐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행진했습니다. 관례대로 가마에 올랐으나 대성전 입구부터는 걸어서 공의회 교부들 대열을 지나 소박한 교황좌로 향했고, 그의 개회 연설은 따로 제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의회 방향을 새삼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대학의 제랄드 헬란(Fr. Gerald Whelan) 교수 신부는 이번 회의에서 행한 강의를 통해 요한 23세가 “거룩한 전승을 가능한 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 곁으로 가져오되, 변화된 생활환경과 사회구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오류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설의 영향력을 남김없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한 개막 연설 내용이 공의회의 사목 방향이었고, 공의회 전에 준비한 문헌들이 거부된 점과 수에넨스(Suenens, Léon Joseph, 1904-1996) 추기경의 연설도 복음화에 뿌리를 이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벨기에 멜린 대교구의 대주교였던 수에넨스 추기경이 이 공의회에 기여한 점은 참으로 많고, 특히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과 그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와 평신도. 우리 평신도는 매우 확고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교회를 건설하고 세상을 그리스도화하는 두 가지 과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실 수 있게 해드리는 - 이는 곧 교회를 건설함을 뜻합니다. - 좀 더 영신적인 면과, 이 세상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가기 위해 일하는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회 50년 후의 ‘새로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도 참으로 많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새 영세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문으로 흘러나가는 쉬는 신자의 수 역시 적지 않은 현실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님의 새해 사목교서는 ‘허약한 신앙’, ‘허약한 믿음’에 그 원인을 찾아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은 난관에 부딪치거나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이 많고, 성경과 교리지식이 부족해서 이단적 교설에 빠져드는 신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사목교서는 한국 신자들의 신앙 위기를 ‘신앙의 기초’가 약한 데에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해 모든 프로그램을 ‘신앙의 기초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역설합니다.

올해 전교주일 교황님 담화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의 계획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과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 선물이며 신비입니다. 이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은 나누라고 받은 선물입니다. 신앙은 열매를 맺도록 받은 탈렌트입니다. 신앙은 감추어질 수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이 온 집안을 비추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며, 이 선물은 우리만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사십일이 지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고 당부하신 다음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 속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임해주시는 성직자, 수도자, 교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주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성서적 의미

발제: 주원준 박사(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정토론: 전봉순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신앙의 해’를 맞는 ‘하느님의 백성’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성서적 의미

주원준 토마스 (한림성서연구소)

“ ‘하느님 백성’은 최근 더욱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되었다. 특히 교회 일치 논의에서,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서, 그리고 해방신학의 맥락에서 그렇다.” - N. Lohfink, *NBL I* (1991), p. 940.

“분명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교회헌장 2장, 9-17)을 통해 ‘교회’의 뿌리가 구약성경에 있고, 구약성경에 근거 해야 함을 명료하게 밝혔다.

분명히 구약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 곧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 수많은 장면들, 사건들, 과정들의 중요한 주체일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이 백성을 이끌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근심과 관심을 쏟은 대상이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고난받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성경의 하느님 백성이라 하면, 과연 이 백성의 어떤 양식과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인가? 부족들이 평등하게 결속한 이스라엘인가? 국가제도가 완성된 전제국가시대의 이스라엘인가? 유배이후 신정국가로서 재건된 이스라엘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형태와 버전(Spielart)이 오늘날 교회적 실재(Kirchenwirklichkeit)의 모델로서 제출되어야 하는가?” - T. Seidl, in Garhamer, *Ekklesia semper reformanda* (Würzburg 2006)

1. 들어가며
2. 주목받던 낱말들: 모임, 합류
 - 2.1. 카할 - 엑클레시아 (모임)
 - 2.2. 에다 - 시나고게 (합류)
3. 새로운 낱말: 백성 7
 - 3.1. 친삼촌
 - 3.2. 친족, 거래,
 - 3.3. 백성
4. 하느님 백성
 - 4.1. 주님의 백성
 - 4.2. 크모스의 백성 - 참고사항
 - 4.3. 열린 하느님의 백성
 - 4.4. 신명기
 - 4.5. 친밀함과 윤리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보편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일인 2012년 10월 11일부터 이듬해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11월 24일까지 '신앙의 해' (Year of Faith)를 지낸다.¹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는 자의교서 '신앙의 문' (Porta Fide)에서 '신앙의 해'는 그 자체가 "공의회 이후의 시대적 요구와 결과"이며, 따라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의회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임을 밝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개막 50주년에 맞추어 '신앙의 해'를 시작하는 것이 공의회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복자의 말대로, 공의회 교부들이 유산으로 남긴 문헌들은 "그 가치나 광채가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공의회를 20세기의 교회에 내려진 큰 은총으로 강조할 의무를 느낍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세기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확실한 나침반을 우리는 공의회에서 발견합니다"(『신앙의 문』, 5항)²

이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유효한 지침일 뿐 아니라 신앙의 기둥이다. 교회의 구석구석에 큰 영향을 끼친 공의회의 중요한 열쇳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느님의 백성' (populus dei)이다. 이 말은 성서학, 조직신학, 교회론, 실천신학 등은 물론이고, 공의회 이후 교구, 수도회, 각종 단체 등의 구조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S. Wiedenhofer, M. Kehl). 특히 이 개념은 명백히 구약성경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공의회 이후 구약신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³

공의회 이후의 시대는 공의회를 공부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필자는 '신앙의 해'를 맞아 공의회의

-
1. 2012년 10월 11일은 199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의 반포 2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신앙의 해'는 이 교리서 반포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신앙의 문』, 특히 11-12항). 하지만 이 발표문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하느님의 백성' 개념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므로, 교리서 반포 20주년과 관련된 제반의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2. 직접 인용문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교서 『새 천년기』 (Novo Millennio Ineunte) 57항의 인용이다.
 3. 또한 이 개념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와 '옛 계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비시키는 개념으로서 반유다주의의 맥락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도 했다. Lohfink/Zenger, *Der Gott Israels und die Völker - Untersuchung zum Jesajabuch und zu den Psalmen*, SBS 154 (Stuttgart 1994) 11-18. 이 또한 '하느님의 백성' 개념과 관련하여 무척 흥미로운 논쟁이지만, 이 발표문의 논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략한다.

열쇳말 가운데 하나인 '하느님의 백성'을 어원학적 기초에서부터 그 연관된 낱말과 함께 재검토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공의회가 제시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이다. 더불어 부족한 식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약신학의 발전상을 점검하는 일도 시도하려 한다.

지금까지 대체로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론적 차원에서 주목받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공의회 이전의 교회론과 대조되는 의미로 많이 논의된 것 같다. 앞에서 인용한 자이들(T. Seidl)이 제시했듯, 구약성경에 드러난 '하느님의 백성'의 다양한 '유형'과 '모델'을 정리하면, 아마도 교회론적 논의에 더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문에서는 아쉽게도 생략한다. 하지만 필자는 '하느님의 백성'이 원래 제시되었던 구약성경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고, 공의회 이후의 구약신학적 논의를 재검토하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업은 결국 교회론 및 기타 신학적 논의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의회 반포 20주년을 맞아 시작되는 '신앙의 해'의 선포 의의에도 잘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신앙의 해'를 살아야 하는 '하느님의 백성'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이 발표문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는 『성경』 본문을 사용한다. 다만 언어학적 낱안스 등을 살리기 위해서 필자의 번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밑줄을 쳐서 표기하고, 각주에 『성경』 본문을 밝힌 다음 해당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 문자열을 제시한다.

최근 일부 구약학 저널 등에서 사용되는 대로, 히브리어는 최초에 등장할 때에만 [] 표식에 최대한 가깝게 음역하고 원어를 병기한다. 두 번째 부터는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표기하고 원어를 병기하지 않는다.⁴

2. 주목받던 낱말들: 모임, 합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구약성경에서 '교회'에 대응하는 것으로 연구되던 낱말을 먼저 검토해 보면, 공의회가 참신하게 제시한 '백성'의 독특한 의미가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전통적으로 연구되던 낱말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공의회의 의도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2.1. 카할 - 엑클레시아 (모임) קָהָל - ἐκκλησί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교회'의 뿌리가 된 구약성경의 낱말로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4.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발표문은 아직 완성된 연구가 아니라서 여러 군데에서 적잖이 모자란 점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성서언어학적 작업은 치밀하게 관찰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충분히 정밀함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다.

[카.할]קָהַל 이다. 이 낱말은 '회중' 또는 '무리'를 의미한다. 이 낱말의 동사형은 [카.할]קָהַל인데 니팔형(N형)과 히필형(H형)만 실현(realisation)되는 독특한 낱말로서, 뜻은 '모으다'(to assemble)이다(HALOT). 지금부터 볼 카할은 이 동사의 명사형이다.

카할은 '교회'의 뿌리가 된 낱말이지만 본디 그 자체로 종교적인 회중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듯, 비이스라엘 민족의 '무리'나 (역시 비이스라엘인의) 군사적 '집단'에도 사용되는 말이다. 곧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종교적 모임이든 아니든, 그저 '사람의 무리'에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네가 **민족들의 카할**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창세 28,3).⁵

너는 네 고장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탄 **큰 카할이며 많은 군대이다**(에제 38,15).⁶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겪고 난 다음부터, 이 낱말은 '무리'를 의미하지 않고, 본격적인 '의례 공동체'(cultic community)를 가리키는데 쓰인다. 곧, 유배이후에는 지금의 '교회'와 근접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HALOT). 특히 '주님의 회중' 또는 '회중의 날'⁸ 등 다양한 파생어를 생산했다.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의 무리'를 가리키는 용법이 잦아든 것은 아니다. 유배 이후에도 '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법 쓰였고, 사마리아어 오경과 심지어 중세 히브리어에서도 '무리'의 뜻으로 쓰였다(HALOT, Sokoloff). 특히 쿰란 문헌에서도 이 낱말로 '하느님 백성의 회중'과 '적의 무리'를 모두 지칭한 점과(DJD) 고대 시리아어(ܩܗܠܐ qahlā)에서도 이 낱말이 그저 '무리'(crowd)을 의미했다는 점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Payne-Smith).

한마디로 이 낱말은 주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의 의미로 자주 쓰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무리'로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이 늘 깨끗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 낱말을 옮길 때 조심해야 한다(HALOT). 이런 개방적 용법을 볼 때, 이 낱말이 본디 구약성경에서 교회만을 배타적으로 가리키지 않음이 확실하다.

한편 칠십인역(LXX)이 카할을 [엑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옮겼고, 이 말에서 '교회'(ecclesia)란

5. 『성경』: “민족들의 무리가”(לְקָהַל עַמִּים). 이와 똑같은 용법이 아래에도 쓰였다. 문맥도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한 네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창세 48,4)

6. 『성경』: “대군이며 큰 병력이다”(קָהַל יְהוָה וְחַיִּל רַב)

7. קָהַל יְהוָה 민수 16,3; 20,4; 신명 23,2-4,9; 미카 2,5; 1역대 28,8 등.

8. קָהַל יְהוָה 신명 9,10; 10,4; 18,16. 이 밖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다.

말이 나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그리스말의 의미도 본디 ‘모임’ 또는 ‘회중’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어근은 달랐다. 엑클레시아는 ‘부르다’는 동사에서 파생한 것이다.⁹ 곧 ‘(널리) 불러 모은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 말도 역시 무척 개방적인 용어였다.

여기서 잠시 히브리어 카할의 어원이 ‘외침’, 또는 ‘소리’를 의미하는 [코올]קוול¹⁰과 같다는 주장을 짚고 넘어 가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교회의 근원이 된 히브리어 낱말과 그리스어 낱말이 본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Bauer, Rost, Albright, Dahood, HALOT). 히브리어 카할에는 ‘불러 모았다’는 의미는 없다. 그저 ‘(모아진) 무리’를 뜻할 뿐이다.¹¹

2.2. 에다 - 시나고게 (합류) קהלה - συναγωγή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교회’의 뿌리가 된 구약성경의 낱말로써 주목받은 또 하나의 낱말은 [‘에다-]קהל였다. 역시 ‘모임’ 또는 ‘회합’ 등으로 옮긴다.¹²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에다는 더욱 넓은 의미의 ‘무리’를 뜻한다. 아래처럼 동물의 무리를 뜻하기도 한다.

얼마 뒤에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러 다시 그곳으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그 사자 시체에 **벌의 에다가**¹³ 모여 있는데
 꿀도 고여 있었다(판관 14,8).

물론 ‘사람의 무리’를 뜻하기도 한다.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할과 공통적이다.

이제 그분께서는 나를 탈진시키셨네.

— 당신께서는 **저의 온 에다를**¹⁴ 파멸시키셨습니다(욥기 16,7).

9. 실제로 이 낱말의 친족어들은 전부 ‘크게 외치다’는 뜻이다. ἐκ-κλάζω, ἐκ-κλείω, ἐκκληῖω, ἐκκλησιάζω.

10. 이 말의 고대 셈어 어원이 [카알]qāl이기에 이런 견해가 나왔을 것이다.

11. 참고로 카할에서 파생한 명사로 [코.헬렐]קהלל이 있다. 카할의 칼형(G형)의 능동 분사형에서 파생한 여성명사로서, ‘모이게 하는 자리/지위’의 뜻이다. 여기서도 역시 ‘불러 모았다’는 의미는 본래 없다.

12. קהל에서 언급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모두 149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83번이 민수기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 낱말 연구에서 민수기는 무척 중요한 책이다.

13. 『성경』: “벌 떼가” (בְּעֵדָתָּהּ בְּעֵדָתָּהּ)

14. 『성경』: “저의 온 집안을”(בְּכָל־עֵדָתִי)

그러므로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 곧 법적이고 전례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데 자주 쓰였다.

이스라엘의 온 에다에게¹⁵ 이렇게 일러라. (탈출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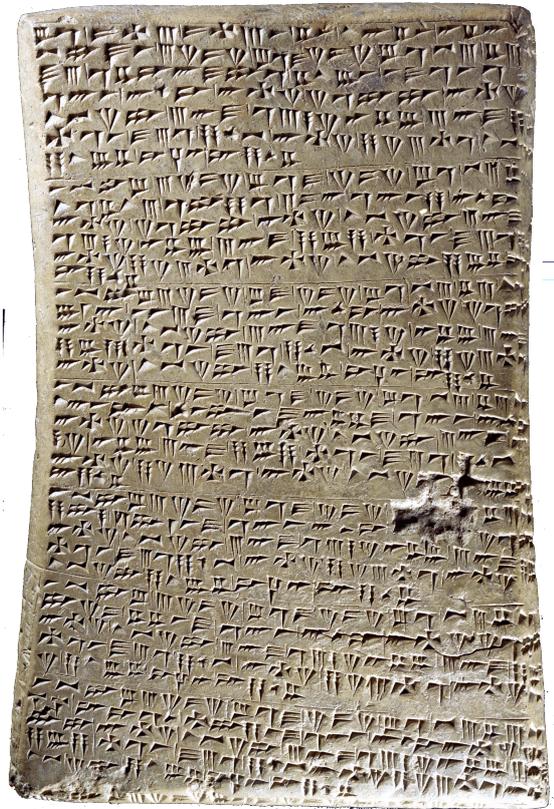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에다는¹⁶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 (탈출 16,1).

그리고 하느님의 천상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주로 시편에서 이런 용법이 두드러지는데, 고대 신화적 뉘앙스를 진하게 담고 있다.¹⁷

하느님께서 신들의 에다에서¹⁸ 일어서시어 그 신들 가운데에서 심판하신다(시편 82,1).

성서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말의 어근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형태론적으로 에다의 어근은 [아다-]קָדַם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낱말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근을 고대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그 친족어에서도 예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⁹

그런데 1961년 발견된 우가릿어 토판은(오른쪽) 이



-
- 15. 『성경』 :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אֵל-כָּל-עֵדַת יִשְׂרָאֵל)
 - 16. 『성경』 :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כָּל-עֵדַת בְּנֵי-יִשְׂרָאֵל)
 - 17.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 신화의 요소와 그 신학적 의미는 다음을 참고하라. 졸저, 『구약성경과 신들 - 고대 근동 신화와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 (한남성서연구소, 2012).
 - 18. 『성경』 : “신들의 모임에서”(בְּעֵדַת-אֱלֹ). 이런 표현은 우가릿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들의 모임’ (*dt ilm*)과 같은 것이다.
 - 19.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에 קָדַם는 동사로 쓰인 경우, 두 가지 뜻으로 나뉜다 하나는 ‘걷다’ (갈)와 ‘미루다’ (히필), 다른 하나는 ‘칭찬하다’, ‘우쭐하다’의 뜻이다. 두 가지 모두 ‘모임’이라는 뜻과는 멀다. 그래서 가설적으로 *קָדַם의 세번째 어근을 추론할 뿐이다. 이런 경우 히브리어 본문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가설적으로 추론한 어근이기에 *표를 붙인다.

말의 어근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²⁰ 이 토판의 세 번째 줄에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다(위 토판의 사진과 비교해 보라).²¹

KTU 1.100:3 켈기문자 원문

𐎗𐎎 . 𐎗𐎗𐎗𐎗𐎗𐎗 . 𐎗𐎗𐎗𐎗 . 𐎗𐎗𐎗𐎗

이를 라틴 문자로 옮겨쓰고(A) 언어학적으로 분해하여(B) 해석을 제시하면(C) 다음과 같다.

A: *il . mbk nhrm . b dt . thmtm*

B: *ʿili . mabbaki naharima . bi dti . tahāmatēma*

C: 강물의 원천의 신에게, 두 지하수가 합류하는 곳에서

밑줄 부분은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b=𐎗*) 다음에 에다의 사격 연계형이 나오는데, 두 지하수가 흐르다가 합류하는(*zusammenfließen*) 지점을 의미한다. 곧, 에다의 본래 의미는 '합류하다'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세계 유수의 히브리어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가설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게 되어 기쁘고도 조심스럽다.

필자의 이런 추론을 지지하는 것은 칠십인역이다. 칠십인역은 거의 모든 경우에 에다를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옮겼다. 이 말은 현대 유다교 회당을 뜻하는 '시나고게' *synagoge*의 어원이 되는 말로, 신약성경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그리스어 시나고게는 '함께(συν) 데리고/끌고 오다(άγω)'를 뜻하는 [쉬 아고-]συνάγω에서 유래했다. 이 말의 의미 중에는 '합류시키다'의 뜻이 있는데 우가릿어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²² 다시 말해 시나고게는 '함께 데리고 오' (*bringing together*) 또는 '하나됨' (*uniting*)의 뜻이고, 때로 그런 '장소' (*place*)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가릿어 문헌에 기반한 필자의 조심스런 추론에 기반하면 에다는

20. 기원전 1200년경 멸망한 도시국가 우가릿은 이스라엘과 멀지 않은 데다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와 가까워서 주목을 받았다. 우가릿어 문헌은 발견될 당시에는 발견 순서에 따라 앞에 RS(Ras Shamra)라는 약자 뒤에 숫자로 표기했다. 하지만 현재는 내용적으로 분류한 KTU(*Keilschrift-Texte von Ugarit*) 번호에 따라 인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문헌의 이름은 KTU 1.100으로서, 최고신 엘과 여신 이쉬타르를 불러서 뱀의 독을 치료하는 수술을 기록하고 있다.

21. 우가릿어 문헌의 문법과 사전은 다음을 보라. Tropper, J., *Kleines Wörterbuch des Ugaritischen* = 주원준 개역, 『우가릿어 사전』, (한남성서연구소, 2010); Tropper, J., *Ugaritisch: Kurzgefasste Grammatik mit Übungstexten und Glossar* = 주원준 개역, 『우가릿어 문법』, (한남성서연구소, 2010).

22. 흥미롭게도 이 말은 '사이좋게 함께 오다'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맞붙다', 곧 전쟁을 치르다는 뜻도 있다(Liddle&Scott).

‘합류’의 뜻으로 이미 고대 문헌에서 ‘합류하는 장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옮긴 고대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고대 문헌의 용법에도 무척 해박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³

3. 새로운 낱말: 백성 אֱמוּנָה

이제 위 두 낱말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참신하게 제시된 ‘하느님의 백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약성경에서 ‘백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²⁴ 이 낱말은 본디 ‘혈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אַמּ] אֱמוּנָה은 본디 강한 혈족을 전제하는 개념이었다. 히브리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고대 근동에서 적어도 2천년 이상 사용된 고대 셈어에서 암에 해당하는 어근 *m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부계의) 삼촌’(patruus)이었다. 이 뜻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부계의) 친척, 친족’(clan, kin)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훗날 더욱 확장된 의미로 ‘부족, 백성’을 의미했다.

3.1. 친삼촌

고대 셈어에는 친삼촌과 외삼촌을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었다. 부계의 삼촌은 암이었고, 모계의 삼촌은 [할] ḥāl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암은 부계적 의미의 단어이고, 여성을 배제한 의미를 지녔다. 후대에 ‘백성’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여성을 포함하는 ‘백성 전체’의 의미로 변한 것이다(HALOT).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셨다. 그래서 죽은 조상을 지칭하는 낱말이 신으로 섬겨지기도 했다.²⁵ 암도 마찬가지여서, 일부 비이스라엘인의 이름에서 죽은 삼촌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심을 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래의 그수르 임금의 이름 [‘암미-후-드] אֲמִי-חֻדְּ를 들 수 있다. 이 이름은 ‘나의 암은 존엄하시다’는 의미인데(Noth, HALOT), 임금의 이름에 암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수르에 조상신, 특히 삼촌신을 섬기는 종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²⁶

23. 최근 구약학계의 칠십인역 연구결과 덕분에,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한 ‘칠십인역 번역집단’이 헬레니즘 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헌에도 정통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연구는 ‘칠십인역 번역집단’의 학문적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24. 이 발표문에서 다루는 세 낱말, 곧 카할, 에다, 암(백성)이 ‘교회’라는 의미와 연관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계약’(בְּרִית)과 연관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면과 발표 시간의 제약은 고려하고, 이 발표문의 논지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생략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Lohfink/Zenger, *ibid.*

25. 대표적으로 죽은 조상을 뜻하는 [르파’임-] אֲמִיָּה와 [’아브] אָב 등이 이렇게 쓰였다.

26. 이밖에도 암을 사용한 신적 인명(theophoric personal name)은 אֱמוּנָה, אֱמוּנָה, אֱמוּנָה, אֱמוּנָה,

압살롬은 달아나 그수르 임금 **암미훗**(אֲמִיחַט)의 아들 탈마이에게 가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하였다(2사무 13,37).

3.2. 친족, 겨레

암은 ‘친삼촌’이라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점차 부계의 혈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도 이미 이런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우리말로 ‘겨레’, ‘친족’ 등으로 옮긴다. 이런 용법은 모두 ‘피붙이’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그에게는 **그의 암 가운데**²⁷ 자손도 후손도 없고
그의 겨레에는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네(욥기 18,19).

예레미야는 **그 암 가운데에서**²⁸ 상속 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에서 벤야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예레 37,12).

3.3. 백성

암은 구약성경에서 ‘백성’이라는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된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 다양한 결합형들을 생산한다. 이런 표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곧 ‘하느님의 백성’의 의미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 낱말들 하나 하나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그 특질에 대한 성서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런 기초적 연구가 외면받는 실정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안타까운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עַם יְהוּדָה	유다 백성
עַם בְּנֵי יִשְׂרָאֵ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 ≈ הָעָם יִשְׂרָאֵל
עַם אֶחָד	하나인 백성
עַם קָרוֹב	거룩한 백성 ≈ עַם קְרוֹבִים
עַם נִקְלָה	(주님) 소유의 백성
עַם יְהוָה	주님(=야훼)의 백성

עַמֵּינֹכַח, עַמֵּי־שָׂרִי 등이 있다.

27. 『성경』: “제 겨레”(בְּעַמּוֹ)

28. 『성경』: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בְּתוֹךְ הָעָם)

עַם אֱלֹהִים 하느님의 백성

참고로 암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עַם יְרוּשָׁלַיִם 예루살렘의 백성
 עַם רַב 많은 백성
 עַם הָאָרֶץ 나라 백성(땅의 백성)

또한 앞에서 본 카할과 에다와는 달리, 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데 배타적으로 사용된 말이었다. 아주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는 암을, 비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는 [고-이]יְגוֹי를 사용했다. 고이는 비이스라엘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가 많기 때문에 [고-임-]יְגוֹיִם이라는 복수형으로 자주 사용된다. 곧, 수가 적은 하느님 백성 암과 세상의 모든 민족인 고임 사이의 긴장이 구약성경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을 달리 부르는 경향은 후대로 갈 수록 더욱 강해진다(HALOT). 칠십인역은 이런 용법에 충실하여, 히브리어 암을 [라오스]λαός로, 고이를 [에트노스]ἔθνος로 옮겼다. 이렇게 주의깊게 다른 번역어를 취함으로써,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신학적·언어적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는데 성공한 듯 하다. 이 번역정신을 살려 우리말로 암을 ‘백성’으로, 고이를 ‘민족’으로 옮긴다.

지금까지 카할과 에다와 암의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용법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하느님의 백성’이 지닌 신학적 의미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4. 하느님 백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전세계 구약학계를 이끈 학자 가운데 하나인 로핑크는 공의회 이후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주목할만한 연구에서²⁹ 구약성경의 하느님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9. 노르베르트 로핑크(Norbert Lohfink)는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독일 예수회원으로 저명한 구약학자이다. 그의 동생 게르하르트 로핑크(Gerhard Lohfink) 또한 저명한 신약학자로서, 국내에도 소개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 그리스도 신앙의 사회적 차원』(정한교 옮김, 분도, 1985)에서 교회를 ‘대조사회’(Kontrastgesellschaft) 또는 ‘대척사회’(Gegengesellschaft)의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N. 로핑크의 하느님 백성에 대한 연구로서 자주 인용되는 것은 다음이다. 이 발표문도 다음에 상당히 의존했다. N. Lohfink sj, “Beobachtung des zur Geschichte des Ausdrucks עַם אֱלֹהִים”, *Studien zur Biblischen Theologie, SBAB* 16 (Stuttgart 1993) 99-132. 이 논문이 최초로 제시된 해는 1971년이다.

히브리어 표현에 대한 연구가 기초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의 두 개는 '하느님의 백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 아래 세 개는 문맥에 따라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이다.³⁰

עַם יְהוָה	주님(=야훼)의 백성
עַם (ה)אֱלֹהִים	하느님의 백성
עַמִּי	나의 백성
עַמְךָ	너의 백성 = 당신의 백성
עַמּוֹ	그의 백성 = 그분의 백성

이 가운데 로핑크는 공의회회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암 '아도나이] **עַם יְהוָה**, 곧 '주님(=야훼)의 백성'이란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4.1. 주님의 백성

암 아도나이, 곧 '주님(=야훼)의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개념이다.³²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무척 자주 나오고, 다음과 같은 표현과 비교할 수 있다.³³

עַם קָדָשׁ לַיהוָה אֱלֹהֶיךָ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
עַם הַקָּדָשׁ גְּאוּלֵי יְהוָה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

30. 그는 소유격을 의미하는 독립대명사 접미가 붙은 아래 세 개의 표현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에서 '계약'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한다. Lohfink, *ibid.*, 100.

31. 그가 소유격을 의미하는 대명사 접미가 붙은 세가지 표현을 제외한 것은 연구의 편의상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30쪽 남짓의 작은 논문에 그 많은 표현을 관찰하고 정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עַם (ה)אֱלֹהִים**, 곧 '하느님의 백성'을 연구에서 제외할 것은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 단 두 번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힌다(판관 20,2; 2사무 14,13). Lohfink, *ibid.*, p.100 n3. 물론 위 다섯개의 표현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모두 망라하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지 몰라도 그런 만족스러운 연구를 들어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현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공부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안타까운 점이다.

32. Lohfink, *ibid.*, p.101.

33. Lohfink, *ibid.*, p.100. 위에서 인용한 네가지 표현 가운데 몇몇은 두 번 이상 나온다. 구약성경에서 이 네 가지 표현은 모두 7번 쓰였다. 한편 **עַם יְהוָה**는 오경에 52번, 시편에 52번, 역사서에 56번, 예언서에 152번, 역대기와 에즈라와 느헤미야에 47번, 총 359번 나온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흥미롭게도 지혜문학적 본문과 제관계(P) 본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Lohfink, *ibid.*, p.103-4.

הגוי יהוה אלהיו
העם שיהוה אלהיו

주님이신 그의 하느님의 민족
주님이신 그의 하느님의 백성

로핑크는 우선 이 암 아도나이란 표현이 본디 여성과 아이를 배제한 채, 법적·군사적·제의적으로 합당한 성인 남성들의 무리를 의미한 것이며, 원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관찰했다. 그는 사무엘 시대 이전에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판관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뿐이었다는 스멘트(R. Smend junior)의 연구도 인용했다.³⁴ 다시 말해, 본디 매우 드문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이 표현이 쓰인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 표현을 세밀하게 검토한 그의 연구를,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약하자면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우선 가장 고대적 표현, 곧 다윗 임금 시대를 하한선으로 하는 시대에 이 표현은 두가지 의미가 섞여 쓰였다. 첫째는 ‘주님(=야훼)의 군대/무리’ (**Heer Jahwes**)라는 뜻이고, 둘째는 ‘주님(=야훼)의 부족’ (**Sippe Jahwes**)이라는 의미다.³⁵ 그는 이 두가지 의미가 공존(Koexistenz)한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 둘은 언어적인 의미의 장이 다를 뿐, 실제로 동의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당시 작은 부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이 증언하듯 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살았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흔했던 일종의 ‘전쟁 부족’ (**Kriegsvolk**)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주님의 군대/무리’라는 의미가 더 고대적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후대에 발전된 개념이 나왔다. 곧,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이 발전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구원사업의 근거로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미 이집트 탈출에 관한 다양한 언급에서 이 표현을 관찰한 그는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다’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했다.³⁶ 로핑크는 이런 전환된 표현은 야훼스트(J)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후대의 문헌에서 훨씬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필자는 암 아도나이가 본디 전쟁을 자주 치르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님의 군대/무리’를 지칭하였던 말이라는 관찰에 주목한다. 이런 관찰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작고 약한 공동체가 적대적 환경 속에서 믿음과 자기 신원을 보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공의회가 천명한 “세상의 빛으로서 땅의 소금으로서 온 세상에 파견”되어 “시련과 고난을 거쳐 나아가는 교회”³⁷의 모습을 원초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34. Lohfink, *ibid.*, p.102.

35. Lohfink, *ibid.*, p.120.

36. Lohfink, *ibid.*, p.127.

37. 『교회 현장』 9항.

4.2. 크모스의 백성 - 참고사항

암 아도나이, 곧 '주님(=야훼)의 백성'에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크모스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모압인들은 [크모-쉬] שִׁמְוֹנִים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두 번에 걸쳐 모압을 '크모스의 백성'이라 표현한다. 두 번 모두 모압에 대한 저주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이(שִׁמְוֹנִים),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훈에게 제 아들들이 쫓겨 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민수 21,29).

불행하여라, 너 모압아! 크모스 신을 섬기는 백성이(שִׁמְוֹנִים) 멸망하리라. 네 아들들도 잡혀 유배되고 네 딸들도 잡혀 유배되리라(예레 48,46).

여기서 필자가 눈여겨 본 것은, '크모스의 백성'으로서 모압인이 운명공동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하나의 부족이나 도시가 머리로 섬기던 주신主神이 있었다. 부족은 대개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으로 정체성이 정해지고, 주신과 부족이나 도시는 운명을 함께 했다.

공의회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³⁸고 선포하고 하느님 백성이 직분과 권한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임을 밝힌다. 부족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국가의 이런 개념은 현대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내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전제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하나의 백성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 백성이 머리로 모시는 신께 귀의하는 것이다. 아래 룻기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립니다.

당신의 암이 저의 암이요³⁹

당신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룻기 1,16).

38. 『교회헌장』, 9항.

39. 『성경』: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עַמִּי עַמִּי).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וַאֲלֹהֵי אִמִּי אֱלֹהֵי)

4.3. 열린 하느님의 백성

공의회가 천명한 '하느님의 백성'은 가톨릭 교회 뿐 아니라 개신교 신학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어권에서 명성이 높은 신학사전 TRE(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편찬한 것으로, 1977년부터 2004년까지 26년에 걸쳐 2천 항목과 36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 신학사전은 공의회 이후 교회일치적 차원에서 충실히 서술되어 현재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지만, 본디 기본으로 삼은 것은 1896년에서 1913년까지 17년간 간행된 『개신교 신학과 교회를 위한 백과사전』(Realenzyklopädie für protestantische Theologie und Kirche)으로서, 아직도 몇몇 항목은 개신교적 색채가 남아 있다.

그런데 TRE의 교회론 항목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베르거(K. Berger)가 서술한 '교회 I'(Kirche I) 항목은 교회의 성경적 기원을 다루는 부분, 곧 구약성경의 서술 부분에서 '하느님의 백성'(Volk Gottes)를 맨 처음에 다루고 그 다음 주님의 '선택'(= 선민)을 서술한다. 그 다음에야 히브리어 카할과 에다를 다루고, 이들의 그리스어 번역어인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개를 서술한다.⁴⁰ 이런 서술 순서 자체는 현대 가톨릭 교회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교과 신학에서 교회론이 지닌 무게감과 예민함을 고려해 볼 때, '하느님의 백성'을 교회론 서술의 맨 처음 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히 의미있어 보인다.⁴¹

베르거는 '하느님의 백성'을 고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개념(Selbstbezeichnung)으로 제시한다. 이 개념은 '하느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표시이다. 곧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달리, 오직 이스라엘만 하느님을 모신 민족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느님 백성'과 함께 '하느님의 만아들'(탈출 4,22; 호세 2,1; 11,1)이란 표현이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이 두 표현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정식(Bundesformel)과 이집트 탈출 정식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는 “'하느님의 백성'이 정체된 낡은 개념이 아님”(kein statisch gebrauchter Begriff)⁴²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그는 아래의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곧, 하느님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비이스라엘인에게도 가르침을 베푸시며(이사 1,10), 이스라엘도 한낱 고이로 남을 수 있고(예레 31,36), 다른 민족이 암 아도나이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즈카 2,15). 종말론의 맥락에서 '하느님의

40. K. Berger, "Kirche I", TRE 18, 198-201. TRE 18권은 1989년에 간행되었다.

41. 물론 '하느님의 백성'을 학문적으로 최초로 제시한 곳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아니다. 이미 1930년대의 선진적 구약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주창했다. 로핑크는 이 개념이 폰 라트(von Rad)의 신명기 연구서에서 제시되었다고 했다. Lohfink, *ibid.*, p.99. 한편 Wiedenhofer는 M.D. Koster와 Y. Congar가 이 개념 형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Wiedenhofer, "Volk Gottes", *LThK* 2, p.848.

42. K. Berger, *ibid.*, p.199.

백성'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곧 활짝 열린 '하느님의 백성' 개념도 분명 주의깊게 관찰하고 성찰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이사 1,10).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 주님의 말씀이다. —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고이로⁴³ 남아 있으리라(예레 31,36).

그날에 많은 고이들이⁴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게 암이 되고⁴⁵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 (즈카 2,15).

4.4. 신명기

공의회가 제시한 '하느님의 백성' 개념은 가톨릭 구약신학의 영역에서 주로 신명기 연구와 더욱 깊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가톨릭 성서학계의 대가이자 얼마전 타계한 에리히 첵어(Eirch Zenger) 신부님이 책임편집을 맡은 다음의 책은 독일 가톨릭 신학계에서는 구약성경학의 교과서처럼 쓰인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넘어서 실로 널리 사용되고 풍부하게 인용되는 책인데, 올해 5월에 분도출판사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소개드린다. 한국 구약학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Zenger, E. (Hg.), *Einleitung in das Alten Testament* (Stuttgart 2004⁵)

= 이종한 옮김, 『구약성경 개론』 (분도 2012)

43. 『성경』 : “한 민족으로”(יְהוּדִים)

44. 『성경』 : “많은 민족이”(עַמֵּי רַבִּים)

45. 『성경』 : “내 백성이 되고”(וְהָיִיתִי לְעַמִּי)

이 책은 훌륭한 개론서로서 최신의 연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다. 독일 학풍 특유의 성실함으로, 판을 거듭할 수록 삭제와 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 책의 편집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구약학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다. 현대 최신판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오직 브라울릭(G. Braulik ofm)이 서술한 「신명기」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브라울릭은 “신명기는 구약성경의 바로 그 ‘하느님 백성의 신학’을 ... 정립·교육한다”⁴⁶ 서술한다. 곧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의 백성’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신명기는 ‘하느님의 백성’의 삶이 구현되는 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 첫째, 공동체 신앙 학습에서 (교육),
- 둘째, ‘야훼 앞에서’ 벌리는 축제의 기쁨에서 (전례),
- 셋째, 형제자매애의 윤리를 통해서 (사회적 실천).⁴⁷

또한 “사도행전 2-5장에서 예루살렘 원공동체는 특히 신명기의 하느님 백성 모델에 의해 특징지어진다.”⁴⁸고 서술함으로써 신명기에서 제시한 하느님의 백성 모델이 사도행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하느님의 백성’ 신학이 주로 신명기와 긴밀하게 연구되는 이런 흐름은, 신명기에 예언자들의 ‘하느님 백성’ 연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아직도 현재 진행중인 이런 연구가 과연 구약신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무척 흥미진진하다.

4.5. 친밀함과 윤리성

끝으로 로핑크가 최근 설명한 ‘하느님 백성’에 대한 흥미로운 서술을 인용하겠다. 아래에서 인용한 NBL(Neues Bibellexikon)은 독일어권 가톨릭 계열의 성서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3권 분량으로 새롭게 편찬한 성서신학 사전으로서, 신약학과 구약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로핑크가 가톨릭계 신학사전에서 ‘하느님의 백성’ 항목을 직접 작성했다는 점도

46. Braulik, G., 「신명기」, in: Zenger, 이종한 옮김, 『구약성경 개론』 (분도 2012), 256. Braulik은 N. Lohfink의 애제자로서 이 둘은 신명기 연구의 세계적 대가들이기도 한다. 현재 이 두 학자가 공동으로 저술하는 신명기 주석서를 전세계 학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Braulik 신부님에게 집필 현황을 질문한 적이 있다. 현재 한 쪽 한 쪽 서술하는 즉시 영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독일어본과 영어본이 거의 같이 출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기억난다.

47. Braullik, *ibid.*, 256-259.

48. Braullik, *ibid.*, 263.

눈길을 끌지만, 그의 서술이 변화한 지점도 관찰할 수 있어 자료로 삼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⁴⁹ 그는 하느님 백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⁵⁰

만일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면 또는 이스라엘에서 억압받는 사람이 있으면, 야훼는 바로 이 사람을 당신의 '친족'이요 당신의 '백성'으로 지칭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에 맞서 억압받는 이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게서 억압받을 때 스스로를 기꺼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지칭한다. 이 점은 이집트 탈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그분은 '하느님의 백성'을 이집트, 곧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해방하신 것이다.

...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야훼께 호소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 분의 '친족'이었기에 당연하게 보인다. 이미 야훼스트에 따르면 야훼는 이스라엘이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해방하셨다. (기원전 8세기의)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친족'(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지만(호세 1,9) 곧이어 하느님께서 미래에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친족'(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선포한다(호세 2,3,25).

이런 설명은 '하느님의 백성'이 친족 개념이라는 성서언어학적 설명에 충실하다. 또한 '하느님의 백성' 내부에 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친밀한 내적 관계를 강조하고, 종말론적 희망도 전한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백성이나 부족 내부에는 강한 윤리적 원칙이 작동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부족 내부에는 '구원자', 곧 [고->엘] ^{לוי} ^{לווי}이 있어 곤란한 처지에 빠진 가까운 친적을 돕는 법이 존재했다(레위 25,25; 룻기 3,9; 예레 32,7 등). 곧, 혈족에 기반한 개념인 '하느님의 백성'은, 백성 내부에 강한 연대감과 더욱 높은 수준의 정의 실현을 요구받는다. 또한 그런 결속력에 기반하여 하느님께 내적 친밀함을 지닐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런 성찰에 따르면, 개인적·사회적·역사적 정의 실현과 하느님과의 내적 친밀함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성찰이야말로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신앙의 해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49. N. Lohfink, "Gottesvolk", *NBL I*, 940-942.

50. 이 인용문은 필자가 독일어에서 직접 인용했다. 독일어 원문에 사용된 '야훼'도 그대로 옮겼다. Lohfink, *ibid.*, 941.

5. 나가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참신하게 제시한 '하느님의 백성'은 분명 구약성경에서 비롯한 개념이다. 우리는 지금도 공의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실천하는 시대에 산다.

이 개념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영향을 끼쳤다. 때로는 가톨릭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때로는 구약신학의 차원에서, 때로는 교회론 등 기타 신학의 차원에서, 때로는 교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수많은 영향(Wirkung)과 수용(Rezeption)을 낳았다. 그리고 그 영향과 수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공의회 이전에는 구약성경에서 '모임', 또는 '회중'이란 말이 주목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개념들은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알려준다. 그런데 공의회가 참신하게 제시한 '백성'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본디 혈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곧 '피붙이' 사이의 단단한 결속력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큰 민족들 사이에서 독특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작은 백성 이스라엘의 구성원은, 백성의 머리인 하느님으로 스스로를 일컬었다. '하느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요, 하느님의 소유인 백성이기에, 하느님과 떨어질 수 없는 운명공동체 같은 관계였다.

그러므로 암 아도나이, 곧 '하느님의 백성'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그 내부에서 서로간에 훨씬 친밀하고 훨씬 강한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백성은 이런 강한 친밀감으로 인해 하느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고, 백성의 머리인 하느님은 특히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 이집트 탈출 사건은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실질적으로 잘 보여준다. 또한 구약성경은 '하느님의 백성'이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말론적 전망에서 활짝 열려 있음도 증언한다.

끝으로 '하느님 백성'의 신학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신명기 신학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이 글을 맺으려 한다. 그 핵심은 첫째, 토라, 곧 주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공동체, 둘째, 주님의 전례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공동체, 그리고 셋째, 형제애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신명기가 제시하는 '하느님 백성'의 신학은 '신앙의 해'를 맞이하는 오늘날의 다양한 신앙인 공동체에 일종의 '구약신학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제1주제 토론문>

“신앙의 해’를 맞는 ‘하느님의 백성’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성서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전봉순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하느님 백성’은 성서의 개념이지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된 교회의 자기 이해개념입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인간의 개별 구원보다는 백성 전체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곧,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지만(사도 10,35),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 9항).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위격의 비밀을 알려준 장소와 무대는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신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제자의 ‘하느님 백성’에 대한 성서적 의미를 고찰한 것은 신앙의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는 ‘신앙의 해’를 맞아 공의회(1962-1965)의 열쇠 말 가운데 하나인 ‘하느님의 백성’(People of God)을 어원학적 기초에서부터 그 연관된 낱말과 함께 재검토함으로써 우리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되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하느님의 백성’이 원래 제시되었던 구약성경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몇몇 용어들을 고찰함으로써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은 ‘하느님 백성’이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말론적 전망에서 활짝 열려있음을 증언한다는 점을 밝혀냅니다.

발제자의 글을 통해 필자는 구약성경의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의미를 재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더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발제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구약성경에서 ‘교회’에 대응하는 것으로 연 구되었던 낱말로써 ‘카할 - 엑클레시아’(קהל - ἐκκλησία)를 고찰합니다. 카할은 ‘모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회중,’ ‘무리’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발제자는 주로 종교적으로 사용되었던 ‘카할’이 본디 종교적인 회중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낱말이 비이스라엘 민족의 ‘무리’(창세 28,3)나 군사적인 ‘집단’(에제 38,15)에도 사용되었

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이 낱말은 유배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제의 공동체를 가리키게 되었고 지금의 ‘교회’와 근접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낱말이 주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의 의미로 쓰이지만 ‘사람들의 무리’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낱말은 구약성경에서 교회만을 배타적으로 가리키지 않았다는 것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칠십인역 성경은 ‘카할’을 ‘엑클레시아’로 옮겼는데 이 낱말도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하여 ‘모임,’ ‘회중’의 뜻이 되었다는 점에서 ‘카할’의 의미와 잘 일치하며 개방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고찰합니다.

2. ‘카할’과 유사한 의미로 ‘에다 - 시나고게’(ἑδᾶ - συναγωγή)를 살펴봅니다. 이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교회의 뿌리로서 주목받던 용어입니다. ‘에다’는 ‘모임,’ ‘회합’ 등으로 옮겨지는데 보다 폭넓은 의미의 ‘무리’를 뜻합니다. 심지어 동물의 무리(판관 14,8)와 사람의 무리를 모두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속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 이 낱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데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합니다. 또한 이 낱말은 하느님의 천상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시편 82,1). 발제자는 우가릿어와의 관련 연구에서 ‘에다’의 본래 의미가 ‘합류하다’일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또한 그리스어 ‘시나고게’의 의미 중에서도 ‘합류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시나고게’는 ‘함께 데리고 옴,’ ‘하나됨’의 뜻 외에도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발제자는 우가릿어와의 관련 연구에서 ‘에다’가 ‘합류’의 뜻으로 이미 고대 문헌에서 ‘합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합니다.

3.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또다른 용어인 ‘암’(אַם)을 살펴봅니다. 칠십인역 성경은 이 히브리 말을 ‘라오스’(λαός)로 옮깁니다. 이 낱말은 혈통.언어.풍습.법률.공통의 역사.연대성에 의해 내적으로 더욱 결합되어 있는 인간들의 단위를 뜻합니다(한국가톨릭대사전). 발제자는, 고대 셈어에서 ‘암’에 해당하는 어근(m)의 원초적인 의미는 ‘(부계)의 삼촌’이었고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부계)의 친척.친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훗날 ‘부족.백성’을 의미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이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버지쪽 남자들의 혈연 관계를 가리키는 친족.혈족.씨족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본디 여성의 의미가 배제되었고 후대에 ‘백성’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여성을 포함하는 ‘백성 전체’의 의미로 변하게 되었음을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암’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특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발제자는 ‘카할’과 ‘에다’와는 달리 ‘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데 배타적으로 사용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도 예를 들었듯이 ‘암’이 이스라엘이 아닌 백성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고(13쪽 참조),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도 ‘고이’가 사용되었음을 볼 때(12쪽

참조) 이 주장은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발제자는 ‘암’과 비교되는 말로 ‘고이’(גוי)를 소개합니다. ‘고이’는 주로 비이스라엘 민족, 곧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칠십인역 성경은 ‘고이’를 ‘에트노스’(ἔθνος)로 옮깁니다. 그렇지만 번역자가 ‘고이’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이해했을 때는 ‘라오스’(λαός)로 번역했다(여호 3,17; 이사 9,2; 예레 9,8)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암’으로 일컬어지고 다른 민족들은 ‘고이’의 복수인 ‘고임’(גוים)으로 일컬어진다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이’가 다른 민족이 아닌 아브라함의 큰 후손(큰 민족)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창세 12,2; 17,20; 21,18).

4. 발제자는 이상의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느님 백성의 신학적 의미를 알아봅니다. 특히 ‘암 아도나이,’ 곧 ‘주님(=야훼)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본디 전쟁을 자주 치르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님의 군대/무리’를 지칭하였던 말이라는 로핑크의 관찰에 주목합니다. 이런 관찰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작고 약한 공동체가 적대적 환경 속에서 믿음과 자기 신원을 보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공의회가 천명한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으로서 온 세상에 파견”되어 “시련과 고난을 거쳐 나아가는 교회”(「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 9항)의 모습을 원초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고 한 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는 ‘크모스의 백성’으로서 모압인이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주목하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의 부족이나 도시가 머리로 섬기던 주신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공의회가 ‘메시아 백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고 선포하고 하느님 백성이 직분과 권한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임을 밝히고 있는 점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백성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 백성이 모시는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베르거(K. Berger)는 ‘하느님 백성’을 고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이 개념은 하느님의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표시입니다. 곧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느님을 모신 민족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발제자는 열린 하느님의 백성을 말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이 정체된 낡은 개념”이 아님을 강조하는 베르거의 말을 인용합니다. “곧 하느님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비이스라엘인에게도 가르침을 베푸시며(이사 1,10), 이스라엘도 한낱 ‘고이’로 남을 수 있고(예레 31,36), 다른 민족이 ‘암 아도나이’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즈카 2,15).” 발제자는 베르거가 종말론의 맥락에서 ‘하느님의 백성’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곧 활짝 열린 ‘하느님의 백성’ 개념도 주의 깊게 관찰하였음을 언급합니다.

발제자는 하느님 백성의 친밀함과 윤리성을 언급하면서 로핑크(N. Lohfink)의 ‘하느

님 백성'에 대한 글을 인용합니다. “야훼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당신의 ‘친족’이요 당신의 ‘백성’으로 지칭하시고 그들을 억압자와 착취자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게서 억압받을 때 스스로를 기꺼이 ‘하느님 백성’으로 지칭합니다. 이 점은 이집트 탈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백성’을 이집트, 곧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느님 백성’의 친족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백성이나 부족 내부의 윤리성이나 연대감을 드높이고 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구원자, 곧 ‘고엘’(גּוֹאֵל, 레위 25,25; 룻기 3,9; 예레 32,7)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제시는 발제자가 열린 하느님의 백성(14-15쪽)을 말하는 것과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1코린 11,25) 유다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르신 백성을 혈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제9항)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은 구약성경의 ‘하느님의 백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발제자는 공의회의 하느님의 백성 개념이 곧바로 구약성경의 하느님의 백성 개념에서 나왔다고 단정 짓지만, 공의회가 언급한 하느님의 백성 개념과 과연 구약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백성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발제자는 이에 대한 성찰도 없이 용어들을 중심으로 구약성경의 하느님의 백성의 의미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의회의 하느님의 백성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혹은 공의회의 개념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2주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사도직

발제: 조광 교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정토론: 정연정 신부(절두산 순교성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조광(연세대학교 석좌교수)

1. 들어가는 말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으로는 첫째로 자발적 교회창설(1784)과 순교를 통한 신앙의 증거를 먼저 들 수 있다. 이에 이어서 1882에서 1895년 사이에 축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신앙 자유의 목인과 공인이라는 사건이다. 세 번째의 사건으로는 민족해방과 남북교회의 분단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사건은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한국사에서 현대사라 할 때에는 1945년의 민족해방이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한국교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현대라고 한다면 1962년에 개최되기 시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획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공의회를 시대구분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한국교회는 공의회 이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계교회에서 점하게 된 위치가 종전과는 다른 측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만큼 공의회는 한국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하 공의회로 약칭함)는 이와 같이 한국현대교회사 50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파악할 수 있다. 공의회 이후 한국천주교회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질적인 측면으로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문화적 능력의 수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안에서의 객관적 기여도나 한국사회의 교회에 대한 평가도 전에 없이 높아져 갔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 50년 동안 전체 신도의 숫자에 있어서도 10배 가까이 성장되어 갔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되어 갔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외 천주교 기관들로부터 선교사의 파견을 받던 교회에서 이제는 프랑스 등 제1세계 지역 뿐 아니라 제3세계 지역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교회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제3세계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교황청의 재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선교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선교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해외 선교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공의회 이후 한국사회와 문화부분에 있어서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나마,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자국내의 종교계에서도 가장 긍정적 평가

를 받는 집단이 되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 교회들도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목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거의 ‘환상적인’ 평가와 기대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난 50년 동안의 ‘중단 없는 전진’에 따른 자기만족과 매너리즘(mannerism)에 젖어들어 있는 측면도 있으며, 교회의 구성원들도 자신에 대한 자기만족적 과대평가나 매너리스트로 머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하여 현대 한국교회의 장점 내지는 긍정적 특성으로 빛을 발한다고 생각되는 부분 마다, 그에 비례하여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의회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사도직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시의적절한 일로 파악된다.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주관하는 공의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고,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언론계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그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과성과를 존중하면서 한국현대교회가 가져야 할 반성적 요소들을 조금더 직접적으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반성적 접근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요청되는 작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반성의 시각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시각이 요청된다. 그렇다면 특히 공의회의 가르침을 반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인 ‘Christi fideles Laici(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언급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여기에서 평신도의 신원’을 말하며, “교회는 포도나무이며, 평신도는 포도원의 일꾼(마태 20,6-7)일 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주요한 일부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평신도가 현대 세계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신해야 하는 존재이며, 이 평신도가 꼭 해야 할 일은 “종교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욕구, 인간의 존엄성 등의 분야에 투신함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신도는 여기에서 본질적이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규정했다.

즉, 평신도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하나로서 구세주 예수와 같은 사명인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봉사하는 존재이다...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의 사명에 대한 책임에 동참하는 존재이다...평신도들은 세례에 의한 신분과 자신의 고유한 소명에 따라 자신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적, 예언자적, 왕적 사명에 참여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렇다면, 공의회 이후 한국교회의 전개과정에서 작용한 평신도의 역할을 평가하는 데에 이 글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현대교회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과문의 소치로 필자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만을 제시하여 보겠으며, 그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2. 한국현대교회와 국외내 선교의 진전

공의회 이후 한국교회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로는 신자수의 증가 내지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교회의 성장은 우선 교회자체내의 변화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여건의 출현과 일반 사회에서 가지게 된 교회에 대한 변모된 인식의 결과로 가능한 일이었다. 이 시기 현대 한국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방당시의 상황에 대한 확인과, 이 양자 간의 상호 비교작업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방 직전인 1944년 당시 남북한과 연길교구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교회의 신자는 179,114명(전체 인구의 0.71%)으로 집계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대략 1/3정도의 신자가 38도선 이북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정에서 남북한의 분단을 겪게 되었고, 중국에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외적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과 연길교구에 소속되었던 신자들은 대부분 남한 교회와의 연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남북분단을 고착화시켰고, 북한 신도들을 남한교회와 분리시켰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남한의 경우만을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만의 경우에도 1953년 휴전 직후에 신자수가 다시 17만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휴전이후 국내 선교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성취된 한국교회의 발전은 매우 괄목할 만했다. 1950년대 한국교회는 평균 16.5%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드러내 주었다. 특히 1957년도의 17.59%, 1958년도의 24.18%라는 높은 증가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신도 증가율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 전단계에 비하여 감소되어 나가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공의회를 경험하게 되었고, 공의회의 가르침에 자극받아 자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공의회 이후 한국교회의 교세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현대 한국교회의 교세(1962-2010)

연도	신도수	증가율 %	본당수	성직자		수사		수녀		신학생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대	소
1962	530,227	7.67	275	298	251	55	43	1,099	135	314	360
1965	669,348	6.49	313	353	283	74	34	1,875	183	465	356
1970	788,082	1.17	415	530	369	84	28	1,958	192	609	356
1975	1,052,691	4.00	480	709	294	157	37	2,531	192	791	295
1980	1,321,293	6.02	589	916	250	159	39	3,011	158	528	/
1984	1,848,476	8.01	673	1,094	221	210	36	3,705	226	925	/
1985	1,995,905	7.97	692	1,130	234	242	31	3,757	170	1,015	/
1990	2,750,607	5.25	855	1,504	201	326	21	5,215	184	1,528	/
1995	3,451,266	3.36	1,017	2,028	203	930		7,209		1,558	/
2000	4,071,560	3.2	1,288	3,116		1,249		8,752		1,595	/
2005	4,667,283	2.9	1,447	3,867		1,407		9,676		1,387	/
2010	5,205,589	10.1	1,609	4,522		1,558		9,838		1,674	/

자료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천주교 교세통계』의 재구성.

* 성직자는 대주교, 주교, 신부를 모두 합산한 숫자이다.

공의회가 개최되던 1962년 당시 한국교회의 신자수는 53만 여명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75년에 이르러 10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고, 1986년에 200만 신자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0년에 와서는 5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가톨릭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체 인구에서 천주교 신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갔다. 또한 이 시기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일반적 동향과는 달리 성직자 대 신자의 비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고, 성직자의 연령도 정상적 연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 <표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2> 현대 한국교회의 신자 대비 비율

연도	신자/인구	신부1인당 신자수	수사1인당 신자수	수녀1인당 신자수	본당 당 신자수	신학생당 신자수
1996	7.8%	1,404	3,254	470	3,510	2,242
2000	8.8%	1,318	3,260	465	3,161	2,553
2005	9.5%	1,216	3,161	482	3,225	3,365
2010	10.1%	1,159	3,339	529	3,235	3,110

자료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천주교 교세통계』의 재구성.

그런데, 한국교회는 1960년대에 접어들어 신자수의 증가에 있어서 변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휴전 이후 1950년대에 성취했던 연평균 16.5%의 높은 증가율은 196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하락하여 연평균 6.2%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신도증가율이 더욱 둔화되어 5.2%로 떨어졌다. 1970년에는 신도 증가율이 1.17%에 지나지 않았고, 1971년에는 불과 0.29%를 기록했을 뿐이었다. 물론 이 숫자는 통계집계 방법의 변경과 관련된 기록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의 이와 같은 저조한 증가율은 1970년대 전국평균인구증가율 2.3%와 비교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신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입교한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층 지식인 출신이었다.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된 천주교의 정의구현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당시 교회의 일각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정의구현운동에 적극 동조하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제 비판적 성향을 가진 일단의 타교파 청년들이 천주교로 집단 개종하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신자 수의 증가 상황은 다시금 활성화되어 갔다. 1980년대의

한국교회는 대규모의 신앙대회를 통해 쇄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1981년도에 개최된 '조선교구설정 150주년 기념행사'는 교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쇄신을 기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했다. 이 행사에 대한 경험이 기초가 되어 1984년에 개최된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갔다. 그리고 1989년에는 한국에서 국제성체대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성장을 세계교회에 드러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교회의 성장과 신자수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었다. 1974년에는 한국외방선교회가 창설되었고, 1981년 이 선교회 소속 선교사 4명이 파푸아 뉴기니에 파견됨으로써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해외선교에 착수했다. 선교사의 파견은 인류복음화에 대해 한국교회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박해시대 이래 한국 교회에 선교사를 파견해 주었던 프랑스나 다른 몇몇 국가에 역으로 한국인 성직자들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선교사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봉사하는 선교사는 모두 899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인 성직자 183명, 수사 40명, 수녀 662 명, 평신도 1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교회내에서 여러 문제들이 내연(內燃)하고 있었다. 이 시기 중산층 신도들의 급격한 증가는 교회 내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교회는 청년 지식인들과 근로 대중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활기찰 수 있었다. 중산층의 입교를 통해서 교회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도 강화시켜 갈 수 있었다. 반면에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던 신입 신도들은 교회의 일각에 존재했던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발했다.

그리하여 새로이 입교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탈락되어 냉담자 내지 주소불명자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활발히 진행되던 산업화와 도시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산층 중심의 선교로 인한 타계층에 속하는 신자들의 소외의식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원인 중 또다른 하나로는 공의회 이후 교회에서 주창했던 정의구현의 이론과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던 부정의적(不正義的) 현실 사이의 괴리에도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에 실망한 일부 신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신도들 가운데 일부는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신종교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현대 한국교회는 냉담자와 행방불명자가 상당수에 이르게 되었고,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의 비율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신도들이 자신의 모범과 적극적 권유 및 선교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해 왔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신도로서 생활의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확실한 모습을 찾는 데에는 여러 한계점들이 발견된다고 생각된다. 평신도로서 자신이 터를 잡은 사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일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신자 고유의 권리요 의무이다. 그러나 전체의 신자들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며 실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어쩌면 이 점이 현대한국교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다.

3. 현대한국교회와 평신도 신심운동과 사회운동

현대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각종 신심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사실과 사회개발사업 그리고 정의구현운동 등에 대한 투신을 들 수 있다.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이 시기에 신자들이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 교회는 현대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른 종교집단보다도 월등히 강했다. 사회개발이나 사회복지 또는 인권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리스도교 복음을 사회발전과 변혁의 교훈으로만 이해하려는 환원주의(Reductionism)는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봉사는 비신도에게 입교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1) 신심운동

1960년대 이후 현대 한국교회의 변화상은 우선 심심운동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공의회의 신선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다. 이 시기 한국교회는 교회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각 방면에 걸쳐 노력했다. 그 결과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전례와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했고, 여러 평신도사도직 운동이 활력을 찾게 되었다.

공의회의 영향을 받아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례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 신도들이 교회의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한국어 미사의 시행을 통해서 마련되었다(1965. 1. 1). 이를 위해서 『미사통상문』이 간행되었다(1966). 이 한국어 미사의 시행으로 ‘기도의 학교’인 전례에 신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현대 한국교회의 영적(靈的) 쇄신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신도들은 라틴어로 미사가 집전될 때와는 달리 모국어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며 한국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일체감을 다져갔다.

얼마 후 토요일특전미사가 허용되었다(1971). 또한 교회는 현대사회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해서 교리학습을 위한 『가톨릭교리서』를 편찬했다(1967). 그리고 박해시대 이래 한국교회의 공식기도서인 『천주성교공과』를 현대화하여 『가톨릭기도서』로 간행했다(1968).

현대 한국교회의 쇄신에 중요한 밑바탕을 마련해 준 것은 성서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성서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노력들이었다. 1971년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 성서모임을 발족하여 가톨릭 성서운동의 불을 지폈고, 이로써 새로운 성서운동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이후 ‘베소라 성서’ ‘생활성서’ ‘청년성서모임’ 등 여러 성서모임을 통해 성서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가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신심운동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 1960년대 초엽까지 교회에서 전개되던 신심운동은 개인구령을 목적으로 하는 신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 신심, 예수성심과 성체에 대한 신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 신심의 실천에 있어서도 비조직적(非組織的) 방법이 위주가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서는 각종 신심운동체들이 조직되면서 신심운동에서 새로운 면모가 나타났다. 당시 거의 모든 운동체들은 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조직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공의회는 본당에도 영향을 미쳐주었다. 각 본당별로 본당신부의 자문기구인 '사목회'(司牧會)가 조직되어 평신도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출범하여 평신도운동의 전국적 조직과 교구별 조직이 갖추어졌다(1968).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의 날'을 제정하고 신도들에게 주일 미사 때 강론의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한편, 가톨릭학생운동도 4.19 혁명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하여 일반 학생운동과 호흡을 같이 하며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단체들도 공의회 정신에 따라 쇄신의 방향에 관심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1960년대 후반기 이후 교회의 활동이 본당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의 활동과 전국적 조직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이원화되어 갔다. 이로써 오늘날의 교회는 본당 단위의 활동과 전국 조직체의 활동을 상호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에는 1950년대에 도입되었던 레지오 마리아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오며, 성모 마리아 신심에 기본을 둔 교회 봉사활동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그리고 단기간에 걸친 신앙쇄신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의 봉사정신을 길러준 꾸르실료(Cursillio) 운동이 1967년도에 도입된 이후 이 신심운동은 한국교회의 쇄신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대중적 호응을 받으며 전파되었다. 또한, '기초 공동체 묵상회' 비롯한 새로운 신심운동의 유형들이 소개됨으로써 한국교회는 활기에 넘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교회의 전통적 신심인 순교자신심도 강화되었다. 순교자 신심은 1866년의 박해(丙寅迫害)순교자에 대한 시복(諡福) 운동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68년에 순교복자 24위의 시복식이 로마에서 거행되었다. 순교자 신심운동은 한국 순교복자의 시성(諡聖)을 추진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1976년에는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건의와 호소에 따라 순교복자의 시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성운동은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평협이 주도하던 시성운동은 1984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순교복자 103명을 성인으로 시성함에 따라 완성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시복 심사에서 제외되었던 순교자들과 한국전쟁 때의 피살자 그리고 최양업 신부와 같은 박해시

대의 병사한 인물을 위해서 시복시성운동을 새롭게 전개해 가고 있었다.

한편, 공의회 정신과 전례의 개혁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착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 신앙의 토착화에 대한 관심은 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에 관한 모색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선교 방법의 모색에만 그치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교회의 신학도 깊이 있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한국인 가톨릭 신학자의 본격적 활동은 1960년대 말엽에 이르러서야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한국인 사목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 신학자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신학자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내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비로소 수여하게 된 상황에서 토착화를 위한 노력은 태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 보건대, 한국에 있어서 천주교 신앙은 외래의 신앙으로 출발했다. 17세기 이후 그리스도교는 곧 서양의 문화였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은 서양의 문화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항해시대 이후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이를 무시했던 과오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보편교회는 공의회를 겪은 이후 복음과 문화의 분리라는 일대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래서 복음은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초월하는 요소이고, 모든 문화의 통로를 따라서 각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성숙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선교지의 교회에 대단한 지적 충격을 주게 된 일대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 인식은 선교신학의 방향을 전환시켰고, 그리스도교 복음선포의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

복음과 문화를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룩된 일은 아니었다. 이 결론은 제1세계에 속해왔던 교회 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선교사업의 많은 시행착오와 선교지의 무수한 고통이 씨앗과 비료가 되어 이룩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교회도 지난날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선교신학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제사문제 때문에 무수한 고통을 당한 바도 있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복음과 문화의 분리작업은 축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20세기 초반 베네딕토 15세 교황 때 교황청에서는 가톨릭교회의 현지화정책에 본격적 시동을 건 바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가 신앙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현지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 성직자의 양성에 좀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의회를 통해서 토착화의 정당성이 다시금 강조되어 갔다. 어찌 보면 교회 당국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서양인 신자들과 대등한 가톨릭 신앙을 선교지역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뜻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신앙의 토착화는 필연적으로 인적(人的) 토착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1오늘날 한국교회는 모든 교구장 주교가 한국인 성직자로 충원되기에 이르렀다. 한국내에 존

재하는 많은 수도공동체에서도 점차 한국인 수도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가고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교회는 신앙의 토착화 과정에서 신도들의 역할에 대한 자각이 더 요청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토착화는 사회질서와 문화의 복음화를 뜻한다면, 이를 위한 신자들의 의식적 노력 역할과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교회가 겪은 변모 가운데 하나로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들 수 있다. 사실 한국천주교회와 개신교는 1960년대 이전에는 상호 교류를 거의 갖지 못했다. 불교를 비롯한 전통종교와의 대화도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분위기는 일신되어 갔다. 그리하여 1965년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성공회, 그리고 불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종교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종교인협회’를 창설했다. 1972년에는 ‘한국종교단체협의회’가 조직되었고, 그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비롯한 범종단적인 모임이 속속 탄생되었다.

종교 간의 대화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신교와의 관계였다. 1960년대 후반기 주교회의 산하에 일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활동에 착수했다. 1970년을 전후하여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와 개신교 성직자들이 상호 방문하여 상대방의 교회에서 강론을 맡기도 했다. 일치운동의 일환으로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양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가 모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개발과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치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구약 성서의 공동번역작업이 착수되었다(1969. 1.). 그 결과 1970년에는 공동번역 신약성서가 간행될 수 있었고, 1977년 구약성서가 간행되어 이 사업은 완결되었다. 현재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이 공동번역 성서를 공인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성서를 받드는 하나의 형제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상호간에 가지고 있던 오해를 청산하는 계기를 맞았다.

요컨대,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전단계와는 다른 활동적 양상으로 신심운동이 전개되어 나갔고, 신자들의 신심활동 조직이 강화되어갔다. 현대한국교회에서 전개한 신심운동은 공의회 이전에 성행하던 개인신심 위주의 상황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기도 했다. 이 신심운동은 많은 신도들의 영성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누룩과 씨앗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심운동이라 하더라도 근본주의 신앙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복시성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앙을 위한 피흘림 자체만을 절대시하고,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 현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많은 비(非)순교자들을 망각한다면, 그 신심은 건강한 신심으로만 규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심운동의 단체화 조직화에 따라, 교회의 본질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임을 망각하고 특정한 하느님 백성을 의심하거나 그 역할에 대한 인정에 인색한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신앙의 토착화를 위해

서도 하느님백성 모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평신도의 의식적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 한국교회의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한편, 타종교와의 대화 부분에 있어서도 평신도들은 타 종교 신도들과의 연대활동 등 적극적 역할이나 기여가 부족했다. 타종교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대화 자체가 형식적 상황에 안주해 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문화운동·학술운동

한편,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한국문화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교회는 가톨릭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의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대의 교회는 의료봉사의 부문에 있어서도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당시 한국교회는 고급문화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가톨릭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갔다. 가톨릭문화는 문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톨릭문인들의 단체로는 '가톨릭문우회'(文友會)가 조직되었다(1970). 구상(具常, 1919-)이 가톨릭문학의 지주로 우뚝 서 있고, 시문학분야에서 가톨릭 여성 시인들의 활약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아동문학분야에서도 마해송(馬海松, 1905-1966)을 비롯하여 일단의 작가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문학 분야에서 김지하(金芝荷)의 시 '오적'(五賊, 1970)과 '비어'(秘語, 1972) 등이 나왔다. 이동진(李東震, 1945-)의 희곡인 '금관의 예수'가 일반 관객과 학원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공연되기 시작했다(1972).

또한 1980년대 이후에도 가톨릭문인들의 활동은 한국문학계와 한국인의 영성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홍운숙, 김남조, 이해인과 같은 시인, 박경리(朴景利), 최인호를 비롯한 소설가나 구중서(具仲書, 1936-) 등 평론가의 활동도 주목을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가톨릭 문학인들이 가톨릭적 영성을 담은 작품을 남김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장발(張勃)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현대 가톨릭 미술인들은 한국 미술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장발은 가톨릭미술가들의 모임을 주선했고, 여기에 김세중을 비롯한 미술인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신앙을 형상화해 나갔다. 음악분야에 있어서도 이문근(李文根, 1917-1980)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악인들이 한국음악과 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또한 한국교회사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와 역사신학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해방 이후 유흥열(柳洪烈, 1911-1995)은 이 분야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투신했다. 그리고 최석우(崔

奭祐, 1922-), 이원순(李元淳, 1926-) 등에 의해서 한국교회사 연구가 발전되어 갔다. 특히 1964년에는 한국교회사연구소가 발족하여 교회사의 연구에 기여했다. 그리고 1982년에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社會科學研究會)가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전문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와 가톨릭시즘의 연결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민족문화의 일부로써 가톨릭문화를 적응시켜나가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 사회개발운동과 사회정의구현운동

한국교회는 교육개발 사업과 함께 의료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했다. 1980년대 초반 한국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전국 병원의 침상 수 중에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교회의 신도수가 전국 인구의 3% 내외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의료 복지의 향상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물론 이와 같은 비율은 한국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분야 등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감소해 감에 따라 감소되어 갔다. 그러나 그 통계를 통해서 복지사회를 형성하고자 하여 교회가 전개한 노력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교회는 각종 보육원, 양로원과 그 밖의 사회사업 기관들을 통해서 사회개발에 참여했다. ‘소년의 집’ ‘꽃동네’를 비롯한 ‘대규모’ 복지시설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복지기관을 직접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사회복지기관들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복지기관의 위탁경영은 교회의 복지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가 다른 어느 단체의 경우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한국교회는 공의회 이후 인간존엄성의 확보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노력은 사회정의에 관한 공의회의 새로운 가르침과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경험과 자각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교회는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던 군사정권의 기도에 대항해서 예언자적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교회와 국가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갔고, 교회 내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당시의 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레오 13세의 ‘노동헌장’(Rerum Novarum)을 비롯하여 역대 교황의 사회 회칙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한국의 사회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성찰했다.

교회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 현대교회는 1968년 초에 발생했던 강화도 ‘심도직물’(沁都織物)의 노사분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즉, 이 공장의 노사분규에 관여되어 있던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매도되고 있었다. 이에 주교단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공동사목교서를 발표하여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천명했다. 이 교서의 발표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었다.

1960년대 말 이후 교회의 주된 관심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초래된 사회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사목과 관련된 교회내 단체의 활동이 강화되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가톨릭농민회’가 조직되어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1966). 그리고 1970년 주교회의 산하 공식기구로 ‘한국정의평화위원회’가 발족했다.

또한 이 해에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천주교와 사회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모임을 개최해서, 경제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대교구 산업사목위원회가 조직된 것도 이 때였다(1971). 그리고 개신교와 합동하여 ‘크리스찬 사회행동협의회’를 구성했고, 이 단체가 주관이 되어 ‘사회정의실현 촉진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회는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과 구조적 결함까지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노력의 대표적 사례로는 1971년 교회의 일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전개된 ‘부정부패추방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활동에는 외부의 탄압과 압력이 뒤따랐지만, 교회는 이에 맞서 사회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갔다.

한편, 교회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정치적 민주화 문제에 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1969년 군사정권이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3선개헌을 기도할 때 교회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구현운동은 1974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전기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촉발제가 되어 마련되었다.

즉, 이때 정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 사건을 과장·조작해서 발표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주교구의 지학순(池學淳, 1921-1993) 주교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1974.7.16.).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던 김승훈(金勝勳, 1939-), 함세웅(咸世雄, 1942-), 김병상(金秉相, 1932-)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들은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을 조직하여 불의한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1974).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대부분의 교구로 확산되었고 1970년대 이후 가톨릭 인권운동 내지 사회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제단 운동은 대부분의 신도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 있었다. 이들은 교회의 사회교리를 천명하면서 정의와 사랑의 개념을 밝히고 이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해결을 주장했다. 사제단은 사회의 변혁을 주장하던 신도들과 힘을 모았다.

교회가 전개하고 있던 정의구현운동 내지 반독재투쟁은 당시 사회 양심세력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받았다. ‘민주회복국민회의’와 같이 반독재 투쟁의 중심 기관에 윤형중(尹亨重, 1903-1979) 신부가 상임대표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제 교회의 정의구

현운동은 사회의 양심 세력과 연합하여 전개되었고, 교회는 그 연합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독재정치의 종식, 정보정치의 철폐, 인권유린에 대한 반대, 부정부패의 추방, 기본생존권의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제단에서는 구속자의 석방을 주장했고, 군사정권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들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을 비롯한 각종의 ‘시국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다가 1974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동참했던 메리놀 선교회 소속 시노트 신부가 추방당했다(그는 그 후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사랑하던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 후 교회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76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이른바 ‘3.1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유신독재에 대한 가장 선명한 저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79년에는 안동교구 농민회에 대한 탄압사건이었던 ‘오원춘(吳元春) 사건’이 발생했고 교회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기도회와 가두시위가 거의 대부분의 교구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교회의 공식기구였던 ‘한국정의평화위원회’가 1975년 이후 자신의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사제와 신도들이 전개하고 있던 정의구현운동은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고위 성직자들의 지도와 지지를 받으며 전개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곳에 종교적 자유만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가 취하고 있던 비판적 입장에 맞서 군사정권에서는 교회에 대한 탄압을 감행했다. 군사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여러 성직자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교회 신문에 발표되는 성직자의 사목교서까지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는 본당에서 매주 간행하던 『주보』를 정기간행물등록법 위반으로 몰아서 이를 폐간시키려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런데, 교회의 정의구현운동에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찬성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성직자들은 이 운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일부 교구장들은 교도권을 동원하여 정의구현운동에 제동을 시도했다. 1977년에는 노장 성직자 일부가 ‘천주교 구국위원회’를 조직해서 ‘사회안정’을 이유로 정의구현운동을 거부했다. 그들은 한국 주재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른바 ‘반한’(反韓) 활동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 극소수의 신자들도 ‘한국천주교 정의신자단’을 급조해서 교회의 정의구현운동을 저지하고자 했다.

정의구현운동에 반대했던 그들은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집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도와 교회 확장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당시 군사정권의 격려를 받으며 행동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 판단이 옳지 않았음은 한국현대사가 증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발언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는 1960년대 후반기 이후 정의구현운동을 전개해서 한국사회와 교회 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주었다. 이 시기 교회가 전개한 정의구현운동 내지 인권운동은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교회는 민족과 한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

교회는 이 운동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던 아픔을 대변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교회는 이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대다수와 정신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핍박받던 가톨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양심세력의 상징이 되었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인정과 지지를 획득해 나가게 되었다. 이 정의구현운동은 단순히 한국교회사적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국사적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 땅에서 진행된 세계 교회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현대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영적(靈的)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고, 민족복음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1970년대 한국교회의 정의구현운동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제2의 성령강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가톨릭 신앙의 내적(內的) 심화(深化)와 외적(外的) 발양(發揚)이라는 두 요소가 한꺼번에 진행되었던 때였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회참여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축적해 갔다. 이리하여 한국교회는 박해시대 '피의 체험'과 함께 이 '참여의 체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일부로 더욱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요컨대, 1962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중요한 변화와 발전이 이룩되고 있었다. 이 시기 한국교회는 한국어 미사를 통해서 새로운 전례의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인 가톨릭 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각종 평신도 사도직 운동들이 활성화되었다. 교회의 사회개발과 교육개발에 대한 기여가 증대되었고, 가톨릭문인들을 비롯해서 가톨릭적 지성들이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개신교와 일치로 지향하는 노력이 전개되었고, 신구약성서가 공동으로 번역되었다. 이 시기에 전개된 이와 같은 일련의 쇄신은 한국교회 자신의 각성과 공의회 가르침에 대한 인식의 강화를 통해서 가능했다. 생각해 보건대, 정의는 사랑과 함께 존재할 때 제 빛을 발한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정의 없는 사랑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을 짓는 일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사회정의구현운동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구현은 만인의 바램이며 행동지침이므로 이를 전유화(專有化)하거나 권력화하려는 경향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이를 자신과는 별개의 무관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행위도 경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존중되는 한 사회정의 구현운동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도정에서 교회공동체가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5. 북한교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현대 한국교회와 평신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는 북한 교회 내지 신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다. 돌이켜 보건대, 로마 교황청에서는 1963년 이래 공산주의와의 대화가 시도되었다. 이는 공산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 발전되어 간 결과였고, 교회의 전통적 반공주의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했다. 그렇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는 반공주의가 의연히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공산주의와의 대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갔다. 김수환 추기경은 남북공동성명 직후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전쟁포기 선언을 촉구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와 관련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일각에서는 공산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연구가 진행되어 나갔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북한의 신자들과 대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국의 남한사회와 세계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공의회 이후, 북한 사회에서도 1970년대 이래 조국해방과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론이 강화되었다. 이 원칙 아래에서 북한 당국은 종교 신앙의 존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는 ‘반종교선전의 자유’도 종전처럼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로 북한 정권 당국은 종교 내지는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1983년에는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처음으로 복음서가 북한에서 출간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종교 관계 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되어 갔다. 1988년 평양에는 개신교 교회당과 천주교 성당이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단체인 ‘조선천주교인협회’가 천주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창설되었다. 이 협회는 1999년 그 명칭을 ‘조선카톨릭협회’(위원장 장재언)로 변경하여 평양 선교구역에 자리잡은 ‘장충성당’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평양의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에서는 1991년 사륙배판 560쪽에 이르는 ‘카톨릭기도서’와 몇몇 선교용 팸플릿을 간행했다.

한편, 북한의 신도들에 대한 남한 교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남한의 교회에서는 1984년 한국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계기로 하여 북한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 서울대교구는 민족화해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남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어 오던 ‘통일’(統一)이란 담론(談論)의 틀을 ‘화해’(和解)로 바꾸었다. 이 화해라는 용어는 민족 재일치의 방법과 지향점을 동시에 함축했다. 이제 남북한 사회에서 이 단어를 모두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 1990년대 한국교회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주도하여, 그 정신적 방향을 밝혀보고자 했던 결과였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성직자들의 북한 방문도 1984년부터 가능해 졌다. 이로써 미주지역에서 교민 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성직자 등이 북한을 거의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북한 신도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한편, 1989년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추기경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바 있었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평양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를 전후하여 북한의 신도들과 남한의 신도들은 서로간의 만남을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진행시켜 갔다. 남북한 신도들간의 만남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종교 관계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이루어 졌다. 뿐만 아니라 1998년 5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 화해위원회 위원장 최창무(崔昌武) 주교 일행이 평양 장충성당을 사목적 목적으로 방문하여 평양의 신자들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 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직자들과 각 일부 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북한을 돕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상호 교류의 길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 만남의 과정에서 남한 교회는 북한의 신앙공동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에 거주하던 천주교 신자는 대략 52,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1988년 당시에는 모두 800여명의 신자들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천주교인협회가 평양에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98년 5월 현재 대략 3000여명의 신자들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국전쟁 이전에 세례를 받았던 구교우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영세 입교한 신자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신도들은 남포(南浦)와 원산(元山) 등에 공소(公所)를 세우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에는 단 한 명의 성직자나 수도자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신앙공동체는 평신자 수도자 성직자로 구성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7성사가 모두 집전되고 교계제도를 갖춘 완벽한 교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신앙공동체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 하더라도, 가톨릭 신앙공동체의 진정한 일부임이 확인되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합법적 세례를 통해서 형성된 신자들의 조직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교구 민족 화해위원회는 1999년 말 현재 10여회에 걸쳐서 북한의 신도들과 접촉하며, 북한 복음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95년 이래 현재까지 냉해와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국가들이 몰락한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졌고, 여기에 자연재해가 겹쳐서 기근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북한의 기근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적 노력을 전개했다. 1995년 이래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북한 돕기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 60여억 원으로 식량이나 비료 등을 구입하여 북한 주민들을 지원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1998년도 순수 민간부문에서의 북한 지원액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 북한 난민의 지원을 위해 주요한 몫을 계속해서 담당해 왔다.

서울대교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북한의 기근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이 선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춘천교구, 청주교구를 비롯해서 여러 교구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도 조선천주교인협회를 창구로 하여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북한 동포에 대한 교회의 지원은 현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구원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인류애 내지 동포애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20세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도 한국교회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직접적 참여와 구체적 지원을 유보해야 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북한의 복음화에 참여하기 위한 희망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민족 화해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부 교구에서는 교구소속의 사제들이 평양에 갈 경우 미사집전마저 금지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 남북한 정부 당국자 간에 상호관계가 악화되고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한국교회의 대북정책에도 심한 기복을 겪게 되었다.

요컨대, 종교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변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988년 평양에서는 ‘조선천주교인협회’가 창설되어 천주교 신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양에 장충성당이 세워져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남한의 교회는 ‘북한선교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등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화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 이 무렵 북한 지역에서는 1995년 이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남한 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이 이에 참여하면서, 북한 신도들과 교류가 가능했다.

요컨대, 교회는 북한의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본격적으로 모색했다. 그러나 통일은 사상과 역사를 초극(超克)할 수 있는 동포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통해서 이룩된다.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 한국현대교회 평신도의 과제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역사를 올바르게 창조해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교회사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현대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과거를 살았던 하느님 백성들은 현재의 한국교회에 조언을 주고 있다. 현재의 교회는 미래의 구속사업에 미리 참섭(參涉)하여 미래의 기초를 놓고 있다. 한국교회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간대가 함께 어울려 씩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한국 교회와 그 구성원인 한국의 하느님 백성들은 한국이라는 문화적 역사적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는 한국민족의 보편적 구원에 제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한국이라는 공간의 조건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오늘의 한국교회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복음선포 작업은 민족적 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사에서는 교회 자신의 특수한 측면과 함께 교회가 일반사와 만나는 장면을 주목하게 된다.

한편, 공의회 이후 한국 현대교회와 하느님의 백성들은 현대한국사회가 갈구하는 민족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신의 책임을 수행해 왔다. 현대한국교회와 그 백성들은 민족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교적 구원의 의미를 일깨워 주며,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천주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2세기 이상에 걸친 역사과정(歷史過程)을 통해서, 천주교는 한국사회와 문화의 일부로 뿌리를 내렸다. 이는 한국교회와 그 백성들이 민족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고 기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의 완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은 수행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과 한국교회와 그 하느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공의회 50주년 이후 미래에의 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새 천년기의 한국교회와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교적 구원을 한국민족에게 선포하며, 민족 구성원의 보편적 구원을 위해서도 이바지해야 한다. 이 보편적 구원은 한국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요소들의 성취를 통해서 일부 달성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정치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사회와 교회 및 그 백성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필코 성취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하는 인간 기본권의 신장 특히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공의회 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와 그 하느님의 백성이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확인하게 된다. 즉, 한국교회와 그 백성들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교회 학문의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면,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한국교회에서는 사목자의 양성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나 평신자 가운데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본격적 노력이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일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신앙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본당 단위뿐만 아니라 교구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도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두루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일에 종사하며 투신할 수 있는 유능한 평신도들이 양성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교회의 특수 논리가 보편적 논리로 대체 발전되는 과정에서 성직자의 권위주의에 대한 지적이 나타났다. 현대 교회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이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 반성과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와 그 백성들은 민족사회에 대한 지속적 봉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요청된다. 19세기의 사회 계몽적 시각에서 착수되어 20세기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체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에 한국교회와 그 백성들은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 관심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족사회를 위한 자기희생과 봉사가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요구임을 하느님 백성 모두가 좀 더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이래 한국교회는 서구문화의 전파자로 자임하며 민중에 대한 구원을 독점하면서 그들을 계몽하려 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와 백성들이 한국사회의 스승으로 자임하거나 해결사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공의회 50주년을 겪은 한국교회가 계속 이와 같은 과거의 역할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사회와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 백성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한국사회와 한국문화를 스스로 배우려는 진지한 학생의 자세를 요청받고 있다. '어머니와 교사'로 태어나기 위해 교회는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취하게 될 이 겸허하고 자기희생적 자세는 비그리스도교적 한국인들에게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와 그 백성은 민족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민족문화와 진정으로 화해하여 그리스도교 문화가 민족문화의 일부로 뿌리내리는 데에 더 큰 진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문화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어, 그리스도교 신앙의 민족문화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모든 하느님 백성들은 민족에 대한 봉사의 일환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세기 선교신학의 유산인 정복론적 선교관을 극복하고 화해의 선교론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교육 내지는 민족화해교육이 시급함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민족의 복음화와 보편적 구원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의 복음을 심을 수 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오늘과 내일의 교회에 요청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인류의 복음화 내지 인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 봉사를 다짐해야 한다. 새 천년기의 한국교회는 인류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투신하는 모습을 드러내 줄 것이다. 현대 교회의 가르침과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천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국내의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다문화가족 문제에 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변의 조선족 노동자, 회교권이나 다른 그리스도교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다. 가톨릭을 신앙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이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크게 요청된다.

한국교회는 인류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자신의 선교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에 각별한 관심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다면, 현대의 한국교회는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의 선교에 대한 본격적 투신을 강화해 가야 한다.

이상은 한국의 미래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며 공의회 50주년을 기념한 이후의 미래 과제들이다. 한국교회가 자신과 세계 교회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둘 때, 이 역사적 과제는 올바로 수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언제나 복음의 원점(原點)에서 자신에 대한 반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오늘의 교회는 지난 200여 년 간에 자신이 성취한 외적(外的) 성장이 곧 내적(內的) 성숙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00년 전의 신앙고백과 오늘의 신앙고백을 비교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교회의 봉사가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다시 태어나야 하며 쇄신되어야 한다. 이 다시 태어남과 쇄신은 하느님 백성 모두의 변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 변화는 복음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보다 복음적 교회로 변모되어, 한국민족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를 위한 꿈과 다짐이 한국 땅 하느님 백성 모두의 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이다. 이 미래적 현실의 역사는 그 서론이 지금부터 써어지기 시작했다. 그 주역은 이 땅의 하느님 백성 모두이다. 미래 교회의 평신도는 자신이 주역의 일부임을 자각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좀더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발 표 자 : 조광 교수님(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지정토론 : 정연정 신부(절두산순교성지 주임)

지정토론 내용

① 저는 발표자처럼 지난 50년에 걸친 한국현대교회사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분야별로 나누어 방대하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연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신도가 해야 할 일들과 그에 파생되는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한 연구 또한 기대해 봅니다.

② 저는 논고를 읽는 내내,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 평신도들 모두가 교회 쇄신의 주역이며 원동력이었음을 가슴 벅차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이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개개인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③ 논고는 발전하는 교회의 변화모습과 발맞추어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순방향에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었거나 혹은 좋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발표자께서는 타종교와의 대화에 있어서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대화 자체가 형식적 상황에 안주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8페이지) 발표자께서 생각하시기에, 타종교와의 대화에 있어서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란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1970년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교회의 쇄신과 평신도 신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전국평균인구증가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자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논고 4페이지)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끝으로 발표자의 연구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논의와 발전적인 의견들이 함께 제시되어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더 많은 평가와 역할이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제언을 위하여

1. 『개막 메시지』 (1962. 10. 20)

사랑을 통하여 이미 어느 모로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서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그림처럼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2. 『평신도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11. 18)

-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평신도들은 그 활동으로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며 인간 구원에 봉사한다. (2항)
- 언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복음의 첫 씨앗이 뿌려졌거나,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어떤 중대한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온 삶을 통하여 복음에 충실하며 그리스도교 혼인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가장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11항)
- 개인 사도직의 가장 독특한 형태로서 신자들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가장 적합한 표지는 믿음, 사랑, 사랑에서 나오는 평신도 생활 전체의 증거이다. (16항)
-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 그 밖의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들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가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며, 교회 건설에서 평신도들도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5항)
- 가정과 가정의 공동생활은 평신도 사도직의 실습이 되어야 하겠다. (30항)
- 교회의 하나인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하여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평신도들은 바로 주님의 협력자가 된다. (33항)

3. 『가정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 11. 22)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가정에 특별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관한 기쁜 소식을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86항)

4.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 12. 30)

평신도 단체들을 위한 “교회성의 기준”, 즉 교회 안에서 평신도 단체들을 평가하는 기본적 기준들은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 소명을 으뜸으로 삼는 우위성. 이는 어떠한 평신도 단체이든 언제나 “회원들의 실생활과 신앙의 더욱 긴밀한 일치”를 강화하고 촉진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덕으로 나아가는 더 나은 도구가 되도록 부름 받고 있음을 말한다.
- ② 가톨릭 신앙 고백의 책임. 이는 교회의 교도권에 순종하여 교회가 진리를 해석하는 대로, 그리스도께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를 수용하고 선포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 ③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의 증거. 이는 보편 교회의 향구하고도 가시적인 일치 핵심인 교황과 주교와 더불어 이루는 친교는 교황과 주교의 교의적 가르침과 사목 지침들을 수용하는 충직한 자세로 드러나야 함을 말한다.
- ④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이는 모든 형태의 평신도 단체는 각기 재복음화에 참여하여 그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교 열정을 지니도록 요청 받고 있음을 말한다.
- ⑤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 이는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하도록 투신하여야 함을 말한다. (30항)

5.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 8. 6)

그리스도교 신앙의 참된 실재를 재발견하고 재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적 동의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련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대한 산 지식이요, 그분의 계명에 대한 살아 있는 기억이며, 살아야 할 진리입니다. 말 한마디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실천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존재 전체를 건 결정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요한 14,6 참조)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남이요 대화요 사랑과 생명의 친교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행위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갈라 2,20 참조) 그것은 바로 깊은 하느님 사랑과 형제 사랑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88항)

6.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3. 25)

“생명의 문화”와 “죽음이 문화”가 극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 속에서는, 참된 가치와 진정한 필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비판적 감각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심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생명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양심의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의 윤리적 노력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95항)

7.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05. 12. 25)

신앙과 예배와 관습(ethos)은 서로 얽혀 있는 단일한 실재입니다. 그 실재는 우리가 하느님의 이카페와 만남으로써 구체화합니다. (14항)

8. 『믿음의 문(Porta fidei)』 (2011. 10. 11)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길입니다. (3항)
- 교회의 쇄신은 또한 신자들의 삶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앙을 통하여 이 새로운 삶은 부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실재에 따라 인간의 존재 전체를 형성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이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은 사유와 행동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6항)
- 신앙은 오로지 믿으면서 자라고 더욱 강해집니다. 하느님에게서 생겨난 것이기에 끊임없이 날로 자라는 사랑의 손길에 더욱더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7항)
-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해 주면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14항)

9.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의 주교시노드 개막연설』 (2012. 10. 7)

새복음화란? 교회는 복음선포를 위해 존재합니다. 때문에 새복음화가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새복음화는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실천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혼인은 그 자체로 새복음화입니다.(창세 2,24; 마르 10,7-8 참조) 충만하고 갈릴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위기와 혼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혼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바탕을 두고 한 몸을 이루는 신앙과 혼인은 항상 같이 갑니다.

❖ 그러므로 앞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세상 안에서 구현할 ‘**평신도 사도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선포가 **가정과 인간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통한 **새복음화**의 차원으로 더욱 전개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제3주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세상의 변화와 평신도사도직

발제: 정진호 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지정토론: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경제적 자유의 평신도 영성: 동아시아 복음화 사도직 전략

정진호 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목차>

미션: 하느님 나라 확장

1. 신앙의 해가 주는 기회
2. 말씀의 빛
3. 순교자 신앙

현 위치: 경제적 자유와 동아시아의 희망

4.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
5. 주님을 알지 못 하는 이웃들

전략: 새로운 복음화

6. 굶주림과 박해의 칼날 아래서도
7. 옹기를 지고 목주 알을 굴리며 복음을 전파함
8. 순교 선열들의 열정을 본받아
9.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불태워
10.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11.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함
12. 언제 어디서나
13.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함

실행: 평신도 가톨릭교회교리교육 운동

14. 동아시아 방방곡곡에
15.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며
16. 온 백성이
17. 주님을 흠송하고 찬미하게 함

참고문헌

부록

미션: 하느님 나라 확장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함께 지내는 '신앙의 해'가 오늘 2012년 10월 11일 개막한다. '신앙의 해'는 세계 교회가 2천 년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구세주 예수님께 새롭게 돌아섬으로써 현대 세계의 사람들을 '믿음의 문'으로 인도하고 새롭게 복음화하고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한 기간이다.

신앙의 해 개막일은 복자 요한 23세 교황이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하 '공의회') 개막 50주년,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이하 '교리서')를 반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1년 10월 11일에 발표한 신앙의 해 제정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에서, 신앙의 해가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두 사건, 곧 공의회 개막과 교리서 반포를 기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공의회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확실한 나침판(5항)이며, 교리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11항).”

이 '신앙의 해'에 더하여 2012년은 우리 한국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교황 요한 23세 복자는 1962년 3월 10일 교서『복음의 비옥한 씨』(Fertile Evangelii semen)을 통해 한국에 새 관구(서울, 광주, 대구)를 설정하고, 11개 대목구를 교구로 승격시키는 교계제도를 설정했다. 이 교계제도 설정은 1831년 9월 9일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후 131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일이었는데, 시간은 어느덧 50년이 지났다.

한국천주교회 교계제도 181년 역사는 1784년에 그 씨가 뿌려졌다. 이 땅 남산 기슭 명례방에서 평신도의 힘으로 조선 천주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하느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초대 평신도들은 서양학을 책으로만 배웠기에 교리지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 서양학의 비범함을 알아차리고 유교의 예를 뛰어 넘는 수덕(修德) 정진(精進) 마음가짐으로 천주님을 흠송했다. 북경까지 동지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 교인들의 열정을 하느님께서 더 귀히 보셨다.

조선이 하늘을 보자 박해는 처음부터 있었다. 성균관 유생들은 김범우(金範禹)집에서 벌어진 천주교 교리 공부 모임에 대한 형조판서의 조치가 약하다고 격렬한 비방문을 발표했다. 1785년 음력 3월에 이용서(李龍舒)와 다른 이들이 서명한 이 통문(通文)은 조선 땅에서 천주교를 공격한 최초의 공적인 문서다.(샤를르 달레(1874,1987), 319쪽) 그 박해로 인해 김범우 토마스는 유배지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한국천주교 첫 희생제물이 되었다. 최석우(1961, 2012) 문시놀은 적고 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신생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신부도 없고, 성사의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꾸려갔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세례 및 견진과 같은 성사 생활뿐 아니라, 나아가서 미사집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박해는 지금도 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천주교회는 지금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다. 2010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아시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을 다짐하였다. “신자는 누구든지, 교회의 어떤 기관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할 지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교회의 선교사명」 3항)고 선포한 교회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하고 이 땅에 선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살고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내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울지마 톤즈’라는 기록영화로 세상을 감동시킨 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의 선교사로서의 삶과 그 반향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스승(가르침)보다 증거를, 주장(논리설득)보다 경험을, 이론(가능성 계산)보다 실천”(42항, 괄호 내용은 필자 첨가)을 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흰색 순교를 살기로 결심해야한다.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특히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증거자 삶을 본받아야 한다. 박해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에게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신앙 때문에 죽어갔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죽을 각오로 복음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순교정신으로 일상을 나아간다면 못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복음 정신이 필요하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올 것을 기대해 본다. 매 순간 다가오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순교의 정신으로 성화시키는 ‘영웅적인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 순교정신을 사는 것, 이것이 흰색 순교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순교자들이 보여준 애덕을 이 풍요로운 시대에 굶주림과 가난 속에 지쳐있는 이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 실천해야한다. 흥년과 기근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굶어죽는 일이 없었다. 가난 할 때 이 땅에서 이론 것을, 풍요로운 지금, 다른 나라로 가서 이루어야 한다. 흰색 순교를 살며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는 값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마태 25,13)고 한 복음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약하고 가난한 이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우리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동아시아에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취지로 이 논문을 준비했다.

1. 신앙의 해가 주는 기회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선교는 교회의 본성이다”(<교회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Ad Gentes)> 2항)라고 선포하였다. 공의회는 선교교령 반포 10주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영감으로 가득 찬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1975년 12월 8일)를 발표했다. 이어 교령반포 25주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의 선교 사명>(1990년 12월 7일)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이렇게 보편교회가 선교 사명의 초석이 될 『가톨릭교회 교리서』반포 20주년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금경축(1962년-2012년)을 ‘신앙의 해’로 기뻐하는 오늘, 아시아 교회의 중심에 선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복음화라는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투신해야 한다. 이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그리스도 공동체들과 함께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11.17.29; 3,6.13.22)을 듣고자 한다.

우리는 아시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취하셨던, 하느님 아버지의 첫 번째 복음선포자이며 선교사인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 세상의 구세주는 아시아에서 태어나셨다. 아시아인 유대족으로 사셨다. 한국 천주교회는 쇠신된 열성과 활력으로, 아시아의 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선교 소명을 받아들였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미리 그려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제삼천년기에는 이처럼 광대하고 생동적인 이 대륙에서 신앙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아시아 교회〉)을 믿는다.

로마 교황청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니슬라오 리우코 추기경은 한국 교회가 2010년 아시아평신도대회를 열 수 있었던 이유로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한국교회는 나눌 것이 많은 역동적인 교회이고, 둘째 평신도에 의해 시작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이며, 셋째 순교자가 흘린 피를 바탕으로 자란 강한 교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복음화는 한국천주교 모든 교회의 사명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는 2012년 10월 전교의 달 담화에서 “신앙의 해는 가톨릭교회 안에 신앙의 열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적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로마 교황청은 10월 11일 오늘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앙의 해 개막식을 연다. 10월 7-28일에는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로마에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있다. 사실상 신앙의 해 개막행사가 될 이 회의에서 세계의 주교들은 지역교회 상황과 사목 경험을 공유하며, 교황이 제안한 ‘새로운 복음화’의 실천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가 참석한다. 신앙의 해 기간에 교황청은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날, 젊은이 견진성사, 대중 신심의 날, 세계 신학생과 수도회 수련자 순례, 교리교사들의 날

등을 거행할 계획이다. 폐막식은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열린다.

2. 말씀의 빛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필리 3,8-9)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량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상을 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선교는 위임된 직분의 수행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1 코린 9,16) 더구나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 즉 자신의 사도됨 자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불러 주신 것, 곧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므로 이미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에페 1,7)

사도 바오로는 자신을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 외에는 어떠한 권력이나 지위에도 ‘은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이 ‘은총’이란 용어를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아래 있지 않고 은총아래 있습니다.”(로마 6,14) 이를 통하여 볼 때,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부르심과 사도직으로 부르심은 동시적 사건이며 본질적 근본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인 사도로 부르심은 사도 바오로에게 ‘숙명’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숙명’을 거역하면 그에게 ‘화’가 있다고 믿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 코린 9,16) 이러한 사도 바오로의 ‘숙명’과 ‘화’에 관한 인식은 사도 바오로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일체의 의심에 대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확신을 제공한다. 즉,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된 자신의 사도직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에페 1,1)임을 자처했다.

사도 바오로가 이해하고 지키고자 했던 선교 사명, 즉 사도직은 특권을 얻어내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사도 바오로에게서는 사도직으로부터 오는 특권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포기될망정, 특권 자체가 지위 획득과 고수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사도 바오로 자신이 육체적 고생

과 사회적 수치를 감수해야만 할 때에도, 사도 바오로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주어진 특권들을 서슴없이 포기한다.

그런데 최소한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달성할 직분의 임무란 ‘너희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1 코린 9,1) 즉 사도 바오로가 이해한 선교 사명, 즉 사도직 직분의 임무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1 코린 9,19)이다. 이런 직분과 직분의 임무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인식은 당신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표현한 예수님의 사명 인식과도 맞닿는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

그러나 위와 같은 사도 바오로의 사도직 이해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쇄신을 통한 ‘자기 버림’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 ‘넘어선 차원’을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사도직을 ‘숙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에서 가장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다.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도직 미션은 필연성이요 숙명이다. 그것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션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이다”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미션을 회피한 결과가 하느님의 ‘화’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이 미션 위임이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 미션 위임이 자신이 갖추고 있는 어떤 자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이 영적 부르심은 자의로 된 것도 아니어서 그 미션의 일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로마 9,16)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사도직은 훌륭하고 자질 있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심지어 그가 자신의 이상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사도직은 그에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하느님에게 혹은 성령의 역사에 ‘떠밀려’ 거역할 수 없는 소명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직책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을 때 하느님의 ‘의노’(종에 대한 꾸지람)를 피할 수 없다 것과 그 직책이 자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임무를 잘 해낸다 하더라도 ‘상’(종에 대한 칭찬)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성령의 역사(종의 직분)로 내몬 하느님의 계획을 긍정하고 동의하여 ‘자신’(쓸모없는 종)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강요받은 비범한”(말에서 떨어진) 사도직을 자신과 역사와 하느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빛 속에서 앞이 안 보임)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총에 매여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은 대로 보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가 시대의 징표를 읽고,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고, 불의를 꾸짖어 하느님의 나라 확장을

에 투신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 제자가 사는 길이다, 동아시아의 선교를 위한 한국천주교회의 선교 사명은 그 은총의 빛이 명백하다. 장차 다시 얻게 될 갈라진 내 형제, 찢어져 아물지 않는 내 상처의 아픔, 북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동아시아 대륙을 하느님 나라 순교의 피로 씻어야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성령의 바람이다. 이 어렵고 힘든 선택이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은 항구한 평화이다. 독일 통일은 독일만의 통일이 아니었다. 유럽 전체의 통일이었다. 대한민국 통일은 한반도만의 통일이 아닐 것이다. 아시아 전체의 통일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신앙의 해’는 한국 천주교회가 자기복음화를 위한 정화의 기간이다. 말씀의 빛으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야 한다.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를 중심으로 ‘신앙의 해’ 실천을 위해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3)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4)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등 5대 표어를 선정하고, 신자용 안내서도 발간했다. 앞서 서울대교구는 9월초 새 미디어를 통한 새 복음화를 목표로 소셜네트워크와 팟캐스트 채널을 신설하기도 했다. 10월 11일 오후 6시에는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신앙의 해’ 개막미사를 열고, 5대 표어의 상징물인 (1)성경, (2)기도서, (3)공의회 문헌과 교리서, (4)빵과 포도주, (5)빈 바구니를 봉헌한다. 향후 공의회 문헌 연구와 자료집 보급, 신앙체험수기 공모, 어르신 방문 교리교사 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복음화 사명을 가슴에 새기며 바오로 사도의 영적 투쟁으로 마음을 다져 본다. 사도께서 소아시아에 그리스도 신앙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던 그 열정적 외침을 묵상해 본다.(에페 6.10~18 참조)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3. 순교자 신앙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방향은 한국 초대교회 평신도상을 본받는 것이다. 103위 순교 성인 중 주교와 신부는 11명, 평신도는 92명이다. 평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교회의 태동과 발전에 평신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평신도에 의해 시작됐으며 평신도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교회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 평신도들의 활약상은 놀랍다.

교회 일이라면 생업도 뒤로 한 채 참여하는 ‘헌신형’ 신자들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노숙자 무료 급식소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김없이 ‘투신형’ 평신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성서와 전례, 심지어는 신학에 이르기까지 깊은 안목을 갖고 공부하는 ‘학구형’ 평신도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열정만으로 보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의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성화해야 하는 또 다른 사도직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평신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뉠대로의 성화 활동을 전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한 평신도 스스로의 문제해결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평신도 개개인이 스스로의 사도직에 대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하느냐, 전개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특히 평신도의 정체성 부족과 자질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교구가 실시한 한 신자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자 3명 중 1명꼴로 사도직 활동의 걸림돌로서 ‘교리 및 복음 지식의 부족’을 꼽고 있다고 한다. 교리와 복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신앙생활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열심인 노인 신자들은 요즘 평신도들의 교리지식과 자질이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만도 못하다고 지적한다. 많은 사람이 교리 신학원 등에서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옛날 공소회장이나 사목회장들의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뒤쳐진다.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평신도의 영성을 찾아 계발할 수 있겠느냐고 자책한다. 전에는 공소회장은 물론 본당 사목회장의 선발 기준이 교리지식과 신앙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성당을 짓는 일이 급해서인지 사회적 지위와 금전적 능력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낀다.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걸림돌은 바로 평신도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평가 했다.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때, 평신도 사도직의 모범을 한국 초대교회의 평신도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김길수 교수는 순교자현양특강에서 “한국 교회 형성기는 쇠국 정책, 전통 문화의 폐쇄성, 박해와 성사생활의 제약, 배교와 밀교 등 평신도 사도직 수행에 극히 불리한 환경이었으나 평신도들은 교회 안팎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스스로의 직무를 수행했다”며 “사도직의 소명의식에 충만한 평신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오늘 한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천주교 성공을 가져온 천주교 선교 전략의 토착화에 어떻게 공소회장 제도가 기여 했는지 살펴본다. [2012년 5월 20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6-7면, 최진성(미카엘 솔내성당)] 공소회장제도는 교우촌에 설

립된 공소의 관리와 신부가 방문하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 그를 대리해서 교우촌을 신앙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도 선교사들의 수적 증대보다, 늘어나는 비신자 관리에도 힘이 벅차던 당시에 교우촌의 유지 및 관리에 공소회장들의 역할은 전교회장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1912년에 발간된 “會長必知”라는 지도서에는 공소회장의 지위를 ‘공소의 두목으로서 본당신부를 대신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성직자를 보조하는 일종의 부제(副祭, 신부가 되기 전의 성직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임금 없이 희생과 봉사를 하는 명예직이라서 보수를 어느 정도 받았던 전교회장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당시에 자금이 부족하던 선교사들에게 공소회장의 존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드망즈 주교는 1913년, 1914년, 1915년도에 계속해서 공소회장의 이런 활동이 선교사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에 의해서 선교사의 활동은 증가됩니다. 반면 그들이 없으면 선교사의 활동은 감소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이릅니다. (중략) 그의 직분은 완전히 무보수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소의 종교적인 일은 모두 그의 손을 거치게 되므로 그의 직분은 한가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직책에 대한 무보수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들 약 400명에게 비록 얼마 안 되는 수당을 준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釜山教區年報”, 1987, 38~40, 46~47, 55 인용)

이러한 공소회장들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려는 교육 또한 중요하였다. 이들에게 열성을 꾸준히 갖게 하고, 그들 사이의 유대를 견고히 하며, 열성이 지극한 공소회장과 접촉을 통해 자극을 받게 하여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함으로써 신부의 부족을 메우려는 선교전략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에 대해 선교사들은 대부분 만족하였다고 말하고 있다(“釜山教區年報”, 1987, 47). 그들은 열성적으로 그들의 교우촌을 모범적인 공소로 만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 회장으로서의 본분과 관련된 의무에 대한 규범을 적은 규범집을 배부하기도 하였는데, 이 규범집이란 1913년 9월 10일에 드망즈 주교가 집필하여 조선 남방교회의 모든 회장들에게 반포한 “회장본분”을 가리킨다. 이들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교회의 홍보와 신자교육 및 공소예절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던 의도였다. 당시의 공소예절이란 담당 신부가 모든 교우촌을 방문하지 못하던 일요일에 공소회장의 주례로 이루어지는 약식 미사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공소회장에게는 이를 주재할 임무가 있었으며, 이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공소회장제도는 전교회장 제도와 함께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일반신자) 조직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1933년에 5개 교구 주교들의 공동교서가 만들어짐으로써 평신도 조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가톨릭운동(Actio Catholica)이라고 하며, 평신도 사도직에 속하는 여러 활동과 그 단체

들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비오 10세가 처음 사용한 'Azion Cattolica'란 말에서 유래되어 비오 11세 등 역대 교황들이 적극 장려하였으므로 전세계 교회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1933년 5개 교구 주교의 공동교서가 만들어짐으로써 적극적이고 활발한 단체 조직과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釜山教區年報”, 1987, p.197 각주 참고). 이것은 천주교 선교전략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기폭제 역할이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의 원동력이 바로 천주교 선교전략의 토착화에서 비롯된 평신도 사도직 활동 덕분이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천주교회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대비 총신자수의 비율은 10.3%이며,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1,149명이다.

순교자 신앙은 순교 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교우촌에도 있었고 전교에 나선 길 거리에도 있었고 신부의 방문이 제한적이었던 공소에도 있었다. 백색 순교는 순교자 신앙의 뿌리였다. 백색 순교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고 동아시아복음화를 꿈꾸는 '신앙의 해'에 다시 살펴 보아야 할 제도이다. 전교회장제도와 공소회장제도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먼 나라에서 순교에 목숨을 바치고자 이 땅에 온 서양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정착 시킨 성공 모델이다. 백색순교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가르침을 받던 초대교회의 명례방 전통이 한국천주교회 성공모델의 전형이다.

'신앙의 해'를 맞아 특별한 제안을 해본다. 가톨릭교회교리서 3권을 각자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전례력 52주간동안에 마칠 수 있는 천주교신자 교리교육 양육 프로그램이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톨릭교회교리 형성 전례력 52주간 명례방계획>(이하 '명례방계획')을 제안한다. 교재중심 교리 진도는 '간추린 가톨릭교회교리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2003)에 따른 46과 주제를 대림 1주일 주간부터 연중 제 27주일까지 46과 주제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배정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교리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3)와 '가톨릭교회교리서 요약편'(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의 항목 번호를 맞추었다.

가톨릭교회교리 전체를 마친 연중 제 28주부터 연중 제 33주일까지는 내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6주간을 배정했다. 이웃 사랑으로 배우는 하느님 사랑이다. 자유롭게 특화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선교역사, 한국천주교교회사, 동아시아 순교 성인, 한국 순교 성인, 성모 성지 순례, 순교 성지 순례, 레지오 마리아 활동, 가톨릭 복지 시설 봉사, 사회교리학교 공의회학교 민족화해학교 등록 등 그룹의 형성 (formation) 내용대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정하면 된다.

현 위치: 동아시아의 희망

한국교회는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1980년대 후반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 바야흐로 선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그리스도교의 상황은 이제 서구 그리스도교의 시대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리스도교의 중력이 제3세계로 이전하고 있으며, 제3세계 그리스도교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영적자원, 물질자원, 인적자원을 확보한 나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선교는 국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주화투쟁과 인권시비로 인하여 비민주적인 국가라는 지탄도 받았다. 이것은 선교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권위주의적인 유교문화권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가 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소위 아시아의 네마리 용은 경제대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권위주의 사회이다. 이들 나라들은 흔히들 개발독재, 혹은 유교적 가부장적 정치문화가 지배하는 나라로 거론된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 이후 완전한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 세계선교는 이제 서구 선교의 시대에서 서구와 비서구 선교가 협동해야 하며 양적으로는 비서구 선교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현재 세계선교의 3분의 2는 미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미국교회도 이제 선교를 점차 축소하여 선교의 주도권을 제3세계 국가의 교회로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선교신학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은 한국교회가 21세기에는 세계선교에 많은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현재 세계선교의 서구대 비서구의 비율은 70대 30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50대 50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요청에 따라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사목헌장> 4항) 한다. 아시아 교회는 항상 아시아의 현실, 통계, 구체적인 도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현대 아시아 선교 신학의 특징인 이런 귀납적인 접근법은 지금 70억이 넘는 인류의 60%가 살고 있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서 아시아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 교회와 그 선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건설하게 탐구하고 통찰하도록 촉진한다. 신앙 성찰을 시작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대”인 지난 50년 동안 아시아의 선교 복음화를 쇄신하고자 한 아시아주교회연합(FABC)의 가장 의미 있는 공헌과 전망을 살펴본 제임스 크로거 신부의 강의를 정리한다.

아시아의 통계 현실은 놀랍고 도전적이다. 인류의 거의 3분의 2인 약 40억 명이 아시아인이다. 중국과 인도 인구를 합하면 25억 5천만 명이다. 전 세계 비그리스도인의 85%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2012년 현재 약 1억 2천만 명인 가톨릭 신자들은 전체

아시아인의 3% 미만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가톨릭 신자의 50% 이상이 필리핀이라는 한 나라에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가톨릭 신자는 아주 작은 소수, 주로 1% 미만이다. 아시아에는 이슬람 신자수가 7억 명이 넘는데, 이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 4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2억 1,600만 명), 파키스탄(1억 6,100만 명), 인도(1억 4,700만 명), 방글라데시(1억 2,200만 명)가 아시아에 있다[2012년 추계].

아시아 교회의 소수 상황과 그 선교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나라의 전체 인구 중 가톨릭 신자의 비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추계로 보면 필리핀(1억 400만 명, 81%), 스리랑카(2,150만 명, 8%), 베트남(9,150만 명, 6.8%), 대한민국(4,900만 명, 6.7%), 싱가포르(530만 명, 6.5%), 마카오(57만 8천 명, 5%), 홍콩(700만 명, 4.7%), 말레이시아(2,900만 명, 3%), 인도네시아(2억 4,800만 명, 2.58%), 인도(12억 500만 명, 1.72%), 버마, 미얀마(5,450만 명, 1.0%), 라오스(650만 명, 0.9%), 태국(6,700만 명, 0.7%), 파키스탄(1억 9,000만 명, 0.6%), 중국(13억 4,300만 명, 0.5%), 대만(2,300만 명, 0.4%), 일본(1억 2,750만 명, 0.36%), 방글라데시(1억 6,100만 명, 0.27%), 네팔(2,900만 명, 0.05%), 북한(2,450만 명, NA), 몽골(310만 명, NA)이다.

어떤 아시아 교회도 줄 것이 없을 만큼 작거나 가난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아시아 교회도 받을 것이 없을 만큼 크고 강하지 않다. 필리핀, 인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다섯 나라는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나라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교회 규모나 신자수와 상관없이, 각 지역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선교에 불리움을 받은 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4.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은 아시아주교회 의연합 (FABC)이다. FABC의 기원은 1970년 마닐라에서 교황 바오로 6세와 함께 180명의 아시아 주교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오로 6세가 FABC 규정을 공식 승인한 것은 1972년 11월 16일이었다. 40년에 걸쳐 나온 FABC 문서들은 아시아 교회의 선교, 신학, 대화, 교회론, 복음화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고 원천이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구인 FABC는 공의회 가르침을 진정하게 지역적으로 수용하도록 촉진하여,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구체화했다.

FABC는 아시아 내의 18개 주교 회의로 이뤄진 다국적 주교 기구이며, 준회원국으로 10개가 있다. 따라서 총 28개 나라가 FABC를 구성한다. 하나의 중앙 조직 외에도 9개의 FABC 사무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목적에 알맞게 분산돼 있는 사무국들은 복음화, 매스컴, 평신도와

가정, 인간발전, 교육과 신앙 양성,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신학적 관심사, 성직자, 수도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런 사무국들은 각자 아시아 교회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인간발전사무국, 복음화사무국, 종교간대화사무국, 신학사무국이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FABC의 최고 기구는 약 4년마다 모이는 총회이다. 회원 주교회의 대표단과 FABC 사무국의 공식 참가자와 더불어, 자문으로 초대받은 참가자들도 많다. ‘주교가 아닌 사람들’이 종종 전체 참석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열 번의 총회 장소와 일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 1차 총회 “오늘의 아시아의 복음화”(1974년 대만 타이페이), 제 2차 총회 “기도-아시아 교회의 생활”(1978년 인도 콜카타), 제 3차 총회 “교회-아시아의 신앙 공동체”(1982년 타이 방콕), 제 4차 총회 “아시아의 세계와 교회에 있어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1986년 일본 도쿄), 제 5차 총회 “제 3천년대를 향한 공동 여정”(1990년 인도네시아 반둥), 제 6차 총회 “생명에 대한 봉사, 현대 아시아의 그리스도 제자직분”(1995년 필리핀 마닐라), 제 7차 총회 “아시아 교회의 쇄신: 사랑과 봉사의 사명”(2000년 타이 샴프란), 제 8차 총회 “완전한 생명 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2004년 한국 대전), 제 9차 총회 “성체성사로 사는 아시아”(2009년 필리핀 마닐라), 제 10차 총회 “아시아의 도전에 응답하는 FABC 40년”(2012년 베트남 호치민시)이다.

FABC는 지역 주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화시켰으며, 아시아 교회와 그 복음화 사명에 대한 공동의 전망을 이뤄내는데 기여해왔다. FABC 신학의 기본 방향이 1974년 첫 총회에서 제시되었는데, 아시아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진실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민중(특히 가난한 사람들), 문화, 종교와의 삼중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실질적인 전망이 30년 넘게 FABC를 이끌었다. FABC를 통해 아시아 교회의 교회론과 선교학이 확립되었다. 아시아의 상황과 도전에 독특하게 적응시킨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 생겨났다. FABC는 ‘아시아의 성령 강림’을 촉진시켜온 것이다!

FABC 문헌의 방대한 양과 그것이 제공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살펴보면, 우리는 교회와 선교활동에 기본적인 양식이나 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이 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서술할 수 있다.

- (1) 지역 교회는 항상 전 과정에서 활동 ‘주체’이거나 ‘주인공’이다.
- (2) 참여하는 ‘태도’는 항상 대화, 곧 서로간의 상호적인 선교 대화이다.
- (3) ‘대화 상대자’는 아시아 민중,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아시아의 무수한 문화와 아시아의 신망있는 종교 전통들이다. 이는 아시아 교회에서 아주 잘 이뤄지고 있는 그 유명한 FABC의 ‘삼중 대화’이다.

5. 주님을 알지 못 하는 이웃들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의 제임스 크로거 신부 발표를 계속 인용한다. 1974년 제 1차 FABC 총회에서 나온 “오늘의 아시아의 복음화”라는 체계적인 문헌은 이 삼중 대화의 개요를 서술했다. “지역화되고 토착화된” 진정한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살아있는 전통들, 문화들, 종교들과 더불어, 요컨대 그 백성의 모든 생활 현실들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겸손하고 친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백성 가운데서 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백성의 역사와 생활을 교회가 기꺼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교회는, 참으로 그 백성에게 속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 의미와 그 가치에, 그 열망에, 그 사상과 그 언어에, 그 노래와 그 예술에 참여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그 약점과 과오까지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도 고쳐질 수 있도록 한다. 하느님의 아들께서도 우리의 타락한 인간 조건을 죄만을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주시어 그것을 참으로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시었고 당신의 빠스카 신비 안에서 그것을 속량하시고자 하시었기 때문이다.”(제 1차 FABC 문헌 12 항)

이어지는 FABC 총회에서 확인했던 이 ‘삼중 대화’라는 접근법, 그리고 더 중요한 사목 선교 실천은 지역 교회, 대화, 아시아 민중과 이들의 현실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중심으로 삼는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오해를 없애려면, 아시아 교회가 대화의 접근법을 위해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도 수반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FABC가 이를 의문시한 적은 결코 없다. 아시아 예수회 신학자인 카탈리노 G. 아레발로(Catalino G. Arevalo)는 이러한 헌신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화의 중심이고 기본 요소이고, 그게 빠지면 다른 모든 요소들은 응집력과 타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음화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있어, 아시아인들은 복음화의 접근법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했다. <아시아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신앙은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나누어야 할 선물이다. 그것은 교회가 아시아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아시아 교회〉 10b 항).

“아시아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선물을 간직하고 있는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아시아의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아시아 교회〉 19c 항)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소개하는 일은 사람들이 점차 그 신비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교육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아시아 교회〉 20f 항)

“이러한 전망에서 주교대의원회의 교부들은 아시아 민족들의 감수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아시아의 정신과 문화들의 맥락에서 이해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성서와 전통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제시하였다.”(<아시아 교회> 20g 항)

의심의 여지없이, 굳건한 선교 노력은 아시아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그들은 하느님 사랑으로 타오르는 거룩하고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관점이 <아시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알려지시고 사랑받으시고 사람들이 따르도록 선교 열정으로 불붙은 공동체”이다.(<아시아 교회> 19a 항)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어떤 것을 통해서만 타오를 수 있다.”(<아시아 교회> 23b 항)고 교회는 이해한다.

예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신 분이요 “아시아의 교회는 이 불이 지금 타오르기를 바라는 열망을 함께 나누고 있다(루카 12,49 참조).”(<아시아 교회> 18c 항) 아시아 교회는 예수를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자 하는 바램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삼중대화” 접근법을 통해 “불이 타오름으로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로 존재한다”는 에밀 브룬너(Emil Brunner)의 금언을 참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정말로 이것은 아시아 종교에 대한 놀라운 긍정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거의 40년 전인 1974년에 FABC가 이 비전을 표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종교간 존중과 대화의 전망을 촉진하기 위해, FABC는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사무국(OEIA)을 설치했다. 이 사무국은 진정한 대화를 증진하는 여러 활동들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 OEIA는 1978년부터 시작한 몇 차례의 “종교간 대화 주교 연수회”[BIRA]를 고안해냈다. 제4차 BIRA의 경험에서 나온 몇 가지 통찰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대화는 모든 종교에서 성령의 활동을 드러낼 수 있다.
- 대화는 또한 교회일치적인 차원/접근을 수반해야만 한다.
- 아시아에서 대화는 “모든 복음화의 필수적인 방식”이다.
- 대화는 “개종 전략이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 FABC는 진정한 ‘삶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아시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대화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
- 역사적인 문제/어려움을 인식하고 초월할 필요가 있다.
- 대화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계획인 하느님 나라”를 촉진한다.
- 대화는 “기도와 명상을 깊게 하는 삶”을 요구한다.
- “종교간의 평화 없이 국가 간에 평화는 불가능하다.”
- 대화는 “세상의 조화를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구상”을 촉진한다.
- 교회로서 우리는 “조화와 화해의 진정한 전령사”가 되어야 한다.

FABC는 다양한 대화 계획을 촉진시키는데 특히 적극적이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987년 FABC-TAC가 출판한 '종교간 대화에 관한 논문'(TID)이라는 종합적인 문서이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TAC 최초의 문서였다.

대화는 무엇보다도 실천이지만, 이런 활동을 성찰하게 될 때 그것은 또한 신학적 비전, 특히 종교 신학에 이끈다. 이런 통합된 비전과 접근법은 이런 FABC의 대화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의 제임스 크로거 신부 발표 인용을 마친다.

전략: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가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해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라틴아메리카 선교 500주년 기념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정기총회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특히 급격한 사회 변동과 종교적 무관심, 세속주의, 무신론의 영향으로 발생한 신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복음화 노력이다. 이를 위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0년 9월 21일 교황청에 ‘새 복음화촉진평의회’를 신설했다.

새로운 복음화는 경제적 자유와 같은 복음화 환경을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의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는 ‘가난한 자’와 ‘약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 절실하다. 하느님께서 심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 즉 하느님의 뜻에 부응해야하는 인간 쪽에서의 세상 다스림 의무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뜻한다. 경제적 자유는 경제학의 기초를 다지던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때부터 이어온 경제학의 전통이다. 자유선택, 자유거래, 자유무역의 효용을 아는 경제학도는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자다. 자유에는 지나친 자유가 없다.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억압이 있을 뿐이다.

프레이저연구소 세계경제자유도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는 세계 각 나라의 경제자유도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는 세계경제자유도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를 매년 발표한다. 경제자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효율적인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2)법치주의와 재산권 보장, (3)화폐 가치 안정, (4)국제무역의 자유, (5)금융시장 규제 철폐, (6)노동시장 규제 철폐, (7)기업 활동 규제 철폐에 기초한 평가지표를 작성한다.

경제자유도가 10 이면 최고의 수준이고 0 이면 최악이다. 2012 년에 발표한 2010 년도 경제자유도 점수와 144 개국 평가순위는 한국이 7.40(37 위)이고, 홍콩 8.90(1 위), 싱가포르 8.69(2 위), 미국 7.69(18 위), 일본 7.64(20 위), 독일 7.52(31 위)이 우리보다 높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모두 중국 6.35(107 위), 베트남 6.54(96 위), 러시아 6.56(95 위)에서 보듯이 하위권이다. 북한은 데이터가 없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세계 최하위인 짐바브웨 4.35(142 위), 미얀마 4.29(143 위), 베네즈엘라 4.07(144 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한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잘 산다고 주장한다. 화폐가치 안정을 보면 경제 자유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이자율(금리)이나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과열을 진정시키는 정책이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 공개시장조작 등이 수단으로 활용된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정부가 경기 조절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돈을 풀거나 조이는 재량적 정책의 경우 통화가치의 불안정을 초래해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 등 통화주의 학파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은 준칙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준칙적 통화정책이란 일정한 준칙(기준), 예를 들어 통화량이나 이자율에 따라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다.

경제학에 던져진 오랜 숙제는 경제의 ‘성공방정식’, 즉 무엇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부존자원’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반드시 잘사는 것은 아니다. 풍부한 부존자원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른바 ‘부존자원의 역설(逆說)’이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 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중동 산유국들이 그러하다.

新(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의 원천’에 주목했다. 경제성장을 가져다준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성장요인의 기여를 정량화한 것이다. 기술수준과 자본축적, 인적자본의 투입 정도가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해 자본축적을 피하고 교육투자를 늘려 인적자본의 질(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정책적 시사점은 명료해 보이지만, 실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라’는 식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내재된 유인과 동기를 간과하고, 경제성장을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 좁게 봄으로써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1993 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 교수는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새롭게 조명했다. 노스 교수가 제도적 관점에서 영국 식민지와 스페인 식민지의 현재를 비교한 내용은 흥미롭다.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캐나다·호주의 생활수준은 스페인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 같은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노스 교수는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었는지 여부에서 찾고 있다. 영

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의 권력이 약했고 법치주의가 잘 지켜졌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자유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왕의 권력이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이 제대로 보호될 리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식민지로 이어졌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의 국민소득 배증은 생산요소 투입 증가를 통한 '양적 성장'의 문제다. 이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어떻게 발휘하게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었다. 그러나 1인당 4만 달러 소득은 2만 달러 소득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

경제운영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중심이어야 한다. 이는 4만 달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발연대식 정책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함을 시사한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철칙을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장정합적 제도장치를 갖춰야 한다. 결국 4만 달러 소득달성의 관건은 '정책사고의 전환'과 '시장경제 시스템의 정비'로 압축될 수 있다.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을 위한 '전략'에 앞서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의 '조건'을 유추하는 것이 나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가진 공통된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면 '조건'의 대리변수로 삼을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간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경제자유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 시사'가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즉 경제자유도를 높인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경제자유도를 가진 국가라도 '상이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험적으로 두 변수 간에는 '안정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에 안정적인 '양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려면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가 최대한 허용될 때, 시장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예컨대 '반부패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아진다. '노동시장 자유도'가 높아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산업의 자유도'가 확보돼야 금융부문의 실물에 대한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희소한 금융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시장'이 답이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의 국민소득 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역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및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고소득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국이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출규모’도 마찬가지다.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가 커서 고소득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국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4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노스 교수의 비판대로 ‘동의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면 개발연대식 정책사고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신성장동력이 선물로 주어질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은 경쟁이라는 ‘발견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찾아지며, 성장잠재력도 시장경제의 경쟁과 유인 체계에 의해 비로소 확충되기 때문이다.

4만 달러 국민소득은 결국 경제자유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달성 가능해진다. “시장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구축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지출 규모’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친화적 규제개혁도 종국적으로는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동아시아 복음화 전략과 북한복음화

경제적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동반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선택이 자유로울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못살고 홍콩이 잘 사는 이유는 홍콩이 북한보다 매우 자유롭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 없이 경제적 자유는 없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모두 중국인의 나라지만 자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홍콩이 중국을 배우지 않고, 중국이 홍콩을 배우고 있다.

한국이 성장하려면 아시아를 도와야한다. 아시아가 가장 큰 한국의 무역 상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전해야 한국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이 발전해야 일본이 지금의 침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중국과 러시아 어느 나라하고도 선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같은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인 경제적 동맹관계를 만들고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 이들 나라들의 국민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이 성공이 보장되는 통일 전략이다. 우리는 우리의 혈족 북한을 얻기 위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섬겨야 한다.

새 복음화 평신도 사도직 전략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복음화이지만, 그 전략적 과정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들을 통해, 핵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아시아 복음화 전략인 것이다. 그림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다양한

경제자유는 더 빨리 신장되며, 따라서 복음화 속도는 더 빠르다. 경제적 자유가 복음화를 촉진한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더욱 활성화된 새로워진 복음화 전략들을 살펴본다.

6. 굶주림과 박해의 칼날 아래서도

예수회 ‘기도의 사도직’

복음화 전략의 핵심은 기도다. 매일 매일의 기도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는 묵상기도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가 ‘기도의 사도직’이다. 현재 예수회 후원회 부위원장과 이냐시오 카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손우배 신부는 2005 년 이래로 ‘기도의 사도직’ 한국 담당자(national director)로서도 활동해오고 있다. 지난 10 월 인도 마두라이(Madurai)에서 개최된 ‘기도의 사도직’ 지역구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예수회 손우배 신부는 말한다..

‘기도의 사도직’은 자신의 일상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모임이다. 1844 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래로 현재 80 여 개국에 4 천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양성 중에 있는 예수회원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당장의 학업에 몰두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그들의 영적 지도 신부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라고 지도하기 시작했다. 일상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모든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기도와 일상을 통합하는 영성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기도의 사도직’의 정신은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living in prayer)”이다. 그것이 바로 일상과 신앙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현존을 찾고자(Finding God in ordinary life)’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영신수련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의 사도직’ 회원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기도의 사도직’ 회원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성심께 자신을 봉헌하며 매달의 교황님 기도지향을 위해 아침 봉헌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하루를 하느님 현존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녁 성찰기도를 권장한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하느님 현존 안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도의 사도직은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활발하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기도의 사도직’의 청소년 조직인 E.Y.M(Eucharistic Youth Movement)도 무척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기도의 사도직’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제 200 년 가까이

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소화 데레사 성녀도 ‘기도의 사도직’ 회원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기도의 사도직’이 무척 활성화되어 있다. 인도 마드라이 관구에는 인도의 ‘기도의 사도직’ 총본부 역할을 하는 센터 건물까지 두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기도의 사도직’ 회원 수가 최대 300 백만 명이 되었던 적도 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신앙과 일상의 괴리를 느끼고 있는 신앙인이 무척 많다. 그런 이들에게 ‘기도의 사도직’을 통해서 일상과 신앙을 통합하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것은 예수님 사랑의 현존 안에 머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예수성심의 사랑에 머무는 것을 일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체성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기도의 사도직’은 평범한 일상에서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을 성체성사와 일치시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성사를 일상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한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기(Finding God in All Things)’ 또는 ‘활동 중의 관상(Contemplation in Action)’이라는 예수회 영성과도 통하는 것이다.

교황님의 매달 기도 지향이 ‘기도의 사도직’과 관련이 있다. 각국에서 ‘기도의 사도직’을 담당하고 있는 예수회원들이 교황님의 기도지향으로 삼을 주제를 로마로 보낸다. 그렇게 모아져서 정리된 기도주제들이 교황님의 결재를 받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황님의 매월 특정 기도지향으로 발표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교회와 세상의 필요를 위해 교황님과 함께 기도드리는 것은 ‘기도의 사도직’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 ‘기도의 사도직’이 교황 친위의 기도단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찍이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예수성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도직’과 보속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수차례 강조하신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의 사도직’이 1993년에 박문수 신부가 ‘기도의 사도직’ 한국 담당자로 임명되면서 ‘사랑의 고리’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도의 사도직’ 영성을 보급했다. 주로 예수회센터의 금요침묵피정에 모이는 사람들과 예수회 후원회들을 중심으로 ‘기도의 사도직’을 알리고 있다. 다음 카페에 등록된 회원만 천명이 넘는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기도의 사도직’ 회원이 5천명은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카페에 꼭 등록하거나 하지 않아도 ‘기도의 사도직’ 회원이 될 수 있다. 마치 묵주기도처럼 보급하는 신심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은 예수회가 시작한 신심이기도 하다. 교회 안에서 예수성심 전파에 예수회가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예수성심께 나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봉헌하는 신심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왔다. 나의 하루와 일상을 예수성심께 봉헌한다는 ‘기도의 사도직’의 정신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에게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수성심께 나의 하루를 봉헌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자동차 운전석을 맡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보통은 내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예수님을 태운다.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길을 잃어버려 헤매게 되면 예수님더러 차에 타라고 한다. 봉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차를 운전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저 함께 타고 가는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봉헌이다. 살아보면 주어지는 환경이 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주어지는 환경을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다. ‘기도의 사도직’ 회원이 바치는 아침 봉헌기도문에 ‘나의 모든 기도와 일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봉헌한다’는 구절이 있다. 내 모든 일상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봉헌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7. 용기를 지고 목주 알을 굴리며 복음을 전파함

친교의 교회 소공동체 운동

평신도 사도직은 교계(敎階)에 의하여 주어진 위임(mandatum)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의 일치(일치)를 일상생활 안에서 더욱 깊고 생생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 모든 사도직의 원천과 기원은 그리스도이므로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산 일치에 달려 있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4항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론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에 바탕을 둔 ‘친교의 교회론’이다. 친교는 “그리스도인 각자와 그리스도의 친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친교”를 뜻한다.

사도직은 본시 그리스도의 직무이며(1고린 1,1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직무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안수와 파견을 통해 계승되는데, 직무를 계승한 자들은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수의 사명과 사도의 사명을 구현한다(요한 20,21 참조). 교계적 사도직은 성품 성사에 의하여 계승되지만, 평신도 사도직은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에 근거하여 평신도들의 참여로 수행된다. 교계적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며 세상 안에 복음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수행한다.

역사 속에서 사도직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직 단체들도 매우 다양하다.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특별히 복음화와 성화를 목적으로 삼고, 어떤 단체는 현세질서의 그리스도화를 목적으로

추구하며, 어떤 단체는 자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9 항 참조).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발기하여 운영해 나가기도 하고, 교회의 권위자가 영적 목적을 지향하는 사업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특별히 추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소공동체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지향한다. 소공동체는 사도직 운동 혹은 사목적 전략이 아니다. 소공동체는 신심 단체 혹은 수도회 활동도 아니다. 소공동체는 교회 자체로 존재한다. 『교회헌장』에서 교회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신비체’로 정의된다.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표지’이다.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인데 즉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가 하나된 공동체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 주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 소공동체가 제안되는 것이다.

소공동체는 교회의 쇄신과 새로운 방향의 사목을 요구한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지향한다. 위로부터 하향식의 수직적인 교회 구조를 탈피하여 하느님 백성들이 서로 평등하게 인격적 친교를 이루는 수평적 교회로 나아간다. 교계 제도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에서 그 권위의 근거가 주어진다. 사목자들은 이제 관리자나 교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목자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다. 소공동체 사목은 단순히 교회가 대형화 되고 도시 본당이 비대해져서 신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다. 소공동체는 현대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지대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버림받은 자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랑을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

8. 순교 선열들의 열정을 본받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빈첸시오회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 회원들은 희망을 품고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빈첸시오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와 사회에서 가장 배척받는 자들에게 활동의 우선순위를 둔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가난한 이웃 안에 계시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형제적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평신도 단체이다. 세계 150 여개국에 1,000,000 명 에 달하는 남녀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조직체이며 회원들은 매주 시간을 할애하여 이웃을 도움으로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다.

본회는 교황청의 인가와 교권으로서 운영한다. 창설자 프레데릭 오자남(Frederic Ozanam, 1813-1853)은 1833년 프랑스 파리에서 '자선 협의회'를 세워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1835년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로 개칭하였으며, 1845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로부터 평신도 단체로 승인 받았다.

한국 빈첸시오회는 1955년 충주 교현 본당 주임 보어(Borer, 玉保乙) 신부가 시작하였고, 1961년 1월 29일 총 이사회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교구 이사회(청주, 1963년; 서울, 1967년; 마산, 1971년)가 생기고 1975년 전국 이사회가 창립되었다. 지금은 14개 교구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전 교구 산하 488개 협의회에 활동 회원 5,734명과 명예 회원 29,946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빈첸시오회는 규모가 큰 사도직 단체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가난한 이들 가운데 뿌리내리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 왔다. 빈첸시오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삼는다. 회원들은 본당별, 지구별, 교구별로 환자 방문과 입원 주선, 극빈자 가정 방문과 물적 지원, 교도소 재소자 및 사회 복지 시설 방문, 가출 청소년 지도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1989년부터 간병인회를 만들어 간병인들을 성모 병원에 파견하였다. 1996년에는 행려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 '성 빈첸시오 사랑의 집'을 서울에 개설하였고, 행려자를 위한 단기 이용 시설, 알콜 중독자 선도, 북한 동포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곤경에 처한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회원들은 우선 본당 사목 활동에 대한 일반적 봉사에 협조하고 본당을 거점으로 사회 안에서 고통 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빈첸시오회의 조직은 본당 안에 구성된 협의회를 기본 조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남성, 여성, 혼성, 청소년 협의회가 있다. 지구 단위의 지구 이사회를 비롯하여 교구 이사회, 전국 이사회가 있으며 이들은 파리에 있는 총 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룬다. 매주 1회 회합을 갖는 협의회에서 기도와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협의를 한다. 회원은 매주 회합에 참석하고 직접적인 만남으로 애덕을 실천하는 활동 회원과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명예 회원으로 나뉜다.

9.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불태워

레지오 마리아와 레지오 사도직

레지오는 평신도를 그 단원으로 삼아 사제들과 일치하고 사제들의 지도를 받아 사제들과 전적으로 똑같은 관심을 지니고 활동하게 한다. 레지오는 사제들의 노력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사제가 차지하는 자리를 넓혀, 사람들이 사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이들을 보내신 하느님을 받아들일도록 온갖 열성을 다 바치는 것이다. “정말 잘 들

어 두어라.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요한 13, 20)

다른 여러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도직도 그 자체로서는 다소 냉정하고 추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평신도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심한 경우에는 사도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위험성마저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펴고 있는 싸움에서 평신도가 반드시 말아야 할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으로서 아프리카 주재 교황 사절이었고 그 후 중국에서 교황 대사를 지낸 리베리 추기경(Cardinal Riberi)의 말씀을 들어 본다.

“레지오 마리아는 참으로 매력적인 형태의 사도직 활동이다. 레지오는 활기에 찬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교황 비오 11세가 정하신 방법, 즉 하느님의 동정성모께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레지오는 단원의 질적인 면을 중시하여 이를 밑바탕으로 삼으며, 단원 수를 늘리는 데에도 요긴하게 이 방법을 활용한다. 레지오 마리아는 많은 기도와 자기희생, 정밀한 조직 체계, 그리고 사제와의 온전한 협력을 통하여 튼튼해진다. 레지오 마리아야말로 현 시대의 하나의 기적이다.”

레지오는 정해진 규율에 따라 사제에게 존경과 순명을 드리지만,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레지오 사도직이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와 성사를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로로 삼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레지오의 모든 노력과 활동의 방법은 병들고 굶주린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 활동의 근본 원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제를 모셔다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항상 사제를 직접 모셔 가기는 사실상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지오가 할 일은 사제의 영향력이 어느 곳이나 미치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레지오 사도직의 기본 사상이다.

한국 레지오 마리아는 1953년 도입된 이래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큰 축을 형성해 왔다. 레지오 마리아는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1958년 진출)와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1978년 진출)를 중심으로 현재 27만 여명의 행동 단원과 3만 500여개 프레스비디움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레지오 마리아가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한국 전쟁 직후 교회는 전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광주 교구장 서리였던 현 하롤드 주교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것이 교회 성장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초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 발전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초대 신자들의 불타는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전교의 사명을 이행함에 있

어서 소극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성직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관한 모든 사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신비체의 참된 지체로써 교회 사업에 있어서 달리 대처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 하롤드 주교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시기에 이미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한국 초기 천주교 평신도들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 레지오의 도입을 꿈꾸고 있었다. 현 주교는 평신도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기 위한 틀로서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하였다. 1953년 목포에서 3개의 뿌레시디움으로 시작된 레지오 마리아는 1956년 전국적으로 소개되었고,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1965년경에는 8백여 개의 뿌레시디움이 생겨났다. 1979년 광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나투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200만 신자화를 위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1986년부터 300만 신자화를 위한 민족 복음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그러한 성장세가 갑자기 둔화되고 1992년 말을 기점으로 레지오 단원들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레지오 마리아는 정체 상태에 들어선다. 통계를 보면 행동 단원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다가, 2002년 9월에 28만 5468명에 달하던 행동 단원이 2003년 3월 현재 27만 2258명으로 집계돼 6개월 만에 단원 1만 321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천 명 이상 늘던 단원 수가 한국 레지오 역사상 처음으로 1만 명 이상 떨어진 것이다.

신영성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한반도에서도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요청되는 사도직이 있다. 전략에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리는 원리로 대응해야 한다.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대적해야 한다. 사탄의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당할 때 쓰신 방법이였다. 구체적으로 신영성 운동의 사상에 대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도직 수행을 요청받는다.

첫째, 태초부터 있어왔던 ‘뱀의 음모’가 신영성 운동의 본질임을 깨우쳐야 한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학문적이지 못하다. 다분히 근본주의적인 색깔을 띤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신영성 운동가들의 주장은 공공연히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다. 뱀이 아니고서야, 사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점을 그리스도교인들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묘한 것은 신영성 운동가들도 그리스도교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 개념을 왜곡하여 오류에 빠트린다. ‘하느님’을 그들은 비인격적인 실체요 모든 것에 충만한 에너지로 설명한다. ‘성령’을 창조적, 정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뉴 에이지의 스승이며 자신이 하느님임을 깨달은 계몽된 인간으로, ‘사람’을 내적으로 선하고 신성하며 시간과 영원에 필요한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 ‘죄’를 자신 안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죽음’을 사람이 하느님, 곧 우주의 편만한 에너지와의 융합을 체험하고자 하는 순간으로 왜곡하여 그리스도교

사상을 소멸시켜버린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영적 스승을 찾고 의식을 변용을 추구하면서 사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자신을 방치하게 한다. 삶의 기초를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에 둬으로써 절대 진리를 거부한다. 결국,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에페 6,12) 문제의 본질은 교회와 신영성 운동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데 있는 것이다.

둘째, 식별해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권고를 따라 ‘옳고 거룩한’ 흐름에 대해서는 기류에 동승하고 선도하되, ‘오류와 죄악’의 물살에 대해서는 저지 또는 방향전환을 도모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이 접근법은 ‘식별’을 통하여 분리(Separation), 보존(Conservation), 변형(Transformation) 간에 균형 있는 선택을 하기를 권한다. 물론 이는 교회차원의 대책이다. 신자 개인에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적어도 한국 천주교회 전체의 차원, 주교회의, 교구의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영의 식별을 한다: ‘영의 식별의 은사’ (1 요한 4,1; 1 고린 2,13)를 통하여 신영성 운동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영성 운동은 학문의 전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평신도 전문가들의 진지한 연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양의 종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주의적인 수행방법들에 대한 성찰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토대로 복음의 빛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분리할 것은 분리한다: 밀교(비교) 의식, 접신술(강신술) 등 ‘가증한 것들’(신명 18)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오류에 빠진 문화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1 요한 2,15) 예수께서는 버림받은 자, 죄인들과 함께하셨지만 그는 어떤 종류의 문화적인 죄에도 타협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죄악과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의 길을 택해야 한다.

(3) 보존할 것은 보존한다: 신영성 운동과 관련된 문화가운데에도 ‘옳고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그리스도교 심리학자와 뉴 에이지의 심리학자 양자 모두는 유물론에 반대한다. 인간은 어떤 기계나 동물보다도 가치 있으며, 그러한 인간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즉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거짓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부분적

으로 들어와서 내세울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참된 것까지 몽땅 거짓된 것이라고 몰아세운다면 심각한 오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 죄와 오류에 빠져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과 진리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처럼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능력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고, 복종시켜 쓸모 있게 만들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초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부름 받았다.우리가 악에서 분리되고 그것을 저주하는 것은 소극적 반응이 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포기해 버리면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취할 것이다. 주님의 기도에서처럼 '하느님의 나라'가 죄와 오류로 얼룩진 교회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을 성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저 유지되고 보존되는데 그친다면 교회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수고를 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성사가 되어야 한다. 역사는 크리스찬의 역동적인 힘이 세계를 변화시켰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세계를 변형시키고 서구 문명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후에도 그리스도교는 정치적, 종교적 자유의 획득과 문학, 교육, 예술, 예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노예제도의 폐지, 낙태금지 등의 사회개혁을 주도하였다. 어떠한 경우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분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개선하고 변형시키고자 하는 소명(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영성 운동에 대한 교회 사도직의 대응책에 관련하여 레지오 마리아 교본은 다음과 같은 전망을 담지하고 있다.

(1) 첫 번째 대응책, 곧 영적싸움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교본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인간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며, 그것도 매우 극심한 투쟁이다."(사목 헌장 13) (교본 p.23) 신영성운동과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명백히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의 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싸움터에 과감히 뛰어들어 주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스러운 명령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자."<교황이며 순교자인 클레멘스 성인(St. Clement)이 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36장과 37장, 서기 96년>(교본 p.29)따라서, 21세기 레지오 마리아는 신영성 운동이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하고 이 싸움에서 감연히 앞장설 것임을 자신의 사명으로 자각한다.

(2) 두 번째 대응책, 곧 식별의 요청에 대하여 교본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여러분은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해야 한다. 축소하면 약해지고, 절단하면 불구가 된다. 각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를 이루므로,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서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뉴만 추기경 / Cardinal Newman : 발전에 관하여) (교본 p.196) 이것은 진리의 판별기준이다. 따라서, 21세기 레지오 마리아는 오류, 왜곡, 반그리스도로 몰고 가는 신영성 운동의 혼합 노선을 단호히 척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자각한다.

(3) 세 번째 대응책,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교본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에페 6, 11)”(교본 p.29) “레지오 단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므로 하늘나라의 전략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참된 레지오 단원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오로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는 영성의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른다. 특히 이 잿더미 속에는 겸손의 덕이 들어 있는데, 세상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외시한다. 이러한 겸손의 덕은 고귀하고 굳세어, 이 덕을 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없는 기품과 힘을 가져다 준다.”(교본 p.50)

따라서, 21세기 레지오 마리아는 하느님이 주시는 무기와 겸손으로 완전무장하여 ‘영적싸움’에 임할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자각한다.

10.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꾸르실료운동과 환경복음화

꾸르실료 운동은 1949년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에 전수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직후인 1967년이었다. 후안 에르바스 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꾸르실료 운동은 처음에는 성직자가 주도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다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 일깨워지면서 꾸르실료 운동은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 꾸르실료 운동이 도입되던 1960년대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대체로 신자들은 소극적이고 타성적이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도직 수행은 성직자나 수도자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고, 신자들은 계명 이행과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꾸르실료 운동이 도입되었고 곧 신자 재교육의 장으로 그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꾸르실료가 교회 내의 지도자 단기 양성 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꾸르실료 운동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 내의 각 단체 책임자, 임원 및 사목위원 등 대부분의 평신도 지도자와 성직자,

수도자들이 꾸르실료를 체험하고 교회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교회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효과적인 활동이 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명감 있는 크리스찬들이 수행하는 활동일 경우 그 활동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의 필요성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꾸르실료한국협의회, 꾸르실료운동의 기본사상, 1996, 175 항)

교회의 사목적 사명을 대행하고 있는 꾸르실료운동은 그 활동에 생명을 주고 있는 사고방식(정신적 바탕)에 충실한 어떤 방식으로, 그 독특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꾸르실료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꾸르실료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꾸르실료운동이 의존하고 있는 요소들을 평가하고 잘 이용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략, 즉 꾸르실료운동의 종합 활동계획이다.(176 항)

꾸르실료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들의 환경에 대해 어떤 자연적인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요한 사람들, 가능하면 그룹으로)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것(진지한 회개와 개인적 및 공동체적 크리스찬 생활에 끊임없는 쇄신)을 (직접 목적으로 삼아)생활할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식을(말과 증거에 의해) 케리그마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수행된다.(177 항)

그러므로 꾸르실료운동의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행위자는 언제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고립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선발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기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룹의 일원으로 선발된 사람- 자기의 환경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다. 왜냐하면 꾸르실료운동이 변화시키기로 선택한 구체적인 분야는 환경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의 그리스도화를 가장 신속하게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구체적인 절차는 자기들의 환경에 자연스럽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계속 활성화하고 회개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꾸르실료운동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을 뒷받침 하고 가속시키지만 결국 그 일은 영성적으로 새로워진 각자에 의해서 달성된다.(178 항)

이 점에 대한 꾸르실료운동의 전략은 인간들이 반듯이 그룹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한 근거 위에서 복음화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경을 가려내어 우선권을 줄 수 있다.(181 항)

환경 속에 침투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크리스찬 그룹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꾸르실료의 전략이고 꾸르실료의 전략적 계획의 기본이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은 꾸르실료운동의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연구팀들

은 선택된 각 환경에 대해 사전 연구를 한 결과에서 비롯될 것이며, 각 구성원이 문제를 환경 속에서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것이며, 그들의 구성원들 사이에 필요한 단결과 일치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것이며, 그들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것이다.(182 항)

두 번째 단계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 이들은 어떤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그리스도화를 신속하게 또한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확실한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불만을 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선의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183 항)

전심전력으로 하는 선택, 이 선택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과 그 사람 신앙 사이의 어떠한 불일치도 피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 사람의 실존적 중심이 크리스찬 신앙이 되도록 변화시켜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 가정, 사회생활 등 - 모든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가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복음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 자신의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와) 결합하여 성화될 어떤 기회를 가질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186 항)

이 모든 것은 성직자단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다. 주교님은 그의 교구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목활동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꾸르실료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주교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꾸르실료운동 전략의 일부이다.(195 항)

꾸르실료운동은 크리스찬들이 현대생활의 뿌리까지 내려가 주 예수의 가르침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들을 찾아내어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처럼 독특한 형태의 사도직 전략은 처음부터 교회에 큰 도움을 주어 왔다. 그것은 복음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경을 분별해 내는 일에 공동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위해 복음 전파자들 또한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198 항)

11.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함

한국평협과 시복·시성 기도운동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전국 단위 운동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면서, 복음적 사도의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그 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시작한 한

국 순교자 124 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등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통해서 각 교구 평협과 운동 단체들의 협력과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평협은 발족 당시부터 교회 창설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과 103 위 순교 복자들의 시성 운동을 제창하면서 기도운동을 벌여왔고, 그 결실로써 1984년 한국교회 200주년에 즈음해서 교황님을 모시고 시성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순교자성월에 발표한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 답화는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예방했을 때 추기경은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 청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시복 시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복 시성을 간절히 바라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원의의 표출이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순교자들의 순교 명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평협이 전개하는 이 기도운동에 모든 신자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 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벌이면서 한국평협은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원의를 맡겨드리면서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씩 바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따르셨던 성모님이야말로 평신도 사도직의 모범 중의 모범이시다.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는 이 기도를 열심히 바쳐야한다.

우리가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 시성을 청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순교한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느님 곁에서 천상 복락을 누리고 계시다. 그분들의 시복 시성을 염원하는 것은 우리도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고, 순교한 그분들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우리 평신도는 누구나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각자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고유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맡은 성직자들의 사명보다 더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평신도는 직업에 충실해야 하고, 기도생활과 사도직 활동,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함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평신도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교육과 특히 사회 홍보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 평신도의 몫이다. 우리 평신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하고,

사회정의와 덕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힘쓰는 사람들이다.

12. 언제 어디서나

사회교리와 정의평화운동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는 지난 7월 13일자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에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사회교리 주간’을 제정하자고 청원했다.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마치 별집을 쭉셔놓은 것처럼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의 해고노동자 문제, 해병대 문제, 무상급식 문제 등 정치사회, 언론과 환경 관련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4대강 문제에 가톨릭교회가 주교회의를 비롯한 전 교회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노동, 환경, 생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톨릭단체들과 사제들이 연대하고 있으나,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규범적 요청에 대한 갈증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서울정평위)는 지난 5월 11일 ‘새로운 사태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와 사회’라는 주제로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레오 13세 교황)> 반포 1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논의를 거듭했는데, 이번에 후속보고서를 내면서 ‘사회교리 주간’(가칭) 제정의 긴급성을 호소한 것이다.

서울정평위는 사회교리 주간 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1974년 7월 25일에 발표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선언문을 인용했다.

“교회가 그 믿음에 입각해 가르치는 사회문제에 관한 교리를 어느 주교나 성직자나 신자든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우리 주교들과 뜻을 같이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바쳐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교회가 사회교의(社會教義)를 가르치고 실천할 자유는 바로 종교자유(宗敎自由)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서울정평위는 사회교리의 존재이유는 ‘복음화와 인간화’라면서, 사회교리는 “교회가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제시하며 세상에서 교회의 사목활동의 근본기준”이라고 말하며,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정책 하나하나를 공동선과 사회정의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평위는 ‘사회교리 주간’을 제정함으로써 “사회교리가 가톨릭교리의 핵심영역이 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기념하는 효과가 생긴다”면서, 이는 교회의 사회참여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고,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톨릭신학교에서 사회교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예비자교리와 견

진교리, 구역장 반장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다. 신자들이 사회교리를 배우면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건전한 시민단체를 통한 사회복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서울정평위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태>가 반포된 1891년 5월 15일을 기념해, '사회교리 주간'으로 매년 5월 둘째 주가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 주간에는 사회교리의 중요성과 교육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본당 사회사목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의 구현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는 통로이다. 정의 구현은 신앙에서 흘러나오며, 동시에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살고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친교 속에, 정의 구현을 더욱더 충만하게 통합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정의의 비전이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벗이며 주님이신 그분과 함께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예수회 제 34차 총회 문헌 교령 3 중)

인도 예수회원들의 활동을 소개한다.(<2012-2015 예수회 난민 봉사 전략계획서>발표) 2005년 6월 22일, 인도의 오리사 주 정부는 한 기업에게 4000 에이커 크기의 땅에서 1200만 톤의 철광석을 채굴할 수 있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까지 해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깨닫지 못했다. 12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사업이 오리사 주에 마치부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철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 지역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일곱 개 마을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철광석이 풍부한 그 땅 위에 3350 가구 22000명의 원주민이 삶터로 생활하던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역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땅이다. 원주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이자 생명의 터전인 이 땅을 지킬 가치는 충분해 보였다.

그리하여 원주민들은 기업을 향하여 그리고 정부를 향하여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원주민들의 기업을 향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주민들은 시위를 하며 저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친 상대는 기업이 아니었고 오리사 주 정부였다. 공권력에 의하여 그들은 체포기도 하고 심지어 유혈 사태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다가도 어느덧 사라지는 일이 무수히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정의를 부르짖었다.

결국 2011년 5월 2일, 인도 정부의 환경과 삼림 장관은 4000 에이커의 땅 중 3000 에이커의 땅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개발에는 날개를 달았으며 공권력에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기나긴 싸움에 절망할 법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부르짖고 있다. 저항하는 기간 동안 기업

은 한 번도 정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제 원주민들은 주 정부나 인도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다.

이 안에서 예수회원들은 그들의 벗이 되어 그들의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회원들은 원주민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서한을 배포하며 전 세계에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그들을 돕고 있다. 인도 예수회원들은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육화하여 가장 가난한 곳으로 오시듯, 이냐시오와 초기 동료들이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안으로 들어가듯 그렇게 원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강정 마을을 비롯하여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속에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 단지 현 상황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니며, 인도의 그들이 보여주듯 예수회의 정체성인 것이다.

13.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함

가정성화 영성 멘토링

홍근표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부국장·종로본당 주임)의 제안이다. 멘토라는 용어는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경험 많은 연장자가 연하의 동료나 신입사원에게 자신이 터득했던 지혜와 경험을 전해주는 선배로서 통용된다. 기업조직에서 멘토는 멘티(mentee)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전적 직무부여, 상담 및 조직에 대한 지식제공 등을 통해 멘티의 대인관계 개발과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로 이해된다. 이러한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이 현대 기업체의 교육훈련 및 조직몰입전략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급직원을 경험이 많은 선배직원과 연계시켜주고, 선배직원으로써 하여금 후배직원을 양성하는 책임을 부과해 주는 방법이다.

우리 교회에는 오랜 전통에서부터 이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왔다. 신앙의 전수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부터라는 의미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갓 태어난 유아들의 세례는 당연히 부모의 신앙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 부모들의 신앙전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 부모도 부족할 수 있어 대부모까지 세워서 영세자의 신앙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붙여 그 성인 성녀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세례명을 정하도록 하면서 개별적인 성인 성녀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시스템이 점차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또 심하게는 전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무너져 내렸다는 점이다.

새롭게 추가 조사 연구되어 하느님의 종 125 위를 교황청에 시복시성토록 청원을 올린 상태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들은 많지 않

은 듯하다. 반면에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와 의료봉사에 힘쓰다가 안타깝게도 일찍 암으로 투병하여 끝내 선종하고만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 그로인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외방 선교에 지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 준다.

멘토와 멘토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던 우리 교회였지만, 오히려 개신교에서 '1 대 1 제자교육' 프로그램으로 접목 발전시킨 것을 본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신앙의 표현이 필요함이 틀림없다. 우리 시대 신앙의 모범으로서의 멘토는 과연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그 멘토들을 신자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래서 풍부한 신앙의 전수 내용과 자료들이 새로운 멘토링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그 성과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겠다. '새로운 복음화'는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일 게다.

일대일 영성피정

예수회 김영택 신부도 일대일 피정 방식을 통한 이냐시오 영성 전파를 제안한다. 최근 들어,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기초로 한 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위 "이냐시오식 피정"이라고 불리는 피정방법이 성직자, 수도자 혹은 신학생들을 위한 피정이라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신도들에게도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피정을 동반하는 피정 지도자들의 이해와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피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을 "일대일 개인피정"방식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19 번에 의한 영신수련'에 따라 영성지도를 한다. 일대일 개인면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4 명까지 만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 월 초순에 <Orientations>라는 책의 번역을 마쳤고 교정을 맡긴 상태다. 또 지금은 결혼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또 캐나다 구엘프(Guelph)의 영성지도자 프로그램의 판권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영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6 명의 영성지도자를 양성했고, 지금은 2 명을 양성하고 있는데, 한 명의 수도자이고 다른 한 명은 평신도이다.

그밖에 특별한 게 있다면, 인터넷 화상 통화를 이용해 영성지도를 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성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효과는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것에 못지않다.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사제가 주례사를 하듯이 결혼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다. 많은 평신도들을 영성지도하면서,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부부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신수련을 주는 방식에 3가지가 있다. 강론식과 안내식, 그리고 개인지도식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피정은 안내식 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정 지도자가 세운 일정한 계획에 맞추어 피정자들이 따라가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면담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더라도 기도 안내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와 달리, 개인지도식은 철저하게 각 개인에게 맞추어 개별적으로 기도 안내와 면담이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영신수련 지도에 있어서 이냐시오가 원래 의도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일러두기 2번'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있었다. 이것은 지도자보다는 피정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체험하고 식별하는 사람은 피정자이지 피정지도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정지도자는 피정자를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며 안내해주고 도와줄 뿐이다. 이런 생각이 이 책을 낸 캐나다 구엘프 센터의 기본 입장이다.

개인지도식으로 하게 되면 피정지도자는 피정자의 기도 체험을 듣고 나서 기도할 성서구절만 제시해 줄 뿐이지 해설을 해주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피정자에게 어느 성서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피정에서는 피정지도자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그 반면, 피정자와 하느님의 역할은 더 커진다.

어떤 방식으로 피정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본래 이냐시오가 의도했던 것에 집중해 보자고 하는 것이 구엘프 센터에서 추구하는 영성지도 방법이고, 그것을 반영한 책이 이 <Orientations>라고 할 수 있다. 피정을 지도하는 성직자의 가르침이나 식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피정자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쉽게 환영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내식 피정이 이미 자리를 잡아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대일 개인지도식 피정이 전면적으로 필요하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

피정지도자가 반드시 성직자나 수도자일 필요는 없다. 피정지도자는 다만 피정자의 기도 체험을 들어주고 안내해 줄 뿐이다. 피정지도 자체는 성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가 제대로 양성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평신도를 지도하면서 피정지도자로 초대에 보았는데, 피정자가 그 지도자에게 신뢰를 하기만 하면 성직자나 평신도나에 상관 없이 자기 자신을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평신도 지도자는 (수도자나 성직자로서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신도 피정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고들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정지도자가 성직자 또는 수도자나 아니면 평신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성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행: 평신도 가톨릭교리교육 운동

교회의 기본 사명은 4 가지이지만 목표는 하나이다. “교회의 소망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 한 가지 뿐이다. 진리를 증거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구원하며, 봉사를 받기보다는 봉사하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려는 것뿐이다.”(사목헌장 3 항)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한 바와 같이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하는 데에 있다. 교회가 계승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은 결국 하느님 나라의 건설로 집약된다. 이는 곧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비전은 교회(구조, 제도, 조직)가 증거(복음선포), 전례(예배), 친교(일치), 봉사(섬김)의 4 가지 기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또는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모든 행위는 이 4 가지 사명으로 압축된다.

마르티리아(martyria: 증거-복음선포)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의미한다. 마르티리아는 본래 순교, 증거를 뜻하는 용어이다. 사도들이 마르티리아를 교회의 첫 번째 사명으로 꼽은 것은 복음선포(증거)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마태 28,28 참조). 성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 사도직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표한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2 디모 4,5) • “나는 또 많은 높은 좌석과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묵시 20,4-5).

복음선포의 사명은 마르티리아의 언어적 의미 그대로 고난을 견디어내며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써 복음을 성취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한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 고린 9,16).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 예언자적인 선포, 복음화 노력, 전례 속에서의 말씀 선포, 교리교육, 설교, 신학연구 등이 마르티리아에 속한다.

리투르지아(liturgia: 전례)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의미한다. 리투르지아의 근본 정신은 이미 선포된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의 현실에 대한 감사이다. 즉 찬양과 예배(전례)로써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리투르지아(전례)의 절정인 미사 성제를 Eucaristia(감사제)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성서는 리투르지아가 교회 사도직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표한다.

“주여, 주께서 내신 민족들이 모두 와서 예배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6,9)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루가 22,19)

“성사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골로 3,16)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히브 12,28)

리투르지아의 핵심 요소인 ‘기념’(anamnesis)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함과 동시에 바로 오늘의 현장에서 재현하고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총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리투르지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행위나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삶 속에서의 예배 및 흠송행위 전체가 리투르지아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로마 12,2)라고 역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사성제를 중심으로 한 감사의 생활, 성사생활, 축일과 축제 거행, 기도생활, 신심행위 등이 리투르지아에 해당한다.

코이노니아(koinonia: 친교)는 ‘하느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친교를 이루는 삶’을 의미한다. 사랑의 친교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창세 1,28)을 지닌 인간은, 특히 그 가운데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은 이웃·동료와 더불어 나눔과 친교의 삶을 살도록 불렸다. 코이노니아는 인간의 기본 처지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복음의 체험을 통한 동료애 및 가족애, 나아가 인류의 공동 운명에 대한 연대의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서는 코이노니아가 교회 사도직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표한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4-35)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로마 12,15)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연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으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필립 2,1)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1 베드 3,8)

코이노니아(친교)는 생활과 신앙의 차원에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함께 나눔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요한 17,21-22 참조).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기본 사명에 속하는 이유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한 분의 ‘아버지’(=성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완성은 결국 사랑의 완성이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형제.자매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서로 사귀고 나눔을 통하여 인격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건설, 형제애, 화해, 일치, 나눔, 대화 등이 이에 속한다.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는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의미한다. 디아코니아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다. 디아코니아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가리키던 용어였으나 성서적인 의미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가리킨다. 현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에 연대하고(사목현장 1 항 참조) 그들을 위해 투신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디아코니아가 교회 사도직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성서는 다음과 같이 언표한다.

“계명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궁핍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 말아라.” (집회 29,9)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르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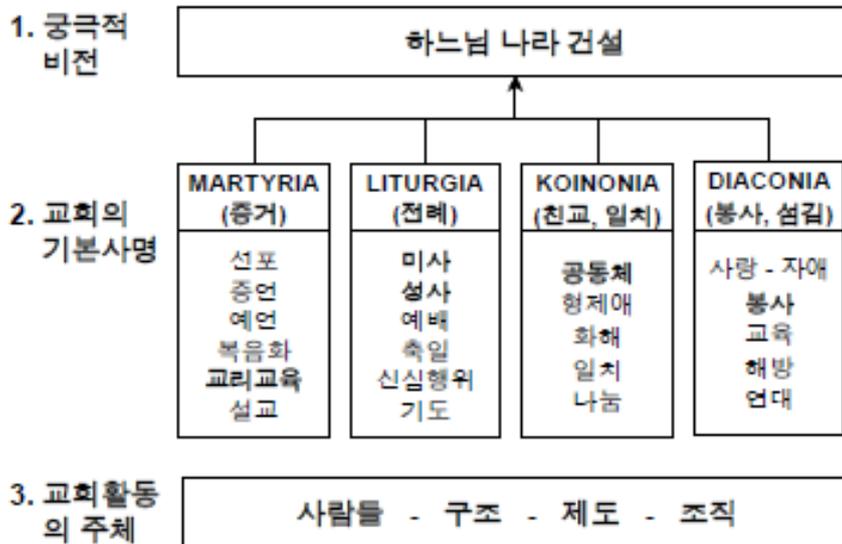
“식탁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요한 13,4-5)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1 베드 4,10)

이런 봉사적 투신을 통해서 교회는 ‘인간의 수호자’로서 그리스도교의 매력과 향기를 발산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성사’가 된다. 본회퍼(D. Bonhoeffer)가 주장하듯이 “교회는 오로지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본연의 교회 사명에 충실하는 길이 바로 디아코니아(봉사)이다. 결국 디아코니아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자애 활동, 사회교육 사업,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억눌린 이들의 해방을 위한 헌신, 인

간 삶의 발전을 위한 연대활동 등이 디아코니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교회의 4대 기본 사명을 다음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교회의 기본 사명



14. 동아시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은 아시아인들에게 전하는 최상의 봉사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양식과 가치관, 행동의 변화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실현하는 것과 별개의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호소력을 지니는 복음적 증거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부패에 대해 용감하게 예언자적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회심으로 이끄는 길은 그리스도의 단순한 삶을 본받는 것이다.

2011년 9월 27일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의장 안토니오 마리아 벨리오 대주교, 사무총장 조셉 칼라티파람빌 주교)가 2011년 세계 관광의 날 담화를 발표했다. 문화를 이어 주는 관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해마다 9월 27일은 세계관광기구가 정한 세계 관광의 날입니다. 교황청은 그 첫해인 1980년부터 이날을 함께 지내고 있다.

“문화를 이어 주는 관광”이라는 올해의 주제는 세계 여러 문화의 만남에서 여행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오늘날에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저렴한 비용 덕분에 9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관광은 문화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

리고 관용과 존중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분열이 잦은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더욱 평화로운 미래의 초석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역사나 예술적, 민족적 유산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 관계, 신념, 가치를 포함하므로,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이를 참으로 긍정적으로 여긴다. 따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사람들이 다른 문화 자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하여 더 풍요로워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관광은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준다. ‘세계 관광 윤리 강령’(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은 “열린 마음으로 하는 관광은 민족 간, 문화 간의 마땅한 차이와 다양성을 배우고 상호 관용을 익히는 둘도 없는 자기 교육이다.”라고 단언한다. 관광은 본래 대화만이 아니라 만남을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관광을 통하여 다른 장소와 전통과 생활 방식, 그리고 다른 세계관과 역사 인식과 만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이유로, 관광은 분명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나 대화에 필요한 첫째 조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물음에 기꺼이 대답하는 것이다. 또한 기념물과 문화적 표현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편견이나 배제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상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행할 줄 아는 것’만큼이나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여행국의 특색, 법률, 관습을 존중하면서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광객들 자신이 그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곳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동체와 관광 종사자들도 자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생활 양식과 기대를 알아야 한다.

모든 문화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에, 다양한 문화들의 만남은 서로를 풍요롭게 해준다. 이는 요한 바오로 2세 복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잘 드러난다. “어떤 이들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여기는 ‘차이’는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통하여 인간 존재의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사목의 목적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고 준비시켜, 여행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화적 만남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다른 이를 알고 나 자신을 알아 인간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를 이어 주는 이 대화에서, 분명히 교회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교는 쇠신하고 고양하는 가장 강력한 힘, 곧 인간의 사랑이 되신 하느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교회 문화유산은 참으로 방대하다. 이 유산은 문화와 복음의 만남이라는 신앙 체험에서 생겨

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깊은 종교적 체험의 산물이다. 분명 예술 작품과 역사적 기념물은 복음화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움의 길’(via pulchritudinis), 곧 “하느님의 신비로 나아가는 탁월하고 멋진 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 사목의 우선적인 목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신앙의 열망에서 나온 이러한 문화유산의 참 의미를 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가 관광 사목 종사자들에게 한 격려가 여전히 울려 퍼진다. “여러분은 방문객들이 이 기념물들을 지어 낸 신앙의 원천으로 되돌아가도록 돕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살아 있는 돌들로 교회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안목을 키우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산의 참된 종교적 본성을 보여 주고 그것이 태어난 자리이며 목적인 전례의 맥락 안에 이 유산을 놓아,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거룩한 장소에 맞아들여 그들이 주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맞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느님을 만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각 단체와 개인의 구체적인 특성과 기대와 진정한 영적 요구들을 고려하는” 적절한 환대가 중요하다. 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들어주려는 자세로 함께 지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복음화에 이바지하도록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구체적 사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것은 역사 문화 정보와 더불어 그러한 문화적 표현 본래의 심오한 종교적 의미를 명료하고 편리하게 보여 주는 폭넓은 해설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제안들 중에는 교구의 중요한 종교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광 여행 일정 마련도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방 시간을 연장하여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 안내인의 영성적, 문화적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관광 안내인 단체의 설립 가능성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작품들의 혼, 영감, 메시지를 강조하는 교육 목표를 지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관광 안내서와 웹페이지 또는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지를 발행하려는 노력이 그러한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 방문을 단순히 예비 복음화의 단계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공식 담화문이다.

15.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며

‘신앙의 해’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우리의 영적 쇄신은 체계적인 가톨릭교회교리서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내용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꾸준히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준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의해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차동엽 신부가 이끄는 미래사목 연구소가 제시한 그 추진 방향성을 정리해 본다.

효율적인 가톨릭 교리 교육 및 재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질적으로 ‘복음화’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신자들의 의식과 삶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 복음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리 교육과 재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수행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에서와는 달리,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에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명료하고도 쉽게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10 계명, 세마 이스라엘 등을 통해 신앙 핵심을 요체화 하였듯이 가톨릭교회도 중요한 것들을 핵심으로 묶어 외울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서 말씀을 관련 교리와 함께 익히도록 함으로써 ‘그릇된 가르침’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올바른 복음 이해로 여러 양태로 주장되는 ‘위조 그리스도’ ‘위조 복음’(로데스)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현대의 문화 운동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최상의 미래이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심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와 투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유일무이성을 자신 있게 심어줄 줄 알아야 한다. 신자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확실한 설명체계를 갖추고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투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복음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교회 또는 지역문화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토착화에 대한 압력을 낳고 있는 현실에서, 가톨릭과 같이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진 거대한 종교조직체는 이런 욕구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반면, 현대의 잘못된 영성 운동은 이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주고 있는 편이다. 예민한 ‘영의 식별’ 능력을 발휘하면서 창조적인 토착화 작업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신영성 운동은 불안감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이름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는 사상, 종교, 문화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내일 과 희망적인 종말(escaton)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언자들과목시 문학가들이 말했던 ‘새 하늘 새 땅’의 사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16. 온 백성이

『하느님을 찾고 더욱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한국교회는 아시아인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북한과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89년 제 44 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비롯 기획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북방선교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깨우쳐 주었다.

이것은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복음화율은 고작 3%에 머물러 있는 아시아교회를 향한 교황의 당부로 21세기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와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 볼수 있다. 이처럼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아시아선교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북방선교를 강조해 왔으며 그 복음화의 역할을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한국교회에 맡겨 준 것이다.

실제로 이미 선종한 종회덕 주교는 물론이고 부철산 주교, 김폐헌 주교등도 중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함을 강조해 오고 있다. 중국교회의 실력자인 중국 천주교 교무위원회 부주임 유백년씨의 경우 “앞으로 중국교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중국교회 스스로의 탓도 크지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한국교회의 잘못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희망했다.

온 백성이 복음의 빛 속에서 살도록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역량을 중국교회로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희망과 중요성을 감안하듯 중국과 한국교회는 그간 많지는 않으나 인적교류를 통한 형제교회로서의 우애를 다지며 그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사제나 수도자, 평신도, 복지단체 등은 상당수를 헤아리고 있다. 서울대교구와 대구대교구, 수원교구를 비롯 한국외방선교회에서 유학생 등 기타 신분으로 사제를 파견한 상태며 중국 신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10 여개 남녀 수도회에서는 나환자 요양소의 간호사, 양로원, 병원 및 학교운영, 영어 교사 등의 신분으로 수도자를 파견, 보이지 않는 선교활동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열악한 수준인 중국에서의 신학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학생들을 초청해 국내 신학교에서 수학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심양교구장 김폐헌 주교는 심양교구 신학생들도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요청은 교수요원이 부족해 신학교육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국교회로서는 이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일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선교는 북한선교를 위한 발판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굳게 닫힌 북한의 빗장을 풀기가 쉽지는 않으나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해 나간다면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것이다. 현재 중국과 북한간의 종교적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나 지난 91년도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 회원들이 김대건 신부가 서품을 받은 상해의 김가항성당을 순례한바 있다. 그들은 중국신학교에서 북한의 성직자를 양성해 줄수 있는지를 문의한바 있고 중국교회측은 이때 평양교구장 서리가 김수환 추기경임을 일깨워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교회의 종회덕 주교와 류백년씨 등 7명의 인사가 92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그때 북한 부총리를 만나 천주교 교리의 특성과 천주교가 인민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볼때 중국교회는 우리가 직접 할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줄수 있는 신뢰를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교회를 재건하는 노력을 중국교회를 통한 우회전략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중국 내 교민을 위한 사목대책도 시급하다. 중국에는 약 2백여만 명의 조선족이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그들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금물이다. 중국정부는 이들을 위해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펴고 있고 이 같은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소수민족에 의한 불협화음이 거의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 동포니까」라는 식으로 조선족만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펼치기 보다는 중국전체를 향한 복음화 전략, 우호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을 위해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양시에 거주하는 한 상사주재원의 경우 『약 2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와 있으며 그중 8%정도인 1600명 정도는 가톨릭 신자』라며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곳 신자들은 인근의 중국성당 주일미사에 몇 번 참례해 보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신자로서 친교를 느끼지 못해 곧 성당과 멀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 사목하기란 여러 여건상 제약이 많고 쉽지 않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 이미 수천 개의 교회를 만들어 나름대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인 접근이 아닐까?

개신교에서는 수천 개 교회가 무분별하게 진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드시 그런 방법을 본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들의 대중국 선교 열의를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한국교회의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중국이 변화되고 있듯이 중국교회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세계 복음화의 관건이 중국복음화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중국의 복음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교황은 그 역할을 한국교회에 맡겨 두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숙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화를 위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차질 없이 북한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조선족을 북방선교의 제 1 차적 목적으로 삼아서 안된다는 점이며 둘째가 지하교회와 애국회중 어느 일방과의 접촉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우선의 입장보다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리스도교의 보편원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지난 세기에 이뤄졌던 선교정책에서 일부 선교사들이 피선교국의 입장에서 선교의 방향을 취하지 못하고 선교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선교를 진행시킴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아울러 1801년 순교한 주문모 신부의 시복시성운동을 위해 한중 양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복운동이 연합해 전개된다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와의 유대는 물론 교황청에 대한 중국교회 신도들의 인식도 새로와질 것이다.

이제 중국교회를 위한 실천적 과제만이 남겨져 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중국복음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국법상 선교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인력 파견 등은 신중히 하되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 신구약성서 합본 간행사업, 성당복구 사업, 북경의 전국 신학교(신철학원) 건물신축 등 사제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 의료,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 같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교회를 북한선교의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국교회 그 자체에 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기도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세계인구의 22%에 달하는 13억 인구를 복음화하는 일. 그 역할을 맡은 한국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명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민족이 아닐까?

공산 혁명 이후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중화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한 1) 중국에서 가톨릭교회는, 국가 권위의 지지를 받고 중국 천주교 애국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적’(공식) 가톨릭 공동체와, 불법으로 내몰렸지만 교황과 완전한 친교를 지니고 있는 비밀 가톨릭 공동체 사이의 분열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두 공동체 모두 온갖 규제와 억압에 자주 시달려 왔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하고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러한 두 공동체 가운데에서 상당수의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애국회와 어느 모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교황에 대한 충실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주님을 흠송하고 찬미하게 함

2000년 교회 역사에서 21번의 세계 공의회가 열렸지만 평신도에 관한 문헌을 발표한 공의회는 마지막 21번째인 제 2차 바티칸공의회가 처음이었다. 그 문헌이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평신도 교령)이다. 평신도 교령은 평신도에 관한 최초의 교회 문헌인 셈이다.

공의회 제 4 회기 때인 1965년 11월 18일에 공포된(찬성 2340, 반대 2) 평신도 교령은 교회헌장, 그 중에서도 평신도에 관한 제 4 장을 교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 또 평신도 교령이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공의회 폐막 전날인 1965년 12월 7일 공포된 사목헌장에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 교령을 제대로 읽으려면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다.

교령은 서론에 이어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2~4 항)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5~8 항) △사도직의 여러 분야(9~14 항)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15~22 항) △사도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질서(23~27 항) △사도직을 위한 양성(28~32 항)과 권고 등 전체 33 항으로 이뤄져 있다.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에 관한 1 장(2~4 항)에서 교령은 평신도들이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며 인간 구원에 봉사함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인 세속성이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평신도들은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교령은 강조한다(2 항).

이 평신도 사도직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평신도는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결합에서 사도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받는다”고 교령은 밝힌다. 또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성령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 은사를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특히 자기 목자들과 일치를 이루며 사용하여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한다(3 항).

교령은 이어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에 대해 언급한다(4 항).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산 일치”에 달려 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그 힘을 “전례의 능동적 참여”에서 얻는다. 이를 통해 평신도들은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느님 뜻을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고 교령은 적시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평신도들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대신덕(對神德)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혼인과 가정생활, 독신이나 수절 생활, 건강 상태, 직업과 사회 활동에 따른 특성을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적 전문 지식을 비롯해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직, 정의, 성실, 친절, 용기 같은 덕을 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한다.

교령은 제 2 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5~8 항). 첫째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이다. 이를 위해 평신도들은 생활의 증거와 선행의 실천 같은 표양이나 행동으로써뿐 아니라 말로써도 직·간접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6 항).

둘째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이다. 교령은 “현세 질서는 그 고유 법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더 높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시대, 장소, 민족의 상황에 알맞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현세 질서의 개선이 평신도의 “고유 임무”라고 강조한다(7 항).

셋째는 자선 활동이다. 자선은 “그 자체가 사랑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평신도들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국제적이든 사회 원조사업과 자선 활동을 소중히 여기고 힘껏 도와 곤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효과적 도움을 주며,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러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되며 △불행한 결과만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8 항).

교령 제 3장은 사도직의 여러 분야에 대해 다룬다(9~14 항). 첫째는 교회 공동체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본당은 “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기에,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자기 사제들과 긴밀히 일치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교령은 제시한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인간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물론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하고 “자기 교회 가족의 모든 사도직과 선교 활동을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교령은 제시한다(10 항).

하지만 평신도들은 또한 교구에 대한 의식을 길러 교구 사업에 역량을 바칠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 이런 활동을 교구만이 아니라 초본당, 초교구, 전국적, 국제적 영역에까지 넓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령은 당부한다.

다음으로 가정이다. 가정은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가 돼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어 부부와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독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교령은 지적한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혼인 유대의 거룩함과 불가 해소성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육과 가정의 존엄 및 정당한 자율성의 수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교령은 또 가정 사도직의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하기 위해 가정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11 항).

교령은 청소년도 중요한 사도직 분야로 꼽는다.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에 비례하는 능동적 사도직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요청된다. 교령은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12 항)이라고 지적한다.

사회 환경과 관련, 교령은 “사회 분야의 사도직, 곧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은 결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한다(13 항).

교령은 나아가 국가적 국제적 영역도 사도직 실천의 주요 분야로 제시한다. 평신도들은 공직 수행이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참된 것과 옳은 것과 거룩한 것과 자랑스러운 것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이나 심지어 관광을 목적으로 외국에 여행할 때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선포자로서 여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14 항)고 당부한다.

북한의 종교지형의 변화를 예측해 볼 때, 가장 흡사한 모델은 바로 중국 모델일 것이다.

지난 1984년부터 중국은 도시부분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세제, 금융개혁 및 대외무역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1987년부터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개혁개방의 정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 종교이다. 종교가 세계화와 인권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서방 자본주의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사람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종교법을 통해 규정하였다. 지난 2005년 3월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국은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정치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전해진다. 美 그리스도교신문 MNN(2005년 3월 23일)이 보도했다. 여기서 ‘정치적인 개혁’은 곧 ‘중국이 종교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는 이런 종교법 자체가 없다. 단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을 뿐이다.

현재 중국의 몇몇 주교들은 당국에 종교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 옛 성당 자리를 찾아 다시 성당을 짓는 구체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아직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 천주교의 관련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후원은 이어져야 한다.

‘하느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教會)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과 영성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두 개의 날개로 공동체는 온전히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북한 지원과 더불어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도대체 민족화해 영성은 무엇인가? 둘이 하나 되는 화해의 영성은 무엇인가? 현대를 SQ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영성의 보화를 간직한 가톨릭은 어떤 민족화해 영성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 한 방향으로 ‘집념의 인간 야곱과 예사오의 화해 방식’(창세 32,4-33,17)에서 찾고 싶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다. 삼촌 라반과 화해한 집념의 인간 야곱은 형 예사오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하느님과 화

해해야 했다. 야뵁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형과 화해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 지었다. 야곱과 에사오는 화해하고 서로에게 평화를 약속한다.

야곱과 에사오의 화해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축복 갈취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성서에는 다양한 방식의 화해가 있다. 지난 일에 대한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지 않고 화해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온전한 공동체는 제도적인 측면과 영성적인 측면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활발하게 북한을 지원해주고, 마찬가지로 민족화해의 영성도 뿌리 내려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식별과 판단의 기준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에 따라 바라보고 다가서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삶의 지표가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황금률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

북한의 복음화는 동아시아 복음화와 다르지 않다. 친교와 화합을 통한 일치이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협력이며, 필요한 때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통합이 가능하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미래사목연구소장 차동엽 신부는 2012년 2월 1일 ‘북한 선교 현실과 전망’ 제 7차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선 새터민들과 화합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선교 못자리를 다져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를 전망하며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북한주민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가톨릭신문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하고 우리가 더 진취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복음화는 한국과 보편교회가 가진 항구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종속시키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대화의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한다.

이미 한국에 들어 온 새터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각 지역사회가 가진 편견과 이해 부족, 차별이며,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목활동을 지역사회가 충분히 제공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북한선교는 남북한이 합쳐진 상황에 맞게 미리 정책을 구상하여 자연스러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새터민들을 통일의 메신저요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해 미리 북한에 대해 배우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하며,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재복음화 해 선교의 디딤돌을 다져 가야할 것이다.

신앙의 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북한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변해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다.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한국의 헌신과 노력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선 주민 구성 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부터 지원할 수 있는 단계별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가톨릭 신자 개개인이 먼저 새터민들의 이웃이 되어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는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톨릭교회교리 형성 전례력 52 주간 명례방 계획

교재:

간추린 가톨릭교회교리서(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2003)

가톨릭교회교리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3)

가톨릭교회교리서 요약편(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가톨릭 교회교리 주제	「간추린 가톨릭교회교리서」에 따른 46 과 주제 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및 요약편	교리진도와 전례력주간
신앙 초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 교황 교서「큰 기쁨」 23, 교황령「신앙의 유산」 29, 서 문 39	(제 1-25 항) (요약 제 1 항)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제 1 편 신앙 고백 제 1 `부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제 2 `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	제 1 과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제 1 장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 51, 제 2 장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59, 제 1 절 하느님의 계시 59	(제 26-73 항) (요약 2- 10 항)	대림 제 1 주일
	제 2 과 하느님 계시의 전달과 성경 제 2 절 하느님 계시의 전달 66, 제 3 절 성경 74	(제 74-141 항) (요약 11-24 항)	대림 제 2 주일
	제 3 과 하느님을 믿음 제 3 장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86, 제 1 절 저는 믿나이다 86, 제 2 절 저희는 믿나이다 95	(제 142-184 항) (요약 11-32 항)	대림 제 3 주일
	제 4 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제 2 `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 제 1 장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109, 제 1 절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109	(제 185-278 항) (요약 33-50 항)	대림 제 4 주일
	제 5 과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계속)	(제 279-354 항) (요약 51-65 항)	예수성탄 대축일
	제 6 과 인간 (계속)	(제 355-421 항) (요약 66-78 항)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제 7 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제 2 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186, 제 2 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189, 제 3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200	(제 422-483 항) (요약 79-93 항)	주님 공현 대축일
	제 8 과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심 (계속)	(제 484-511 항) (요약 94-100 항)	연중 제 2 주일
	제 9 과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 (계속)	(제 512-570 항) (요약 101-111 항)	연중 제 3 주일
	제 10 과 주님의 수난과 죽음과 묻히심 제 4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245	(제 571-630 항) (요약 112-124 항)	연중 제 4 주일

	제 11 과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제 5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가운데서 부활하셨다” 272, 제 6 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오른편에 앉으셨다” 285, 제 7 절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289	(제 631-682 항) (요약 125-135 항)	연중 제 5 주일
	제 12 과 성령을 믿나이다 제 3 장 성령을 믿나이다 296, 제 8 절 “성령을 믿으며” 298	(제 683-747 항) (요약 136-137 항)	연중 제 6 주일
	제 13 과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인 교회 제 9 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320	(제 748-810 항) (요약 138-160 항)	연중 제 7 주일
	제 14 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계속)	(제 811-870 항) (요약 161-176 항)	사순 제 1 주일
	제 15 과 모든 성인의 통공 (계속)	(제 871-975 항) (요약 177-199 항)	사순 제 2 주일
	제 16 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 제 10 절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402, 제 11 절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406	(제 976-1019 항) (요약 200-206 항)	사순 제 3 주일
	제 17 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제 12 절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417	(제 1020-1065 항) (요약 207-217 항)	사순 제 4 주일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 18 과 전례와 성사 제 1 `부 성사의 경륜 , 제 1 장 교회 시대의 파스카 신비 441, 제 1 절 거룩하신 삼위의 행위인 전례 441, 제 2 절 파스카 신비와 교회의 성사 452	(제 1066-1134 항) (요약 218-232 항)	사순 제 5 주일
	제 19 과 파스카 신비의 거행 제 2 장 파스카 신비의 성사적 거행 460, 제 1 절 교회의 전례 거행 460, 제 2 절 전례의 다양성과 신비의 단일성 480	(제 1135-1209 항) (요약 233-249 항)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 20 과 세례성사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1 장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 487, 제 1 절 세례성사 487	(제 1210-1284 항) (요약 250-264 항)	예수 부활 대축일

제`1`부 성사의 경륜 제`2`부 교회의 일곱 성사	제 21 과 견진성사 제 2 절 견진성사 507	(제 1285- 1321 항) (요약 265-270 항)	부활 팔일 축제 내 주일
	제 22 과 성체성사 제 3 절 성체성사 519	(제 1322- 1419 항) (요약 271-294 항)	부활 제 3 주일
	제 23 과 고해성사 제 2 장 치유의 성사들 553, 제 4 절 고해성사 553	(제 1420- 1498 항) (요약 295-312 항)	부활 제 4 주일
	제 24 과 병자성사 제 5 절 병자성사 577	(제 1499- 1532 항) (요약 313-320 항)	부활 제 5 주일
	제 25 과 성품성사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589, 제 6 절 성품성사 589	(제 1533- 1600 항) (요약 321-336 항)	부활 제 6 주일
	제 26 과 혼인성사 제 7 절 혼인성사 612	(제 1601- 1666 항) (요약 337-350 항)	주님 승천 대축일
	제 27 과 그 밖의 전례 거행 제 4 장 그 밖의 전례 거행 634, 제 1 절 준성사 634, 제 2 절 그리스도교 장례 638	(제 1667- 1690 항) (요약 351-356 항)	성령 강림 대축일
제 28 과 인간의 품위와 소명 제`1`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 제 1 장 인간의 존엄성 649, 제 1 절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649, 제 2 절 참행복에 부름 받은 우리의 소명 652, , 제 3 절 인간의 자유 657, 제 4 절 인간 행위의 도덕성 662, 제 5 절 감정의 도덕성 665, 제 6 절 도덕적 양심 668	(제 1691- 1802 항) (요약 357-376 항)	삼위일체 대축일	
제 29 과 덕행과 악행 제 7 절 덕 674, 제 8 절 죄 687	(제 1803- 1876 항) (요약 377-400 항)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제 30 과 인류 공동체	(제 1877- 1948 항)	연중 제 11 주일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p> <p>제`1`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p> <p>제`2`부 십 계 명 ,</p>	제 2 장 인류 공동체 696, 제 1 절 인간과 사회 696, 제 2 절 사회생활 참여 701, 제 3 절 사회 정의 708	(요약 401-414 항)	
	제 31 과 법과 은총 제 3 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714, 제 1 절 도덕률 714, 제 2 절 은총과 의화 726, 제 3 절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740	(제 1949- 2051 항) (요약 415-433 항)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제 32 과 십계명, 제 1 계명 제`2`부 십 계 명 , 제 1 장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759, 제 1 절 첫째 계명 759	(제 2052- 2141 항) (요약 434-446 항)	연중 제 13 주일
	제 33 과 제 2 계명, 제 3 계명 제 2 절 둘째 계명 777, 제 3 절 셋째 계명 783	(제 2142- 2195 항) (요약 447-454 항)	연중 제 14 주일
	제 34 과 제 4 계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793, 제 4 절 넷째 계명 793	(제 2196- 2257 항) (요약 455-465 항)	연중 제 15 주일
	제 35 과 제 5 계명 제 5 절 다섯째 계명 811	(제 2258- 2330 항) (요약 466-486 항)	연중 제 16 주일
	제 36 과 제 6 계명 제 6 절 여섯째 계명 831	(제 2331- 2400 항) (요약 487-502 항)	연중 제 17 주일
	제 37 과 제 7 계명 제 7 절 일곱째 계명 852	(제 2401- 2463 항) (요약 503-521 항)	연중 제 18 주일
	제 38 과 제 8 계명 제 8 절 여덟째 계명 872	(제 2464- 2513 항) (요약 521-526 항)	연중 제 19 주일
제 39 과 제 9 계명, 제 10 계명 제 9 절 아홉째 계명 885, 제 10 절 열째 계명 891	(제 2514- 2557 항) (요약 527-533 항)	연중 제 20 주일	

<p>제 4 편 그리스도인의 기도</p> <p>제`1`부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p> <p>제`2` `부 주님의 기도`우리 아버지!”</p>	<p>제 40 과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1`부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 제 1 장 기도 에 대한 계시 906, 제 1 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907</p>	<p>(제 2558- 2597 항) (요약 534-540 항)</p>	<p>연중 제 21 주일</p>
	<p>제 41 과 예수님의 기도, 교회의 기도 제 2 절 때가 찾을 때 917, 제 3 절 교회 시대의 기도 929</p>	<p>(제 2598- 2649 항) (요약 541-556 항)</p>	<p>연중 제 22 주일</p>
	<p>제 42 과 기도의 전통 제 2 장 기도의 전통 938, 제 1 절 기도의 원천 938, 제 2 절 기도의 길 942, 제 3 절 기도의 길잡이 949</p>	<p>(제 2650- 2696 항) (요약 557-566 항)</p>	<p>연중 제 23 주일</p>
	<p>제 43 과 기도의 삶 제 3 장 기도 생활 954, 제 1 절 기도의 형태 955, 제 2 절 기도의 싸움 962</p>	<p>(제 2697- 2758 항) (요약 567-577 항)</p>	<p>연중 제 24 주일</p>
	<p>제 44 과 주님의 기도, “우리 아버지” 제`2` `부 주님의 기도`우리 아버지!”, 제 1 절 “복음 전체의 요약” 978, 제 2 절”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83</p>	<p>(제 2759- 2802 항) (요약 578-586 항)</p>	<p>연중 제 25 주일</p>
	<p>제 45 과 일곱 가지 청원(1) 제 3 절 일곱 가지 청원 993</p>	<p>(제 2803- 2827 항) (요약 587-5911 항)</p>	<p>연중 제 26 주일</p>
	<p>제 46 과 일곱 가지 청원(2) (계속)</p>	<p>(제 2828- 2865 항) (요약 592-598 항)</p>	<p>연중 제 27 주일</p>
<p>마무리: 그리스도인의 향기</p>	<p>이웃 사랑으로 배우는 하느님 사랑 동아시아 선교역사, 한국천주교교회사, 동아시아 순교 성인, 한국 순교 성인 성모 성지 순례, 순교 성지 순례 레지오마리아에 활동, 가톨릭 복지 시설 봉사, 사회교리학교 공의회학교 민족화해학교 등록</p>		<p>연중 제 28-33 주 일</p>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경제자유화 전략 지도(Strategy Map)

(1) 종교 및 기초 경제 지표(Wikipedia와 CIA World Factbook, 2012.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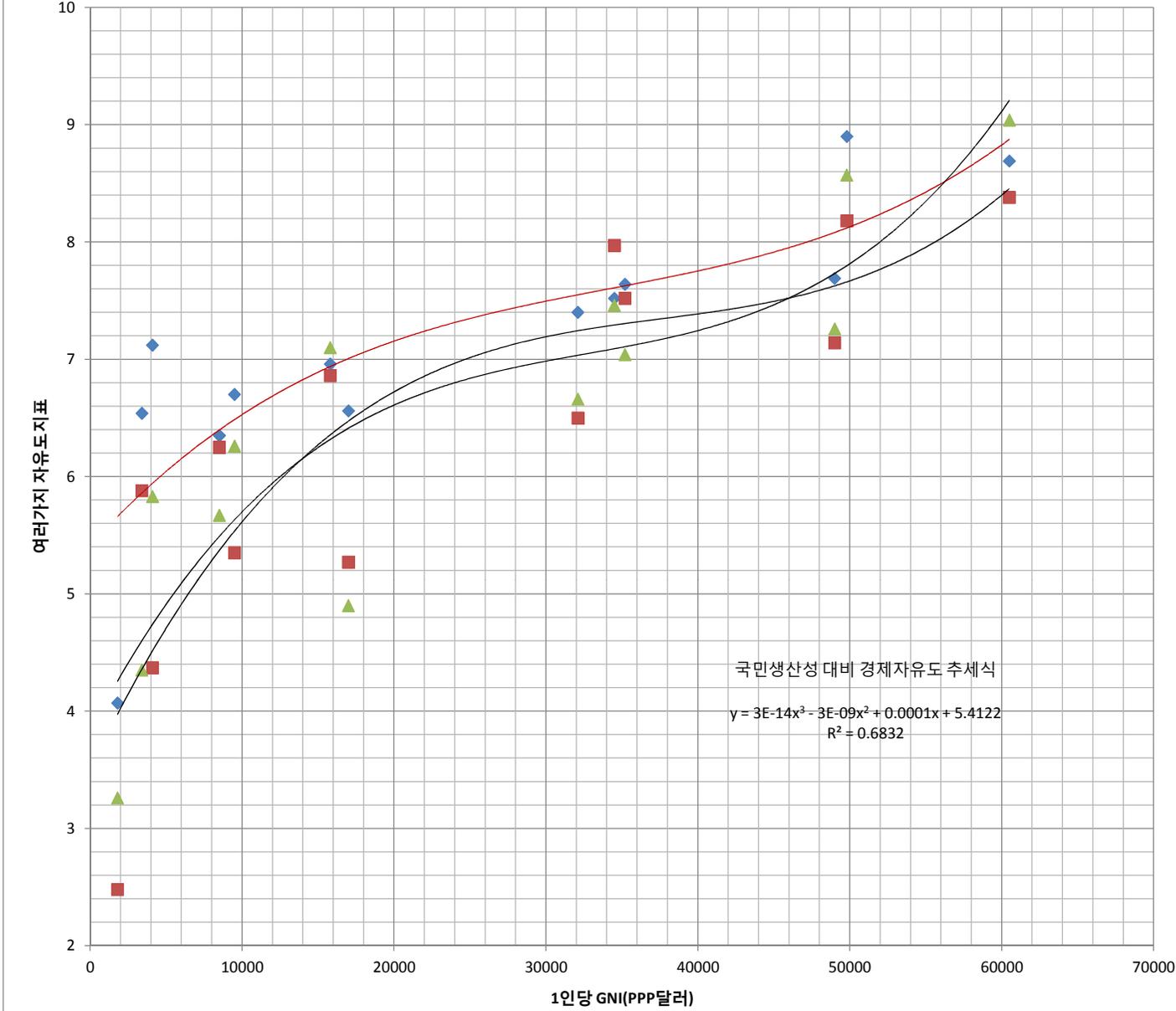
	북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싱가포르	홍콩	세계
천주교(%)	NA	NA(3%)	6.70	1.00	0.40	5.00	82.90	6.60	NA(1위)	1.00	23.90	4.80	6.00	16.83
개신교(%)	NA	NA(1%)	0.50	1.00	0.30	4.10	4.50	19.70	NA(2위)	1.00	51.30	9.80	4.00	6.08
다수종교	비자발적	도교, 불교	무교	러시아정교	불교	무슬림교	천주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일본신도	그리스도교	불교	지역전통교	그리스도교
인구(백만)	24.58	1,343.23	91.52	142.51	67.09	29.17	103.77	48.86	503.82	127.36	313.84	5.35	7.15	7,021.83
면적(천제곱km)	120.40	9,569.00	310.07	16,377.74	510.89	328.65	298.17	96.92	4,324.00	364.48	9,161.96	0.69	1.05	148,940.00
1인당 GNI(PPP달러)	1,800	8,500	3,400	17,000	9,500	15,800	4,100	32,100	34,500	35,200	49,000	60,500	49,800	12,000
GNI(PPP,백만달러)	40.00	11,440.00	303.80	2,414.00	609.80	453.00	395.40	1,574.00	15,650.00	4,497.00	15,290.00	319.90	355.60	80,330.00
상품수출(백만달러)	2.56	1,904.00	95.32	520.90	221.60	225.60	47.23	556.60	1,791.00	788.00	1,497.00	414.80	427.90	17,970.00
상품수입(백만달러)	3.52	1,743.00	97.83	322.50	196.30	177.10	62.68	524.40	2,000.00	808.44	2,236.00	366.30	482.80	17,820.00

(2) 한국 천주교회 통계(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12.31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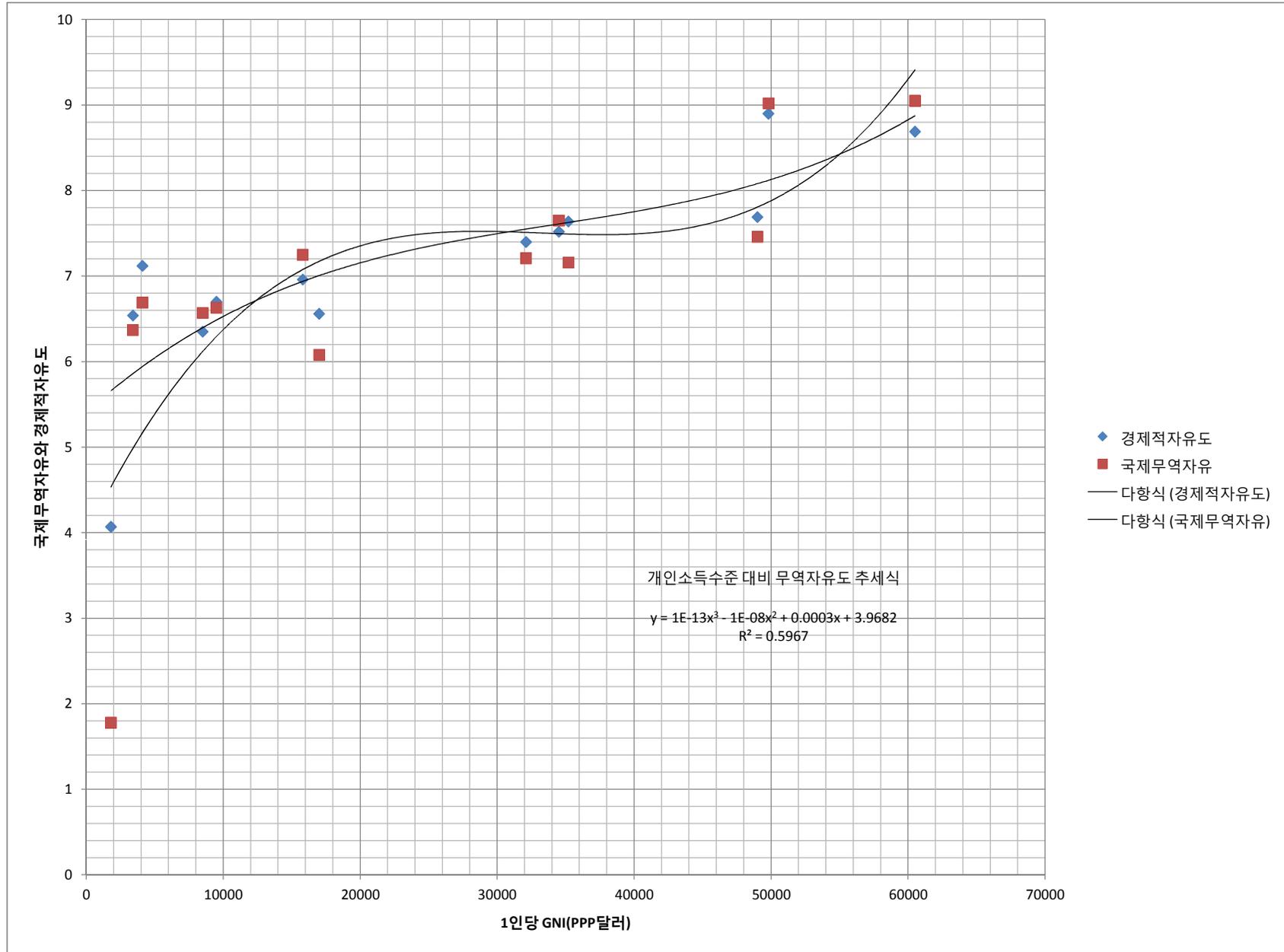
	북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싱가포르	홍콩	세계
한국인 신자수(명)	0	0	1,268	217	751	1,070	1,395	5,309,964	6,340	1,356	90,446	1,098	590	5,472,688
한국인사목 사제수(명)	0	0	3	3	2	2	20	4,655	24	17	133	1	46	5,032
한국인사목 수녀수(명)	0	0	12	11	2	0	54	10,146	117	28	107	0	67	10,749
해외선교 사제수(명)	0	0	1	1	0	0	10	0	11	15	6	0	0	177
해외선교 수녀수(명)	0	0	16	11	2	1	51	0	107	23	23	0	4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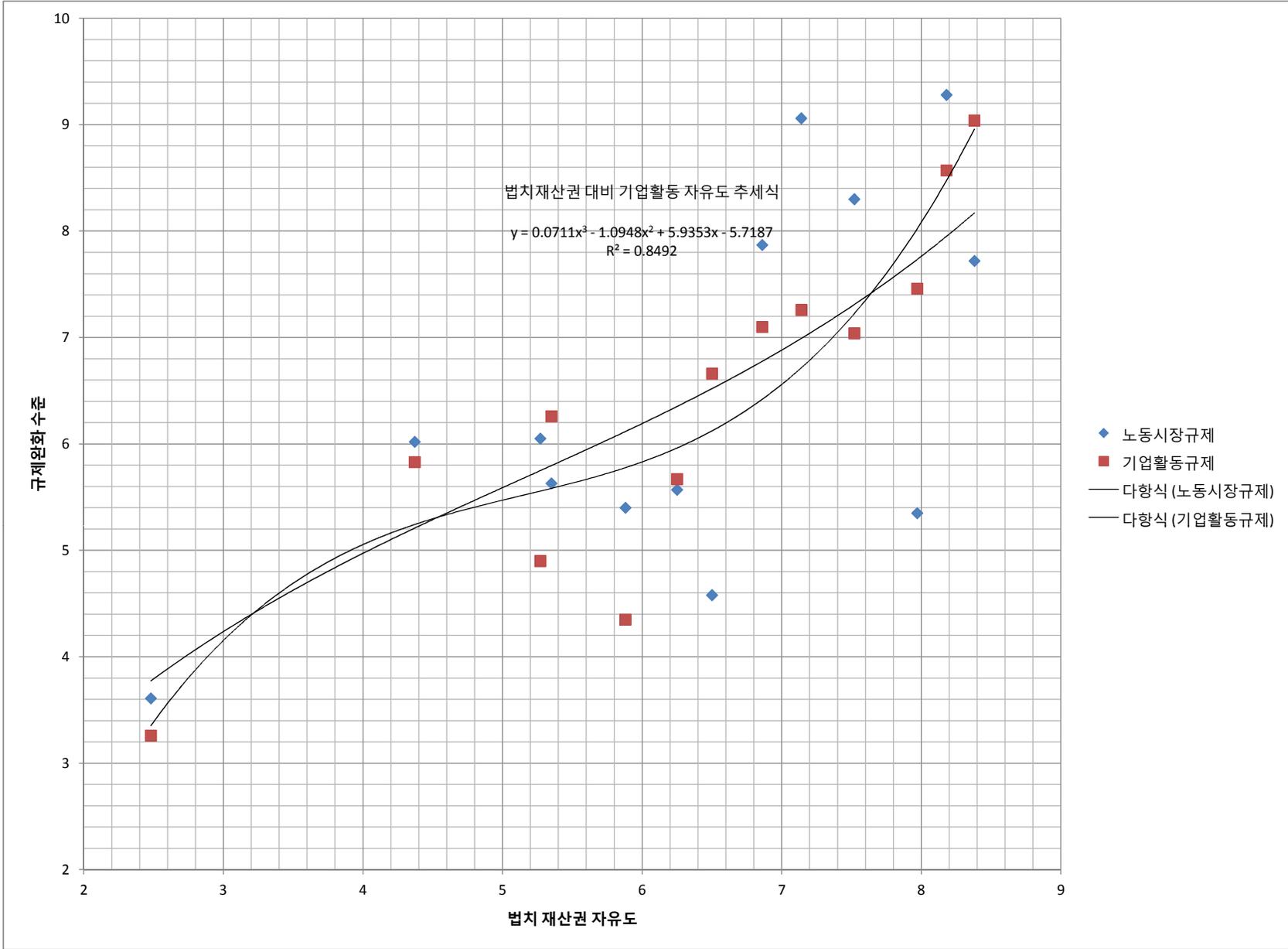
(3) 푸레이저연구소 발표 2010년도 경제자유도(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 2010, 2012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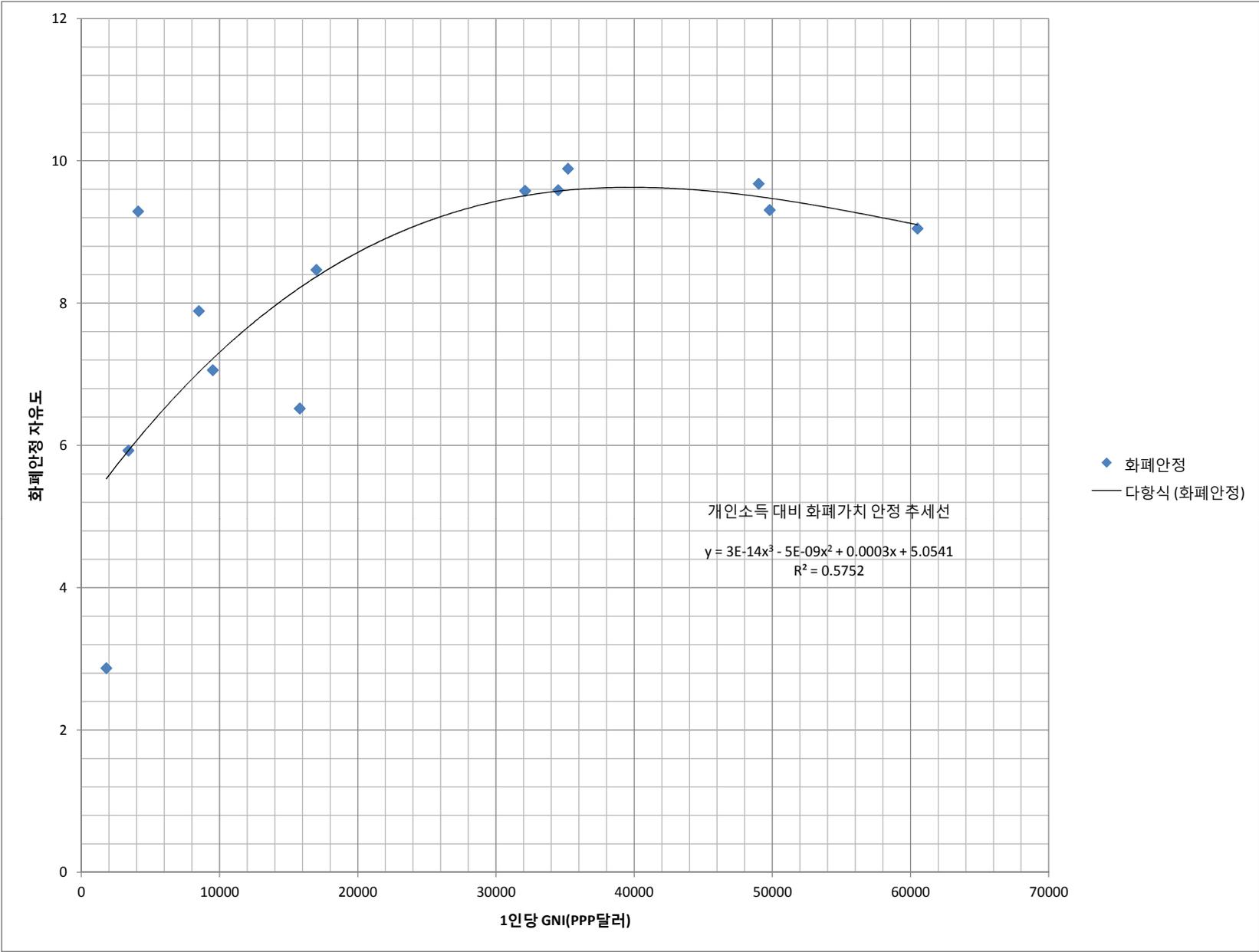
	북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싱가포르	홍콩
경제적자유도	4.07	6.35	6.54	6.56	6.70	6.96	7.12	7.40	7.52	7.64	7.69	8.69	8.90
효율적작은정부	4.90	4.98	8.04	6.75	7.43	6.13	8.31	6.85	5.46	5.80	6.43	8.06	8.89
법치 재산권	2.48	6.25	5.88	5.27	5.35	6.86	4.37	6.50	7.97	7.52	7.14	8.38	8.18
화폐안정	2.87	7.89	5.93	8.47	7.06	6.52	9.29	9.58	9.59	9.89	9.68	9.05	9.31
국제무역자유	1.78	6.57	6.37	6.08	6.63	7.25	6.69	7.21	7.65	7.16	7.46	9.05	9.02
신용시장규제	4.79	6.91	9.63	7.77	9.27	9.12	8.91	9.33	7.99	8.14	6.95	10.00	9.37
노동시장규제	3.61	5.57	5.40	6.05	5.63	7.87	6.02	4.58	5.35	8.30	9.06	7.72	9.28
기업활동규제	3.26	5.67	4.35	4.90	6.26	7.10	5.83	6.66	7.46	7.04	7.26	9.04	8.57



- ◆ 경제자유도
- 법치 재산권
- ▲ 기업활동규제
- 다항식 (경제적자유도)
- 다항식 (법치 재산권)
- 다항식 (기업활동규제)







참고문헌

- 강영옥,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사도직 운동”,(날짜 불명 웹문서)
- 강윤철,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리더십(본당 사목 구조)”,.(날짜 불명 웹문서)
- 김현준,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영성”,.(날짜 불명 웹문서)
- 김성태 조경래, 역사 속의 교회,(날짜 불명 웹문서)
- 박선용, “교황 베네딕토 16 세의 ‘신앙의 해’ 선포의 배경과 의미”,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신앙의 해 연수, 2012.6.13
- 엄재중, “ ‘신앙의 해’와 한국 교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신앙의 해 연수, 2012.6.13
- 성염, “21 세기 한국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한국사회를 위한 예언자인가, 제관인가?”,.(날짜 불명 웹문서)
- 송병락, 한국경제의 길, 독창적 모델을 찾아서, 제 5 판, 박영사, 2010
- 심상태, “가톨릭 교리서에 나타난 신관과 인간관”..(날짜 불명 웹문서)
- 정진호,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1993-1996, 한국경제연구원, 1997
- 차동엽, 21 세기 한국 천주교회를 위한 비전, 미래사목연구소, 2004
- 차동엽, 사도신경, 그분과 나눈 약속의 정표, 위즈앤비즈, 2012
- 천주교서울대교구, 2012 년 사목교서, 2011
- 최석우 지음(1961) 조현범 서정화 옮김, 조선에서의 첫 대목구 설정과 가톨릭교의 기원 1592-1837, 교회사번역총서 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력 2012-2013. 2012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2011.12.31. 현재), 2012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해외이주사목위원회, 해외 한인 천주교회 통계(2010.12.31. 현재), 2011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평협 40 주년 백서, 2011.12.8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소식, 제 35 호, 2011.12.30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소식, 제 10 호, 2007.9.3
- 샤를르 달레(1874) 안응렬 최석우 역주(1979), 한국천주교회사 上,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베르나르딘 추기경(1997). 강우식 옮김, 평화의 선물, 바오로딸, 2011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2 Annual Report
- Opus Dei, 40 Brief Summaries of Church’s Main Teachings Based on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Pontifical University of the Holy Cross,(www.opusdei.org)
- Wikipedia(www.wikipedia.drg)

교회문헌

교황 베네딕토 16 세 성하의 '신앙의 해' 제정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 2011.10.11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성하의 제 24 차 세계 관광의 날 담화, 2003.9.27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2011 년 세계 관광의 날 담화, 무화를 이어주는 관광, 2011.9.27

바티칸통신,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여정, 신앙의 해 소개, 2012.6.21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성인의 성령강림 대축일 강론,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분, 1969.5.25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 헌장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963)

교회 헌장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

계시 헌장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1965)

사목 헌장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사회 매체 교령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놀라운 기술」(Inter Mirifica, 1963)

동방 교회 교령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동방 교회들」(Orientalium Ecclesiarum, 1964)

일치 교령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1964)

주교 교령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965)

수도 생활 교령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 1965)

사제 양성 교령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965)

평신도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선교 교령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만민에게」(Ad Gentes, 1965)

사제 생활 교령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 1965)

비그리스도교 선언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우리 시대」(Nostra Aetate, 1965)

종교 자유 선언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1965)

<전례서>

「장례 예식서」(Ordo exsequiarum, 1969)

「유아 세례 예식서」(Ordo Baptismi parvulorum, 1969)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 1970)

「동정녀 봉헌 예식서」(Ordo Consecrationis virginum, 1970)

「어른 입교 예식서」(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 1972)

「견진성사예식서」(Ordo Confirmationis, 1973)

「성무일도」(Liturgia Horarum, 1973)

「고해성사 예식서」 (Ordo Paenitentiae, 1974)
「축복 예식서」 (De Benedictionibus, 1984)
「서품예식서」 (De Ordinatione Episcopi, Presbyterorum et Diaconorum, 1990)
「혼인 예식서」 (Ordo celebrandi Matrimonium, 1991)

<기 타>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1967)
「교리 교육 일반 지침」 (Directorium Catechisticum Generale., 1971) : 「사목」31 호
교회에 관한 현대의 오류를 반박하는 가톨릭 교리 선언 ` (Mysterium ecclesiae, 1973): :
「사목」34 호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Persona humana, 1975): 「사목」44 호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Inter insigniores, 1976): 「사목」50 호
제 3 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의「푸에블라 문헌」 (1979) , 성찬성 옮김, 1991, 분도출판사
유아 세례에 관한 훈령(Pastoralis actio, 1980): 「사목」75 호
안락사에 관한 선언(Iura et bona, 1980): 「사목」71 호
「교회법전」 (Codex Iuris Canonici, 1983)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제 2 차 임시 총회 최종 보고서(Exeunte coetu secundo, 1985)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회보」66 호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자유 의 자각」 (Libertatis Conscientia, 1986)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생명의 선물」: (Donum vitae, 1987)
「사목」112 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회보」42 호

교황 문헌

<비오 11 세>

회칙「사십 주년」 (Quadragesimo Anno, 1931)
회칙「하느님이신 구세주」 (Divini Redemptoris, 1937)

<요한 23 세>

회칙「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 1961)
회칙「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 1963)

<바오로 6 세>

회칙「신앙의 신비」 (Mysterium Fidei, 1965)
회칙「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 1967)
신경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 (Sollemni hac liturgia, 1968) : 「경향잡지」, 1968.8.
회칙「인간 생명」 (Humanae Vitae, 1968)
교황령「하느님 본성에 참여」 (Divinae consortium natura, 1971) : 「견진성사 예식서」, 9 면.
교황령「병자 도유」 (Sacram unctionem infirmorum, 1972) : 「병자성사 예식서」, 9 면.

교황 권고「마리아 공경」 (Marialis Cultus, 1974)
 교황 권고「현대의 복음 선교」 (Evangelii Nuntiandi, 1975)
 <요한 바오로 2 세>
 회칙「인간의 구원자」 (Redemptor Hominis, 1979)
 교황 권고「현대의 교리 교육」 (Catechesi Tradendae, 1979)
 회칙「자비로우신 하느님」 (Dives in Misericordia, 1980)
 회칙「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ercens, 1981)
 교황 권고「가정 공동체」 (Familiaris Consortio, 1981)
 교황 권고「화해와 참회」.(Reconciliatio et Paenitentia, 1984)
 회칙「생명을 주시는 주님」 (Dominum et Vivificantem, 1986)
 회칙「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1987)
 회칙「사회적 관심」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교황 교서「여성의 존엄」 (Mulieris Dignitatem, 1988)
 교황교서 「이십오 주년」 (Vicesimus Quintus Annus, 1988)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회보」55 호.
 교황 권고「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fideles Laici, 1988)
 회칙「교회의 선교 사명」 (Redemptoris Missio, 1990)
 회칙「백주년」 (Centesimus Annus, 1991)
 회칙「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 1995)
 교황 권고「봉헌 생활」 (Vita Consecrata, 1996)

교회 저술가 문헌

<교부들의 문헌>

성 이냐시오, 「일곱 편지」, 박미경 역주, 분도출판사, 2000.
 성 폴리카르포, 「편지와 순교록」, 하성수 역주, 분도출판사, 2000.
 헤르마스, 「목자」, 하성수 역주, 분도출판사, 2002.
 성 히폴리토, 「사도전승」,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1992.
 성 치프리아노, 「도나투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이형우 옮김, 분도출판사, 1987.
 성 아우구스티노, 「자유 의지론」, 성염 역주, 분도출판사, 1998.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최민순 옮김, 바오로딸, 1965.
 성 대 레오, 「성탄·공현 강론집」,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1990.
 성 대 레오, 「사순 시기 강론집」,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1996.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1991.

<성인들의 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한국 관구

윤킴, 분도출판사, 1985: “권고” 와 “태양의 노래” 수록.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 대전」, 정의채 윤킴, 바오로딸, 1985: .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영신 수련」, 윤양석 윤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예수의 성녀 데레사, 「완덕의 길」, 최민순 윤킴, 바오로딸, 1973.
예수의 성녀 데레사, 「천주 자비의 글」 (자서전),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윤킴, 분도출판사, 1983.
십자가의 성 요한, 「잠언과 영적 권고」,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윤킴, 가톨릭출판사, 1954.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 최민순 윤킴, 바오로딸, 1971.
십자가의 성 요한, 「소품집」,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 분도출판사, 197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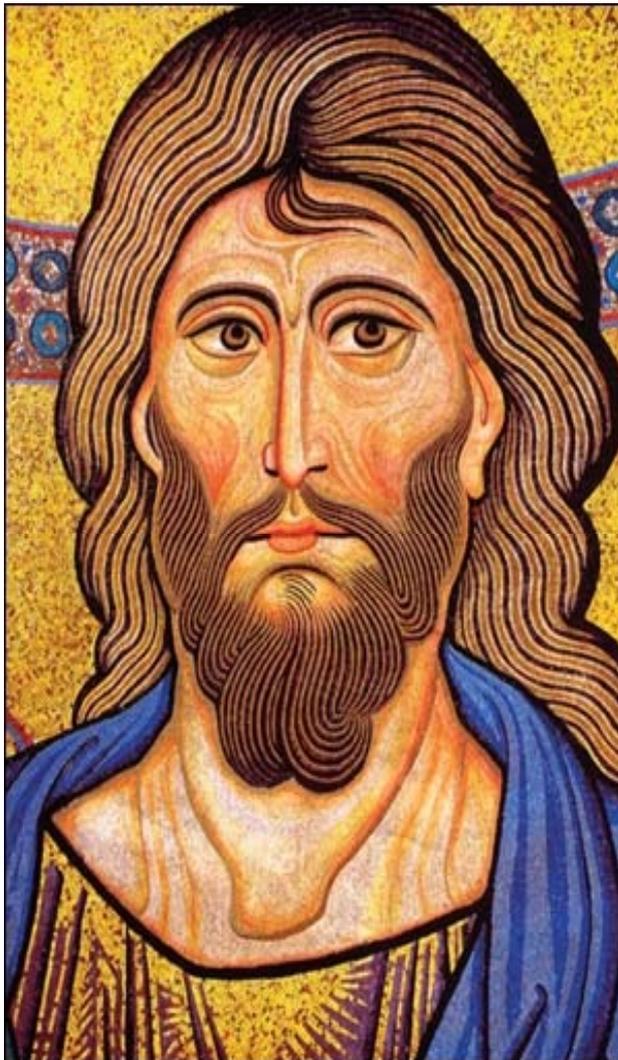
「준주성범」, 윤을수 윤킴, 가톨릭출판사, 1955.
「열두 사도의 가르침」-`디다케」, 정양모 역주, 분도출판사, 1993.

부록

신앙 고백(신경 Credo)

선교를 위한 기도(천주교서울대교구주교좌명동대성당)

신앙 고백(신경 Credo)



신앙 고백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진영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히게이-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주 예수 그리스도"(12세기, 사할라) 치찰루 주교의 성령스키엔티 사진.

선교를 위한 기도(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굶주림과 박해의 칼날 아래서도
용기를 지고 묵주 알을 굴리며 복음을 전파하신,
순교선열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며,
온 백성이 주님을 흠송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3주제 토론문>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세상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진호(프란치스코) 교수님의 글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경제적 자유의 평신도 영성: 동아시아 복음화 사도직 전략”은 총 17장에 달하는 방대하고 치밀하며, 풍부한 내용을 담은 글로서 미션(하느님의 나라 확장), 현 위치(경제적 자유와 동아시아의 희망), 전략(새로운 복음화), 실행(평신도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운동)의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신앙의 해’를 시작하면서 꼭 일독하길 기대한다.

정진호교수님의 글은 오늘 심포지엄의 제1주제인 바티칸 공의회의 성서적 의미, 2주제인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때, 결국 바티칸 공의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상의 변화와 그 변화의 주역으로서 나서야 할 평신도의 자세와 역할을 되짚어보는 핵심적 글이라고 생각한다.

정진호교수님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하기에 글에 대해 부연하기보다는, 글의 주제인 세상의 변화와 변화를 이끌게 된 한국 가톨릭교회 평신도와 관련된 핵심 내용(그리고 토론자의 관심사안)을 선택하여 발제문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비추어 세상의 변화에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공헌했는가 하는 문제다. ‘교회 공동체의 완성 뿐 아니라...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성화해야 하는....평신도 고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되짚어 보아야한다.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공의회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교수님이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교회의 전통 즉 평신도 중심으로 태동한 한국 가톨릭 교회와 순교자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의 전통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시너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배가되어야 한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탐구하고, 그 정신을 우리사회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교회와 평신도들의 모습은 하느님이 보기에 아름다웠을 것이다. 민주쟁취와 독재타도라는 거대 담론을 대체하는 다른 정치, 경제사회, 문화, 윤리 등 여러 이슈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다. 순교자 전통의 신앙과 바티칸 공의회 정신으로 평신도들이 중심적 행위자로 나설 때 세상의 변화가 가능하다.

둘째, 정교수님께서 7장에서 말씀하신 소공동체 운동과 세상의 변화에 공감한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소공동체)는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르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 나서기 위해서, 평신도 개개인의 변화와 다짐을 위해서, 자신감을 충전하기 위해서 소공동체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상'임에 틀림없다. 친교와 배려와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교수님께서 강조한 교회 내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레지오 마리에, 꾸르실료 운동 등 수 많은 신심, 활동 단체 역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채워주는 모임이라고 평가한다.

셋째, 12장에서 언급한 사회교리와 정의 평화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쟁취와 독재타도라는 거대 담론의 상대적 무게가 줄어들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 환경, 부의 분배, 언론의 횡포, 생명 경시 풍조, 배금사상의 팽배, 불균형 구조의 고착화, 전쟁과 기아 등의 문제를 평신도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숙고해야 한다. 그 답이 사회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 사회적 가르침)에 있다.

어느 종교나 정치공동체,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 집단이나,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야말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교회가 급변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근대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히 경제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가톨릭교회의 존재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반성에서, 레오 13세께서 노동현장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시고 그 이후 가톨릭교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복음적 시각에서 마련해왔다. 지금까지 많은 교황님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사목적 권고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바티칸 공의회 문헌 역시 사회교리의 중요 부분이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사회교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교리 주간을 제정하여, 사회교리의 확산과 실천에 힘쓰게 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에 비추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평신도의 자세다. 껄끄러운 정치, 경제, 사회문제, 종종 논쟁적인 이슈들과 연계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조용히 성당에서 자신의 신심을 위로받고 기도생활을 통해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편안할 수 있다. 그러나 바티칸 공의회는 정신은 가톨릭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 것을 요구한다. 평신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신앙으로 잘못과 불의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내의 신심활동 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바티칸 공의회 정신, 가톨릭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론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사회정의 시민행동을 잠시 소개하면, 사회정의시민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를 실천할 목적으로 5년전 설립된 시민단체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사회정의,’ ‘공동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지향정신으로 삼고 있다.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서 더 느끼고 사회적인 가르침이 정말 귀중하고 풍요로운 유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곧 ‘선순환의 물결’이다. 선순환은 밖으로 향한다. 사회교리에 따라 실천하는 것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서서히 ‘아! 왜 저래야 하는가? 저 사람은 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훌륭한 규범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구나!’ 하며 선순환의 고리에 자발적으로 접속하게 된다.

결국 바티칸 공의회 정신은 교회의 변화, 평신도의 변화로 이어져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을 굳게 믿는다.